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배 지 희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과정과  
부모교육 실행의 변화

202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윤 미 경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과정과  
부모교육 실행의 변화

배 지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4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윤 미 경

# 인준서


윤미경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4년 6월

심사위원장 전 홍주 

심사위원 정혜욱 

심사위원 권정윤 

심사위원 김고은 

심사위원 배지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의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과정 및 부모교육 실행의 변화를 분석하여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인 부모교육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한 부모교육 실행의 변화는 어떠한가?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부모교육 실행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는 2023년 6월 8일 사전모임을 시작으로 2023년 11월 24일까지 총 16회기로 진행되었다. 경기도 G 지역에서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단체로 사용하는 SNS에 본 연구의 목적과 전문적학습공동체 관련 내용을 게시한 공고문을 보고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연구 참여자는 총 10명이다. 연구자는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의 리더로 참여하였다. 연구자의 참여관찰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현장일지와 연구일지, 개별면담과 집단면담의 전사자료, 연구참여자 일지, 학습 산출물로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를 분류하고 범주화하는 과정을 통해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부모교육 실행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운영 과정 및 부모교육 실행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참여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적응기, 집중기, 발전기, 결실기, 종결 및 유지기의 시기를 거치며 운영되었다. 먼저 ‘적응기’에 원장들은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관한 고민이 있었지만 모임을 통해 구성원과의 동질감과 유대감을 경험하고 서로 지지하고 협력하며 적응하였다. ‘집중기’에 원장들은 학습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고 사례를 공유하며 분석하는 과정에서 더욱 학습에 집중하였고 학습한 내용을 부모교육으로 사용할 방법에 대해 고민하였다. ‘발전기’에 원장들은 집중기를 거치면서 학습한 내용을 다른 주제의 학습과 연결하여 학습하였고 동시에 부모교육에 사용할 강의안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전문성을 발전시켜 나갔다. 그리고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의 이름을 ‘지피지기 안(安) 육아’로 정하였으며, 프로그램은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해 부모자신의 이해, 기질, 애착, 감성코칭을 주제로 4회기로 구성하였다. ‘결실기’에 원장들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모교육을 실행하고자 강의시연을 하면서 내용을 숙지하고 각자의 어린이집 부모를 대상으로 지피지기 안(安) 육아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하는 결실을 맺었다. 마지막으로 ‘종결 및 유지기’에는 원장들은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부모교육을 위한 학습을 지속할 것을 희망하면서 공동체 모임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둘째,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변화는 성찰을 통한 부모교육에 대한 관점의 변화, 부모교육에 대한 자신감과 능력의 향상, 다양한 방식의 부모교육 실행으로 나타났다. 먼저, 원장들은 공동체 모임을 통해 부모교육과 관련한 학습을 하면서 자신의 육아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양육태도의 변화를 보였다. 그리고 학습 과정을 통해 영아와 학부모를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가 있었고, 일부 원장은 어린이집에서 실행하는 부모교육에 관한 관점이 변화하는 모습

도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교육에 대한 자신감과 능력의 향상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원장들은 부모교육에 관한 지식을 내면화하게 되면서 부모교육에 관한 자신감이 향상되었으며, 부모교육에 필요한 카드뉴스, 강의안 제작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그리고 부모교육 프로그램 진행에 적합한 준비를 할 수 있는 능력도 향상되었다. 마지막으로, 원장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부모교육을 실행하게 되었다. 원장들은 부모교육 전문성이 증진되면서 부모와 상담을 할 때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양육 방법을 알려주는 방향으로 부모 상담 내용이 변화한 것을 경험하였고, 공동체 모임을 통해 학습한 방법을 사용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부모교육을 실행하게 되었다. 또한 공동체 모임을 통해 개발한 지피지기 안(安) 육아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하게 되면서 원장으로서 자기효능감을 경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가정어린이집 원장은 부모교육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에 참여하면서 구성원들과 형성한 신뢰를 바탕으로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협력하며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높아졌다. 또한 원장들은 부모교육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정어린이집에 적합한 부모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게 된 변화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영유아교육기관 원장의 전문성 증진과 교육 현장에서 전문성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영유아교육기관 원장의 전문성 함양을 지원하는 원장 재교육 방법으로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영유아교육기관 원장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성공적인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위해 리더 양성 및 물리적 지원과 인적 지원 등의 실질적 지원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 .....	11
3. 용어의 정의 .....	12
4. 연구자 .....	13
II. 이론적 배경 .....	17
1. 부모교육 .....	17
1) 부모교육의 개념 .....	17
2) 부모교육의 중요성 .....	19
3) 부모교육의 유형 .....	26
2. 가정어린이집 .....	31
1) 가정어린이집의 특성 .....	31
2) 가정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의 필요성 .....	33
3) 가정어린이집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운영 실제 .....	36
3. 전문적학습공동체 .....	41
1) 전문적학습공동체의 개념 .....	41
2)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특성 .....	44
3) 유아교육에서의 전문적학습공동체 관련 선행연구 .....	52

<b>Ⅲ. 연구 방법</b> .....	65
1. 연구 참여자 .....	65
2. 연구자의 역할 .....	72
3. 연구 절차.....	73
1) 요구조사 .....	74
2) 문헌연구 .....	83
3)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계획 .....	95
4)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과정 .....	97
4. 자료 수집 .....	101
1) 현장일지와 연구일지 .....	101
2) 심층 면담 자료 .....	103
3) 연구 참여자 일지 .....	104
4) 학습 산출물 .....	105
5. 자료 분석 .....	105
6. 연구의 신뢰성 확보 방안 .....	108
<b>Ⅳ. 연구 결과 및 해석</b> .....	109
1.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과정.....	109
1) 적응기: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유대감 형성하기.....	110
2) 집중기: 함께 이론을 탐구하고 사례를 분석하기.....	116
3) 발전기: 협력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기.....	124
4) 결실기: 부모교육을 실행하고 결과 공유하기.....	133
5) 종결 및 유지기: 공동체 경험을 돌아보고 종결과 유지 협의하기.....	137
2.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한 부모교육 실행의 변화	139
1) 성찰을 통한 부모교육에 대한 관점의 변화.....	140

2) 부모교육에 대한 자신감과 능력의 향상 .....	144
3) 다양한 방식의 부모교육 실행 .....	153
<b>V. 논의 및 결론</b> .....	162
1.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과정....	162
2.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한 부모교육 실행의 변화	175
3. 결론 및 제언.....	185

**참고문헌**

**ABSTRACT**

## 표 목 차

<표 1> 부모교육의 유형 구분 .....	30
<표 2>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특성 .....	50
<표 3>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운영 과정 단계 .....	56
<표 4>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	67
<표 5> 요구조사를 위한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	75
<표 6> 요구조사에 사용된 질문 .....	76
<표 7>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학습 내용 선정을 위한 문헌 검토 및 적용점 ...	84
<표 8>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학습 방법 선정을 위한 문헌 검토 및 적용점 ...	91
<표 9> 지피지기 안(安) 부모교육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과정 .....	98
<표 10>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 내용 .....	104

## 그림 목 차

[그림 1] 요구조사와 문헌분석을 통해 선정된 전문적학습공동체 학습 내용	90
[그림 2] 요구조사와 문헌분석을 통해 선정된 전문적학습공동체 학습 방법	94
[그림 3]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운영 계획	96
[그림 4] 자료 분석 과정	107
[그림 5] 기질의 중요성과 유형을 전달하는 카드뉴스	121
[그림 6] 지피지기 안(安) 육아 프로그램 강의안 일부	130
[그림 7] 지피지기 안(安) 육아 부모교육 신청서	131
[그림 8] 애착 교재 낭독 영상 표지	148
[그림 9] 1회기 가정활동지와 활동자료	150
[그림 10] 어린이집 현관문에 게시된 오디오 부모교육 QR코드	156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영아기의 경험은 전 생애 발달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영아를 돌보는 양육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영아는 부모의 사회 진출과 어린이집 무상 보육 등의 이유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0~2세 영아(746,172명)의 84%(624,463명)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24),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는 주 5일 이상 하루 평균 7시간 24분을 어린이집에서 생활하고 있다(이정원 등, 2023). 그러므로 영아가 긴 시간 동안 생활하는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과 보육 서비스의 질이 중요하고 영아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에 주 양육자인 부모가 바람직한 양육 태도로 영아를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다. 더불어 어린이집과 가정이 영아의 긍정적 발달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어린이집의 역할에는 부모를 지지하고 안내하는 부모교육자로서의 역할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2022)는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면서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 뒷받침”(p. 11)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또한 양육지원을 종합적으로 강화하고 영유아 중심의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하며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와 역량 강화 그리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4대 중점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은 최근 우리 사회의 저출생 장기화로 영유아 수 감소가 본격화 되고 양육자가 느끼는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현상 그리고 생애 초기 시기의 중요성이 사회적

으로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어린이집 이용 시기도 빨라지고 있는 사회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무상보육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1년에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주민등록상 0~2세 인구(1,367,240명)의 54%(739,332명)에 해당하였다(보건복지부, 2012). 그러나 0~2세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된 2012년에는 0~2세 인구의 62%로 나타났고(보건복지부, 2013), 2023년에는 0~2세 인구의 84%가 어린이집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4). 이러한 결과를 통해 2012년 0~2세 무상보육 정책 시행 이후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아가 현저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23년에 어린이집을 이용한 0~2세 영아(624,463명)의 25%(158,960명)는 가정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었는데(보건복지부, 2024), 이를 통해 가정어린이집이 영아 보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어린이집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곳으로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다(보건복지부, 2023, p. 16). 우리나라의 어린이집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직장, 가정, 협동 어린이집으로 유형이 구분되는데,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어린이집(28,954개소) 7개 유형 중 가정어린이집은 37%(10,692개소)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4).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는 영아와 함께 이동하기에 편리한 곳을 선호하므로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하고, 자녀를 돌봐줄 원장과 교사의 인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유해미, 2017). 가정어린이집은 가정이나 가정에 준하는 곳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지리적 접근성이 좋아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은 영아의 등

· 하원 시 부모와 긴밀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면서 가족 친화적으로 운영되는데 이는 안정적 애착이 중요한 영아를 위해 적합한 환경으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선호하는 유형이다(김혜금, 이미화, 2018). 영아기는 급격한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일반적으로 출생에서 36개월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이 시기에 신체적, 영양적, 정서적, 사회적 환경을 어떠한 성인이 어떻게 제공했는지는 영아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Wittmer & Petersen, 2006/2012). 따라서 영아에게는 부모의 역할과 더불어 영아들이 오랜 시간 머무는 가정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한편, 생애 초기의 영아에게 최초의 환경이 되는 부모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다(김영옥, 2017). 영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요인을 다룬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크게 부모의 심리적 특성과 양육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부모의 자존감, 정서, 가치관 등의 심리적 특성이 영아에게 주는 영향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높은 자기존중감과 자아효능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완전매개 하여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최선녀 2015), 어머니가 애정과 기쁨 등의 긍정적인 정서를 풍부하게 표현하면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미숙, 정희정, 2018). 어머니의 애착수준과 영아의 언어발달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 영아와의 접촉 선호의 애착수준이 높으면 영아의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남효정, 장경은, 2015).

또한 아버지의 원가족 애착경험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어린 시절 자신의 아버지와 안정 애착을 경험한 아버지는 애정표현을 통해 자녀에게 친밀감을 많이 표현하면서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김은희, 정희정, 2019).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와 관련된 가치는 부모됨의 동기로 이어져 영아의 소근육 발달과 문제해결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전홍주 등, 2014). 한편, 부부간의 관계가 만족스러울 때, 배우자가 긍정적인 태도로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가족의 정서적 지지가 잘 이루어질 때, 어머니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어 긍정적인 양육을 할 수 있는데(김교령 등, 2021), 이처럼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부부관계와 양육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영아기의 전반적인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한유미 등, 2012).

다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나타나는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양육참여 등 부모의 양육특성 요인이 영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부모역할에 자신감이 있으며 영아의 요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양육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이는 영아의 사회·정서, 인지, 언어 발달 등 전반적인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수경 등, 2018; 김영실, 정영실, 2014; 박미숙, 정희정, 2018; 한지혜, 정희정, 2019). 또한 어머니가 자녀를 온정적으로 민감하게 돌보고 격려하면서 한계를 설정하는 상호작용방식과 적절한 교육적 자극을 주는 가정환경의 구성도 영아의 기본생활습관, 자기 조절력, 공감 능력의 발달을 돕는다고 보고되었다(박성연 등, 2005; 정미라 등, 2011; 한명숙, 2020; Birmingham et al., 2017; Wagers & Kiel, 2019). 한편 공동양육자로서 양육에 민감하게 참여하고 신체적, 물체적 자극 등으로 영아를 지지하면서 상호작용을 잘 하는 아버지의 양육특성은 영아의 안정애착 형성과 사회정서발달, 인지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정 등, 2018; 신애선 등, 2015; Brown et al., 2012; Olsavsky et al., 2020; Sethna et al., 2017).

이처럼 영아의 발달과 성장에 중요한 부모의 영향이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적어졌다고 해서 감소했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짧은 시간 동안 자녀의 긍정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영아에게 집중해야 하므로 현대사회의 부모에게는 부모로서의 역량이 더욱 요구된다(장혜진 등, 2013).

그러나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서 자기효능감이 낮아지고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Amin et al., 2018). 또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양육지식 부족과 구체적 양육 기술의 미숙함은 영아의 요구에 대한 부적절한 반응으로 이어져 영아의 부정적 행동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권경숙, 2008). 영아기는 주변 환경에 대한 호기심으로 다양한 감각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아 형성을 시작하면서 자신만의 주장이 강해지는 시기로 부모와 갈등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초보 부모는 영아기 발달 특성에 따른 적합한 양육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경험하다가 어린이집에 영아를 보내게 되면서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소하기도 한다(강경미, 이승연, 2016).

이처럼 현대의 부모 대다수는 핵가족이 보편화되면서 자신의 부모로부터 부모 역할을 습득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세대이고,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를 살면서 양육을 위한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지만 실제로 당면하게 되는 자신의 양육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정작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다(김길숙 등, 2016; 윤미경, 배지희, 2021). 이에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의 발달과 성장, 바람직한 부모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부모교육을 통해 좋은 부모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김길숙 등, 2016; 김옥경, 최인화, 2013; 윤미경 등, 2019; 이연우, 성영화, 2017).

부모교육은 부모의 양육 역량 강화를 통해 자녀의 성장과 발달의 최적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Beecher & Van, 2020), 부모에게 양육과 관련한 정보, 지식, 전략과 기술을 가르치는 활동을 의미한다(김희진, 2014).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도 양육과 관련한 실제적인 고민을 나누면서 구체적인 양육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부모교육을 희망하고, 자녀가 다니는 기관에서 그러한 부모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정보미, 김낙홍, 2016). 자녀가 다니는 기관은 부모가 접근하기가 쉽다. 그리고 영아의 발달과 성장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 원

장은 재원하고 있는 영아에 대한 공통된 관심사를 부모와 나누면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영유아교육기관의 원장은 부모의 역량 강화를 돕는 부모교육에 있어 책임자라고 할 수 있다(도현심, 2014).

이에 부모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영유아교육기관은 부모교육의 거점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으며 영유아의 발달과 교육에 전문성을 지닌 원장은 부모교육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권미경, 2017).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의 개인적인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고 부모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영유아교육기관의 원장이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의 부모교육으로 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로 영아를 보육하는 기관인 가정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의 부모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모가 부모의 역량을 긍정적으로 발휘하고 부모로서의 효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모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김옥경, 최인화, 2013).

가정어린이집의 부모교육 운영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 그리고 부모교육 운영 실태를 조사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가정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알아본 연구에서는 가정어린이집의 부모와 교사, 원장은 영아의 긍정적 성장과 가정과의 교육 연계를 위해 부모교육이 꼭 필요하고 가정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모교육이 영아의 발달과 양육에 대한 정보 제공에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다(배정일, 2017; 이상희, 2020; 최희정, 2009). 그리고 부모와 교사는 현재 재원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에서 원장이나 전문가가 강의 또는 개별 면담을 통해 영아의 발달 특성, 영아의 문제행동에 대처하는 방법, 생활습관 지도, 훈육하는 방법, 긍정적인 대화 방법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부모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김옥경, 최인화, 2013; 남지영, 정혜원, 2016; 박소현, 2016; 박정순, 2016; 이상희, 2020), 이와 같은 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남지영, 정혜원, 2016; 박소현, 2016).

다음으로, 가정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의 실태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가정어린이집은 교사와 원장의 회의를 통해 부모교육의 내용을 결정하고 주로 가정통신문, 개별 면담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김옥경, 최인화 2013; 남지영, 정혜원, 2016; 이상희, 2020). 또한 소규모로 운영이 되는 가정어린이집에서는 물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강연회 형식 등의 부모교육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유해미 등, 2016).

가정어린이집 부모교육 운영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미비하다. 보고된 연구를 중심으로 가정어린이집 부모교육 운영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규모로 운영이 되는 가정어린이집은 원장의 교사 겸직 제도, 조리나 운전 등의 기타 인력을 따로 두기에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구조로 원장이 원장 고유 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를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송정순, 2019). 이처럼 어려운 업무 상황에서도 가정어린이집 원장은 가정어린이집의 특성을 반영하여 영아의 등·하원 시 매일 대면하는 부모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개별 면담을 하거나 어린이집이 아닌 장소를 이용하여 부모교육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부모교육을 잘 수행할 수 있으려면 원장 고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고, 가정어린이집 특성에 적합한 내용과 방법으로 원장의 부모교육 전문성 증진을 돕는 실질적인 재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다(윤미경, 배지희, 2021).

이와 같이 가정어린이집 특성에 적합한 내용과 방법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재교육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원장들에게 가정어린이집의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성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같은 고민을 하는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 서로의 부모교육 관련 경험을 나누고, 각자가 가진 부모교육 전문성도 공유하면서 함께 연구하는 과정은 가정어린이집에서 실질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내용과 방법으로 원장의 부모교육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영아의 행복한 성장을 돕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전문적학습공동체(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는 교육과 관련한 관계자들이 자신이 가진 전문지식과 실천 경험 그리고 교육의 과정에서 당면하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공유하며 반성적 성찰을 통해 전문성을 개발하면서 학습자들의 학습을 증진 시키고자 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서경혜, 2009). 전문적학습공동체는 국내·외에서 교육의 개혁과 혁신을 바탕으로 학교와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는 배경 속에서 나타났으며,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학생의 학습 증진을 위해 구성되는 교사의 학습 모임인 교사학습공동체, 배움공동체, 탐구공동체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이수민, 김경식, 2020).<sup>1)</sup>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과 관련하여 학습공동체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과반수 이상이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안지혜, 안소영, 2021). 또한, 유아교육기관 교사학습공동체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학습공동체관련 연구 내용의 동향은 학습공동체 경험 탐색이 연구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이은정, 2020).

이와 같이 주로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학습공동체 관련 선행 연구의 내용은 학습공동체 참여 경험과 경험에 따른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먼저, 학습공동체에 참여한 경험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교수 방법을 모색하고자 학습공동체를 시작한다. 그러나 자율과 타율 사이에서 바쁜 일과 중 공동체 모임에 참여해야 하는 것에 대한 갈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가운, 최연철, 2020), 또한 교사들은 학습공동체 운영을 위한 교육청의 제도적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공동체 참여를 위해 기관을 이탈하는 것에 대한 관리자의 따가운 시선으로 불편함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손은

---

1) 전문적학습공동체 관련 연구에서는 학습공동체, 전문적학습공동체, 교사학습공동체, 탐구공동체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서론에서는 학습공동체 관련 연구 분석 시 각 연구의 원문에서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실, 오채선, 2022).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학습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질 높은 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교사로서의 삶을 스스로 점검하면서 성찰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한다고 보고되었다(김가운, 최연철, 2020; 김호, 2020; 손은실, 오채선, 2022; 이춘자, 2020). 또한 서로가 지닌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자유롭게 논의하는 과정 안에서 집단 지성을 발휘하고 실천적 지식을 형성하여 현장에 돌아가 교육과정과 연결하며 교육전문가의 역할을 실행하면서 전문가로서의 성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가운, 최연철, 2020; 김호, 2020; 박은주, 박선희, 2020; 손은실, 오채선, 2022, 이원미, 권연희, 2022; 이춘자, 2020; 최고은 등, 2021).

다음으로, 학습공동체 참여 후의 변화 양상을 다룬 연구에서 정진희와 이대균(2022)은 외부전문가와 영아의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학습공동체에 참여한 교사는 동료 교사와 함께 문제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과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영아의 문제행동을 형식적으로 관찰하던 것에서 벗어나 영아의 행동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서 폭넓게 영아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조인영과 이연우(2021)의 연구에서는 장애 유아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장애 유아 놀이 지원을 위한 학습공동체에 참여하면서 장애 유아 놀이에 통제적으로 개입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장애 유아의 놀이 맥락을 따라가며 장애 유아의 놀이 능력을 존중하면서 지지하는 태도를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혜옥과 이윤주(2021)의 연구에 따르면 원내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는 수준이 높은 교사는 교수몰입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정민 등(2021)은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교사의 교수효능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안지혜와 안소영(2021)은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의 학습공동체 연구동향 분석에서 원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5.3%라고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공동체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원장을 대상으로 포함한 연구는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유아교육기관 원장의 전문적학습공동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원장이 교사

의 학습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와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경험과 변화 양상을 살펴본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원장의 영향에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경희(2022)는 원장의 전문성 수준이 높을 때 교육기관의 창의적 역량도 높아지고 이는 효과적으로 학습공동체 구성이 이루어지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원장의 변혁적 리더십은 교사의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수준을 높이고 교사학습공동체의 지속적 학습, 탐구 문화, 팀 학습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가신현, 운영순, 2020; 손주리, 2022), 교사가 원장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할수록 교사의 학습공동체에 대해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주재연, 2022).

다음으로, 원장이 구성원으로서 전문적학습공동체에 참여한 경험과 변화 양상을 탐색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장은 학습공동체 운영과정에서 반성적 성찰을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신념을 재정립하게 되었으며, 교사를 지원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권정아, 2022; 김미란, 2021).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원장은 구성원과 동반성장을 할 수 있었고 전문성과 리더십이 증진되었다고 하였다(서은총, 2022; 송진영, 2023). 또한 원장들은 학습공동체를 통해 기관 운영에 실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유아교육 전문가로서의 자신감과 전문적 역량이 강화되었다고 결과를 보고하였다(지옥정, 김경숙, 2021).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우리나라 유아교육 현장에서 시도가 부족한 원장의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전문적학습공동체에 참여한 원장과 교사들은 학습공동체 모임을 통해 반성적 성찰의 기회를 갖게 되었고 서로가 가진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고 실행하면서 유아교육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신장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원장들은 각기 다른 경력과 경험을 지닌 구성원이지만 같은 고민으로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가진 사례와 전문성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하면서 서로의 문제

를 해결해내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교육을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뜻을 가진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전문적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본인이 가진 부모교육 전문지식과 실천 경험 그리고 어려움과 문제들을 공유하면서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께 협력한다면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원장의 부모교육 전문성이 증진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원장의 부모교육 전문성 증진은 학습자인 부모들의 부모 역량 증진 지원에도 도움이 되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행해야 하는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를 구성하고 운영을 해나가는 과정을 탐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에 적합한 부모교육이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발전하고 실행되는지에 대한 변화를 발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영유아교육기관 원장들의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과 관련된 이해를 돕고, 부모교육을 위해 서로의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고민하고 실행하는 원장들의 구체적인 사례와 그 변화를 제시하면서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원장이 중심이 되어 부모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과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한 부모교육 실행의 변화는 어떠한가?

### 3. 용어의 정의

#### 1) 부모교육

부모교육은 영유아교육기관과 부모가 직접적 간접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최적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김희진, 2014). 부모교육과 관련한 용어는 부모에게 지식과 정보를 가르치는 부모교육, 구체적인 절차를 따르며 일정 기간 배우고 실행하는 부모훈련, 부모가 기관의 프로그램이나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부모참여, 지역 사회나 교육기관, 복지시설 등의 사회사업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부모지지도 등으로 조금씩 다른 개념을 내포하며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김영옥, 2017). 본 연구에서의 부모교육은 부모가 부모 역할을 긍정적으로 수행하여 영유아 삶에 바람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 2) 전문적학습공동체

전문적학습공동체는 학교의 교장과 교사들이 공동체 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전문성을 향상해 나가고자 지속적인 배움을 위해 노력하고 서로가 배운 것을 공유하고 실천하는 공동체이다(Hord, 1997).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의 학습은 학생의 학습 증진을 위한 구성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교사와 원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영유아교육기관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의 학습은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전문적인 학습을 핵심에 두고 전

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공동체라면 교사 이외의 다른 구성원도 다양하게 함께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서경혜, 2019). 본 연구에서의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역량 증진을 위해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부모교육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부모교육 관련 전문적 지식을 공유하고, 서로 배우고 실천하는 모임을 의미한다.

#### 4. 연구자

본 연구자는 경기도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에 21년째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연구자는 부모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6~8회기로 진행되는 부모교육 모임을 매년 1~2회씩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연구자가 부모교육에 관심을 두게 된 이유는 첫 아이를 양육하면서 경험하게 된 어려움 때문이었다. 연구자 자신이 갖고 있던 가치관을 바탕으로 완벽한 부모 역할을 하고자 노력했지만, 어느덧 성장한 아이가 엄마인 연구자의 존재를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연구자의 양육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알아차리게 되었고 이후 혼란스러움과 죄책감이 밀려왔다. 잘못된 양육 방법의 큰 요인이 아이 중심이 아닌 부모의 가치관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지만, 생활 속에서 양육 방법을 한순간에 변화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때부터 시작한 반복된 고민은 부모교육에 관한 배움으로 이어졌고 그 배움을 차근차근 생활에 적용하면서 생긴 연구자의 작은 변화가 연구자의 아이 얼굴에 행복한 웃음을 찾아주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소중한 체험을 바탕으로 아이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부모교육에 관한 배움과 실천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스스로가 경험한 것을 통해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인생 전반의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며 행복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모교육자의 역할을 하고자 부모교육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 부모교육 모임을 시작할 때는 직무교육을 통해 알게 된 『당신도 유능한 부모가 될 수 있다』를 교재로 사용하였다. 이 교재의 내용은 미국의 Dinkmeyer 와 Mckay(1982/2006)가 체계화한 부모훈련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STEP(Systematic Training Effective Parenting-효율적 부모 역할 수행을 위한 체계적 훈련)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이 교재를 부모들과 같이 읽으며 경험을 나누고 실천하는 방식으로 시작한 ‘STEP 부모 모임’은 해를 거듭하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와 사례에 맞게 수정·보완되며 내용과 방법이 변화하였다. 2015년부터는 ‘가족행복 부모교육’으로 모임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연구자 어린이집만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는 부모 모임을 오랜 세월 지속하면서 알게 된 경험적 지식과 꾸준한 부모교육 공부를 통해 알게 된 이론적 지식 그리고 연구자가 자녀와 생활하면서 얻게 된 실천적 지식을 바탕으로 어린이집 부모들에게 좀 더 적합한 내용으로 효과적인 양육지원을 하고자 했던 고민의 결과이다.

부모교육을 진행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때는 연구자 자신이 경험했던 변화를 부모교육에 참여한 부모도 경험하면서 부모 모임에 참여한 것이 좋은 선택이었다고 표현할 때이다. 부모 모임에 참여한 부모들은 부모 모임을 통해 자신과 자녀를 이해하게 되면서 육아에 관한 편안함과 자신감이 생겼고 다른 부모들과 같은 고민으로 육아 경험을 서로 나누면서 위로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공통으로 하면서 부모 모임에 참여한 본인의 선택을 만족한다고 했다. 또한 부모 모임에 참여한 부모 중 일부는 해마다 새로운 구성원으로 모임이 시작될 때마다 다시 참여하였고 그들 중 일부는 자녀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참여하면서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시기에 자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원장에게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행운이었고 자녀가 자라면서 다른 부모교육에도 관심을 두고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경험하면서 연구자는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부모교육이 중요하다는 것과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원장이 진행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들에게 더욱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연구자가 석사 논문으로 STEP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와 관련한 주제의 연구를 하면서 파악하게 된 사실은 영유아교육기관의 현장에서 원장이 직접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낀 연구자는 이후 영유아교육기관의 원장이 부모교육을 직접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고 깊어지는 고민을 해결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연구자에게 박사과정은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와 프로그램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이는 영유아교육기관 부모교육 실행에 대한 인식의 전환점을 마련해주었다. 영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모교육은 대부분 강사를 초청한 일회성 강연회, 가정통신문, 개별 상담 등의 방법으로 실행되고 있고 원장이 직접 부모교육을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연구자는 이러한 원인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원장이 직접 진행하기에 적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박사과정을 통해 영유아기 부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정부 부처나 민간단체 등을 통해 충분히 개발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해당 부처의 홈페이지를 통해 부모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관련 영상, 강의안 등을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에 연구자는 영유아교육기관의 원장들이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원장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부 부처 등에서 마련된 자료를 활용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각 기관에 맞게 보완해 나간다면 원장이 부모교육을 직접 진행하는 것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한 생각은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부모교육에 관심을 가진 원장들이 모여 각 기관에서의 부모교육 경험을 나누고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새로운 내용과 방법을 연구하면서 실천해가는 어린이집 현장의 모습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연구자는 2019년 어린이집 원장의 부모교육에 관한 생각을 들어보고자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원장을 면담하기로 계획하면서 먼저 가정어린이집 원장과 면담을 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가정어린이집 원장 면담을 통해 가정어린이집의 특성을 좀 더 세부적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부모교육에 관한 어려움과 요구를 알게 되면서 부모교육을 직접 실천해야 하는 원장의 중요한 역할을 체감하게 되었다. 주로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어린이집에는 첫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 양육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가 대부분이고 영아의 등·하원 때마다 부모들을 대면하게 되는 환경에서 부모교육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는 특수성이 있어 원장들은 부모교육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영아와 영아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행해야 하는 가정어린이집에서의 부모교육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에 연구자는 부모교육에 관심을 둔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는 과정과 그 속에서 부모교육이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발전하고 실행되는지에 관심을 두고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 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부모교육의 개념과 중요성, 부모교육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가정어린이집의 특성과 부모교육 필요성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의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과 운영 실체를 살펴보았다. 또한 전문적학습공동체의 개념과 특성을 알아보고 영유아교육에서의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과정과 실행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 1. 부모교육

#### 1) 부모교육의 개념

부모교육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 김길숙 등(2016)은 부모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와 역량을 긍정적으로 형성하도록 돕고,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부모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하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부모교육으로 보았다. 또한 김영옥(2017)은 부모교육을 부모가 영유아교육 및 발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발달과 교육에 관련된 지식 및 정보를 전달하거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였고, 김영환 등(2017)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험과 활동들을 부모교육이라고 하였다.

부모교육 외에도 영유아교육기관에서는 부모훈련(parent training), 부모개입(parent intervention), 부모참여(parent involvement), 부모협력(parent cooperation) 등과 같이 부모와 관련된 활동을 의미하는 용어를 조금씩 강조

점을 다르게 두고 사용하고 있다. 그중 부모훈련은 자녀 양육을 위한 기술이나 전략을 가르치는 활동에 주목하는 것으로 그 활동에 구체적인 절차가 있을 때 사용하고, 부모개입은 자녀 양육에 관한 지식이나 능력이 결핍되어 있는 부모를 돕기 위해 개입을 할 때 사용한다(김희진, 2014). 이처럼 부모훈련과 부모개입은 영유아교육기관에서 부모를 배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고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고자 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반면 부모참여와 부모협력은 영유아교육기관이 부모를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하고 이해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양방향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활동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배지희(2002)는 부모참여를 영유아교육기관에서 부모가 자원봉사자, 의사결정자로서 참여하고 유아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모-교사 면담, 가정 내에서의 교육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부모가 부모의 상황에 맞게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부모참여라고 하였다. 김희진(2014)은 부모협력은 기관과 부모가 서로 지원하고 협력하는 관계 맺음에 초점을 두면서 활동의 유형보다는 활동이 진행되는 방법을 강조하는 용어라고 하였다.

이처럼 영유아교육기관에서 부모교육과 더불어 부모와 관련된 활동을 지칭하는 용어는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는 활동인지, 부모와 협력하며 양방향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활동인지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부모와 관련된 활동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영유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과 발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부모교육의 목적과 같다.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영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모교육이란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부모가 부모역할을 긍정적으로 수행하도록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보, 기술, 태도에 대한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고, 부모와 양방향으로 협력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 2) 부모교육의 중요성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부모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부모교육은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수행하면서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목적이 있다.

과거 사회의 대가족 구조에서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윗세대에게 배울 수 있었고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도 가족과 분담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핵가족이 보편화되고 가족의 유형도 다양해진 현대 사회에서 부모들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전수 받기가 어렵고 자녀 양육의 부담도 부모가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대 사회에서 자녀 양육을 위한 정보도 어디서든 다양하게 접할 수 있지만 상충되는 정보로 인해 부모들은 정작 자신의 육아 상황에 적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도현심, 2014). 그러므로 가족 구조와 가치관 등의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에서는 부모의 양육지원을 위한 부모교육이 더욱 필요하고 부모교육의 내용과 방법도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른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부모의 측면, 영아의 측면, 사회적 측면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교육은 성인교육의 차원에서 볼 때 부모가 한 인간으로서도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부모교육은 부모가 미디어 매체를 통해 가지게 된 부모 역할에 대한 허상과 비현실적 부모상의 올바른 확립을 도와 미래사회를 살아갈 자녀를 위해 긍정적인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도현심, 2014). 이처럼 부모가 한 인간으로서도 성장하고 자녀를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모교육은 부모의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과거의 부모교육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역할에 한정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일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인 역할의 한 측면으로 부모 역할을 인식함에 따라 부모가 부모교육을 통해 한 인간으로서 성장할 기회도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김희진, 201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김혜경, 2014)에 의하면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자녀를 이해하는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부모 자신의 이해를 통해 부모-자녀 관계를 이해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졌다고 하였다. 이처럼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 자신의 이해로 초점이 변화하는 이유는 자녀의 이해나 양육기술을 알려주는 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부모역할을 인지적으로 습득했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내면적 갈등, 개인적 상황의 맥락에서 습득한 내용을 실천하고 내면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다시 기존의 양육태도를 돌아가게 되는 현상으로 연결되기 쉽기 때문이다(김명하, 2013). 이에 따른 부모교육 프로그램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의 자기이해 중심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장성단, 2016)에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강의, 토론, 사례나누기, 연습하기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모들은 자신의 삶의 문제와 갈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콤플렉스를 의식화 하였고, 원 가족과의 경험에서 누적된 내면의 상처를 발견하면서 자신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내면의 상처로 인한 자신의 무의식적 투사가 자녀의 문제행동과 연관성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어머니의 행복감에 초점을 두고 개발된 프로그램(나복영, 2022; 원강희, 2019) 중 현실치료 부모교육 프로그램 연구(나복영, 2022)는 참여자가 현

재에 초점을 맞춰 효과적인 삶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접근법이다. 현실치료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인간의 기본욕구 이해, 좋은 세계와 지각된 세계 탐색, 인간의 행동 선택과 전 행동 이해 등이며 경험 나누기, 감사 노트 작성, 관련된 활동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현실치료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영·유아기 어머니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프로그램을 통해 어머니들은 행복감이 향상되고 양육스트레스는 감소되었으며 내·외적통제성이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유아의 행복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연구(원강희, 2019)에서는 긍정적 정서, 성격 강점, 삶의 의미, 자아존중감 등의 행복 증진 요소 내용을 기반으로 강의, 역할극, 사례 발표 등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삶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계기를 갖게 되었고 부모로서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김경애(2023)는 명상과 함께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적용하였다. 명상과 함께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명상과 부모역할교육을 병합하여 회기마다 적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명상의 내용은 걸음에 주의 집중하며 마음의 변화를 관찰하기(걷기 명상), 자녀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와 남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기(감사 명상, 자비 명상), 미소의 효과를 알고 휴식의 중요성 알기(미소 명상, 휴식 명상)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모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지고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생겼으며 이는 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는 낮아지고 양육효능감은 향상되는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부모들이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을 취할 수 있다는 점, 자신의 정서적 안정을 기반으로 부모로서의 긍정적인 역할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부모로서의 성장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부모에게 부모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영아기에 적합한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가 긍정적인 양육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영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돕는 것으로 이는 영아의 측면에서 부모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아기는 생애 전반에서 가장 급격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때 주변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한 발달적 성과는 이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Wittmer & Petersen, 2006/2012). 그러므로 영아기 자녀를 돌보는 부모는 영아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영아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존재이다. 이처럼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부모의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머니가 영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보여주는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태도는 영아의 수면 습관과 식습관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제한적이고 일관적인 태도는 식습관과 배변 그리고 씻기 습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태도는 영아의 놀이 사회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현정, 김상림, 2018). 또한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양육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영아의 대·소근육 운동과 개인-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하고 있으면 영아의 의사소통, 문제해결, 소근육 운동, 개별-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리고 어머니가 온정적으로 영아를 양육하면, 영아의 대·소근육 운동, 의사소통, 문제해결, 개인-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민현숙, 문영경, 2013).

이처럼 영아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머니의 양육방식은 부부관계의 질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부관계의 질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통해 영아의 발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영아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강수경 등, 2018). 이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방식도 영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데

김민정 등(2018)은 아버지가 영아와의 상호작용에서 보여주는 반응성이 영아의 소근육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아버지의 정서성과 지지하기는 영아의 인지발달에, 아버지의 지지하기는 영아의 사회성과 자조 능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영아의 발달에 중요한 요인인 부모의 양육방식은 영아의 타고난 기질에도 영향을 받는다. 관련 연구에서는 영아의 기질이 정서적으로 긍정적이고 수줍음이 적으며 활동적일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지고 애착은 높아지는데 이는 영아의 발달 수준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정미라 등, 2014). 또한 영아의 사회성 기질은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을 매개하여 영아의 놀이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은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영향을 주면서 영아의 놀이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곽민옥, 이경남, 2017). 이처럼 영아의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완전 매개하여 영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영아의 기질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양육행동을 취하는 것이 영아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최선녀, 2015).

한편, 영아의 공동주의 시도와 반응 등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과 영아의 기질, 어머니-자녀 간 애착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김선영, 김희진, 2014)에서는 어머니와의 애착이 안정적인 경우 부정적인 기질을 가진 영아라도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부모가 영아의 타고난 기질을 잘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양육행동을 통해 영아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영아의 발달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은미(2018)는 문헌 연구를 통해 자녀가 부모와의 애착수준이 높으면 자녀의 인지발달, 정서발달, 사회성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또한 문영경(2020)은 영아기의 애착안정성과 유아기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만 1세 영아기의 애착안정성은 이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면서 만 6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안정성이 유아기의 사회적 유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애착안정성에 의해 영향을 받은 양육환경과 양육행동이 가져온 결과라고 하였다. 애착과 관련된 이러한 연구들은 영아기에 안정적인 애착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안정애착 형성을 위해서 부모가 영아의 기질을 파악하고 기질에 적합한 양육방식을 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아기에 애착유형이 형성되는 과정을 이론적으로 탐색한 연구(김수정, 2006)에서는 부모가 지닌 애착유형이 자녀를 돌보는 행동에 영향을 주면서 자녀도 부모와 같은 애착유형으로 발달하는 경향이 높다고 밝혔다. 그리고 영아의 욕구에 적절한 시기와 방식으로 반응한 어머니의 자녀는 신뢰감을 바탕으로 안정애착을 형성하며, 어머니와의 부드러운 신체접촉 경험은 안정애착의 발달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어머니의 반영기능과 영아의 애착을 살펴본 연구(김미정, 방희정, 2017)에서는 자신과 타인의 행동 의미를 이해하는 심리과정인 어머니의 반영기능이 자신의 내적 상태 뿐 아니라 자녀의 감정과 행동을 잘 이해할 수 있으므로 영아가 어머니와 안정 애착을 형성하는데 유의미한 변인이 된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부모의 양육방식은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영아의 타고난 기질은 부모의 양육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기질을 가진 영아라도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면 긍정적인 발달을 할 수 있으므로 부모의 양육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영아의 기질을 부모가 잘 파악해서 안정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영아의 기질에 적합한 양육방식을 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가 영아의 기질을 파악하고 영아의 기질에 적합한 양육방식으로 부모의 역할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모교육이 필요하고 이는 영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것으로 영아의 측면에서 보는 부모교육의 중요성이다.

셋째, 사회적 측면에서 부모교육은 건강한 사회구성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은 한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전인적인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차적 환경인 가족,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는 사회투자국가론의 핵심이기도 하다(성미애, 송혜림, 2008). 국가는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가 긍정적인 태도로 어린 영·유아를 양육하도록 지원하면 건강한 사회 구성원 양성과 질 높은 인적 자원을 확보하여 사회 발전의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김희진, 2014).

정채옥(2017)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부모교육의 방향 연구에서 저출산의 문제는 단순히 양육비와 출산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젊은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랑을 느끼며,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문화의 가치를 가정을 통해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러한 가치 형성을 바탕으로 출산도 사람을 사랑하는 한 부분으로서 행복의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부모의 역할은 단지 지식이나 기술로 충분하지 않고 삶의 전 과정에서 전인격적인 모델이 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부모교육의 방향을 전인격적 교육으로 정하고 모든 연령을 잠재적 부모교육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윤진(2018)은 영유아기 부모교육 실태 및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정책제언에서 아동학대 발생이 가정 안에서 친부모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교육을 강화하거나 의무화하자는 요구가 많다고 밝히고 있다.

영유아기 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한 전달체계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이미화, 2016)에서는 국가 및 지역사회가 부모교육 제도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5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자녀의 생애 주기와 영유아의 특성과 흥미에 적합한 부모교육과 부모역할을 지원한다. 둘째,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정책 그리고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아동관련 정책과 지침을 부모에게 제공한다. 셋째, 부모안내, 부모참여 및 지원 등의 제도화된 정책의 실행 및 재정을 지원한다. 넷째, 중앙정부 나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사회 관련기관은 제도화된 정책 테두리에서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가 국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한다. 다섯째, 중앙 및 지방정부는 부모교육 제도화를 통해 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저출산, 아동학대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모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부모교육의 제도화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모교육은 부모의 측면에서 부모가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긍정적인 부모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영아의 측면에서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을 지원하여 영아가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 부모교육은 건강한 사회구성원을 확보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부모교육의 유형

부모교육은 부모가 부모로서 역할을 긍정적으로 수행하여 영유아의 삶에 바람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진

행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활동들을 살펴보고 그 유형을 구분하고자 한다.

이석순(2006)은 유아교육기관의 부모교육 유형을 살펴본 연구에서 부모교육의 유형을 11가지로 구분하였다. 그 유형은 부모 오리엔테이션, 부모 면담, 부모교육 통신문, 행사 참여, 강연회, 부모회의, 부모 참여 수업, 부모용 소책자, 부모 자원 봉사 프로그램, 워크숍, 전문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다. 김수희와 최윤정(2014)도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모교육 유형을 강연회, 워크숍, 자원봉사, 수업 참관, 부모상담, 도서관 운영, 행사 참여, 가정통신문으로 정리하였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부모교육이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기반 부모교육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권기남, 2012; 방효국 등, 2023).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상황이 길어지면서 대면 부모교육이 어려워지자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인터넷 기반 부모교육은 더욱 다양하게 시도되었다(김진아 등, 2021; 이해선, 배지희, 2021).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부모교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순과 김승희(2021)는 SNS를 활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효과를 검증한 연구에서 네이버 밴드에 SNS 활용방, 가정연계 활동방, 자녀 양육방, 자기 성찰방의 태그를 만들어 실시간 소통하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매 차시 주제 관련 공지사항, 동영상, 라이브강의, 토의, 토론, 투표, 글쓰기, 질의응답 등의 다양한 교수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들은 SNS 활용 방법을 습득하여 다른 부모와 소통하면서 SNS 활용능력과 양육효능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해선과 배지희(2021)는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생일잔치, 부모참여수업, 김장하기 등의 활동을 실행하였으며 활동을 하면

서 퀴즈를 내고 대화를 주고받으며 양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경험한 부모들은 부모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알게 되었고, 비대면 참여의 의미와 장점을 알게 되면서 새로운 시도와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고 보고되었다.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주로 사용한 오세현 등(2023)은 비대면 부모자녀관계 게임놀이치료 프로그램이 부모자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대면 부모자녀관계 게임놀이치료 프로그램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주로 사용하였고 전화 상담, 문자, SNS를 부수적으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부모 양육기술과 게임놀이를 부모에게 교육한 이후, 부모는 자녀와 함께 가정에서 게임놀이를 하면서 양육기술을 적용한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그 영상을 다음 차시에서 공유하여 참여자들과 경험을 나누고 연구자는 적절한 양육기술 적용 방식을 확인하고 격려하는 방식으로 부모교육이 진행되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부모교육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신혜영과 김명순(2021)은 만 1세 영아의 맞벌이 부모 동반참여 블렌디드러닝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 블렌디드러닝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들이 영아에게 내용을 설명하는 것과, 영아의 요구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 사용이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영아에게 보이는 반응성인 영아 중심성, 참여성, 민감성, 정서적 수용성, 상호교환, 공동주의의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블렌디드러닝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격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 오프라인에서는 소그룹토의, 강의, 놀이감 사용 워크숍 등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온라인 교육은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인 클래스팅을 사용하여 동영상 사례와 주제 강의 그리고 놀이방법 영상으로 교육을 하고, 부모는 댓글을 통해 출석체크를 하고 생활적용과제 수행 후 온라인 공간에 영상, 사진, 글 등을 업로드하여 다른 부모나 강사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서주현과 유영만(2021)도 부모들끼리 실천공동체를 구성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부모교육에 관련한 학습을 하였다. 그리고 실천공동체에서 발생하는 학습과정 사례 연구를 분석하면서 지식의 재구성, 재성찰, 정서적 위로, 동기부여로 부모교육 학습과정의 의미를 밝혔다. 그 결과 실천공동체의 구성요소인 공동자산(공통의 양육조건)과 호혜적 관여(유대감)는 양육문제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학습의 촉진요인이면서도 지나친 유대감으로 서로 비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의 저해요인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유치원 학부모 모임의 구성원들이 부모교육을 학습하고자 실천공동체를 구성하여 온라인으로 부모교육을 학습하고 자기 성찰일지를 작성한 후 오프라인에서 만나 학습을 하는 방법으로 부모교육이 진행되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부모교육도 다양한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선우현 등(2023)은 미국이나 영어권의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와 대화 기술을 연습할 수 있도록 제작된 AI 기반 부모-아동 상호작용치료(PCIT)시스템에 한국어 PCIT 음성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한국어로도 실현 가능한지를 검증한 연구에서 AI 기반 한국어 대화 자동 피드백 시스템도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부모교육의 변화도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부모교육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의 기준은 부모교육 안에서 부모의 역할 그리고 부모교육 방법에서 오프라인, 오프라인과 온라인 병행, 온라인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른 부모교육 유형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부모교육의 유형 구분\*

부모교육 방법 \ 부모의 역할	수동적 학습자	수동적 학습자 적극적 참여자	적극적 참여자
오프라인	가정통신문 소책자 강연회 오리엔테이션 참관수업	참여수업 부모상담 부모간담회 부모교육 프로그램 소집단 부모 워크샵	행사도움 자원봉사 재능기부 자원봉사 부모자조모임 학부모운영위원회
오프라인 온라인 병행		부모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강의, 상담, 영상, 댓글 등) (오프라인: 강의, 토의, 워크숍 등)	부모학습공동체 (영상학습+오프라인 토론)
온라인	가정통신문 부모교육영상 정보공유	실시간 양방향 참여수업 부모상담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간 교육, 동영상 강의, 실습영상, 피드백)	학부모운영위원회 (실시간 영상회의)
온라인 교육 디지털 매체	전자알림장, SNS, 유튜브, 클래스팅, 줌, 이-러닝, 카페 등		

\* 이 표는 문헌분석을 통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하였음

표 1에서 제시된 부모의 역할에서 수동적 학습자 역할은 주로 일방향으로 이루어진 부모교육에서 보이는 부모의 역할이고, 수동적 학습자와 동시에 적극적 참여자 역할은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에서 나타나는 역할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부모교육 강의를 수강하는 등의 수동적인 학습자의 역할과 워크숍이나 실습 등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할이 함께 포함된 부모교육 유형에서의 부모의 역할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적극적 참여자 역할은 부모가 기관과 협력하거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 자녀와 연결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모교육의 유형은 가정통신문, 소책자, 강연회, 참관수업, 참여수업, 부모상담, 부모간담회, 부모교육 프로그램, 워크샵, 자원봉사, 자조 모임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부모교육 유형은 인터넷과 미디어가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온라인에서도 다양하게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의 발달이 부모교육에도 적용되어 새로운 부모교육 유형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 2. 가정어린이집

### 1) 가정어린이집의 특성

가정어린이집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곳으로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다(보건복지부, 2023, p. 16). 가정어린이집은 소규모 기관으로 주로 영아 보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가정어린이집은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 설치되므로 영아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영아기의 발달 특성 상 부모가 직접 등원과 하원을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부모와 긴밀하게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김혜금, 이미화, 2018).

가정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보육교사를 겸직할 수 있다. 따라서 원장의 고유 업무와 담임보육교사 업무 외에도 행정 처리 업무, 급식 식단을 준비하는 조리사 업무, 영아의 등·하원 시 차량 운행을 하는 차량기사 업무 등의 다양한 업무를 원장이 모두 수행해야 하는 운영 특성이 있다(권경숙, 박지영, 2012). 이에 가정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역량이 요구된다.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핵심역량을 탐색한 연구(이정화, 안영혜, 2023a)에서 가정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직무역량, 리더십역량, 대인관계역량, 자기계발역량, 문제해결역량으로 5개의 핵심역량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핵심역량의 중요도와 보유도 인식을 알아

본 연구(이정화, 안영혜, 2023b)에서는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중요도와 보유도가 모두 높다고 인식한 핵심역량은 직무역량과 대인관계역량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교직원과의 긍정적 관계형성을 해야 하는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노력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과잉노력 지양영역은 문제해결역량으로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중요도 인식에 비해 보유도가 높은 영역으로 인식하는 역량이다. 이러한 결과는 소규모로 운영되면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과잉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였다.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경험하는 다면적 겸직 업무 수행의 의미를 탐색한 연구(이지영, 김현주, 2016)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 원장은 교사를 겸직하고 있지만 조리사, 차량기사, 행정사무원 등의 다양한 업무로 인해 교사 업무에 충실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늘어나는 업무시간으로 원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간도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원장은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미 등(2016)은 가정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하는 영아 대상 기관보육 내실화 방안 연구에서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직은 어린이집 운영자로서 고유 업무에 주력할 수 없으며 원장이 담당하는 학급의 보육의 질도 담보하기 어렵고 원장의 장시간 노동을 일상화하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이에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교사를 겸직하지 않고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 기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정책 제언을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가정어린이집은 주로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원장이 보육교사를 비롯한 다양한 업무를 겸직하는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 설치된다는 특성과 영아를 주로 보육하고 있고 영아의 등원과 하원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부모를 대면하면서 영아의

부모와 긴밀하게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정어린이집 특성에 적합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가정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의 필요성

가정어린이집은 주로 영아 보육을 담당하면서 영아의 부모와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가정어린이집에서의 부모교육 필요성을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측면, 그리고 어린이집과 관련된 보육정책의 측면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어린이집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부모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3년 12월 기준 가정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원아의 99.4%는 영아이다(보건복지부, 2024). 따라서 가정어린이집은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로서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구체적인 양육지식의 부족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 등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로감을 경험한다(노은하 등, 2019; 박선미, 2014). 초보 부모들이 영아발달에 관련된 지식과 양육 기술이 부족한 면은 영아의 섭식, 수면과 관련된 규칙적인 생활습관 문제와 분리불안, 배변 훈련 등과 같은 영아기 발달 과업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어렵게 하고 영아가 고집을 부리거나 떼를 쓰는 행동, 기질적인 특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민감한 행동에 대한 한계설정 등에 대처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권경숙, 2008). 이처럼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맞닥뜨리는 육아는 초보 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김영주, 송연숙, 2007).

영아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이러한 어려움을 마주하면서 역량을 갖춘 좋은 부모가 되고자 인터넷, 방송, 양육서 등의 다양한 정보 매체나 전문양육기관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알게 되는 정보의 내용이 서

로 다르거나 실제적인 해결책을 구현해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를 느끼기도 한다(정미라 등, 2013). 이처럼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양육 지식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와 한계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양육 현실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모교육이 자녀의 발달단계 및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내용과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김나영 등, 2019, 박선미, 2014).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희망하는 부모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영아의 월령별 발달단계의 이해, 영아의 기질에 따른 지도, 자녀와의 대화 방법, 발달을 자극할 수 있는 놀이 방법, 안전사고와 응급처치, 나쁜 행동과 습관지도 방법, 어린이집 부적응 행동지도 등이 있다(김민조, 2022; 박선미, 2014; 이명순, 고여훈, 2016; 이미화, 2014; 정숙향, 정희정, 2020). 또한 부모교육 방법으로는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개별적인 상담이나 소규모로 코칭받는 방법 등으로 부모교육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윤미경 등, 2019).

이처럼 부모교육이 필요한 부모들은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면서 부모 역할 수행의 어려움과 자녀의 문제행동 지도 등의 양육과 관련하여 지원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권혜진, 고영미, 2014). 한편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은 부모역할 적응에 있어 선생님과 원장을 최고의 양육지원자로 인식하고 있다(성영화, 이연우, 2016; 엄민정, 김남희 2022). 따라서 가정어린이집은 영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상황을 인식하고, 그들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어린이집과 관련된 보육정책의 측면에서 부모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표준보육과정, 열린 어린이집, 평가제 순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표준보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공통적 기준을 제시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과정으로 지역적인 특성, 기관이나 개인의 수준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운영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보

보건복지부(2020)는 2020년 4월에 고시된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해설서에서 표준보육과정의 성격 중 하나로 “영유아, 교사, 원장, 부모 및 지역 사회가 함께 실현해 가는 것을 추구한다.”(p. 18)고 제시하면서 표준보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때 부모가 영유아의 놀이 가치를 이해하고 놀 권리를 존중하며 가정에서도 영유아의 놀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부모참여, 워크숍, 상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 역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영아의 놀이와 배움을 지원하는 보육과정 운영의 주체인 가정어린이집은 표준보육과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의 협력과 참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열린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지원을 위해 어린이집의 보육 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 등에 부모참여를 확대하여 어린이집과 부모가 신뢰로운 관계를 구축하고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선정된 보육정책 중 하나이다(권미경, 2015). 열린 어린이집을 선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참여성 요건에는 부모 오리엔테이션, 개별상담, 운영위원회 운영, 부모교육, 부모참여프로그램, 부모만족도 조사, 부모 어린이집 참관, 자체 부모 모니터링이 제시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22). 이와 같은 참여성 요건에 부합해야 열린 어린이집으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열린 어린이집 선정을 희망하는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이에 따른 부모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평가제는 어린이집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유지하게 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 행복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실행되는 정책으로 부모가 어린이집에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 기여에 목적을 두고 있다(한국보육진흥원, 2022). 어린이집이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운영되었던 평가인증 제도는 모든 어린이집의 질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9년 6월 12일부터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평가제로 전환되었다. 평가제에서는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건강·안전, 교직원의 4영역으로 구분하여 어린이집을 평가하고 있다. 그중 2영역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의 2-4 지표는 가

정 및 지역 사회와의 연계로 2-4-1항목과 2-4-2항목에서 부모참여와 부모교육, 가정과의 소통과 정기적인 개별면담을 통해 가족을 지원하고 있는지를 평정하고 있다(한국보육진흥원, 2022). 어린이집은 평가제 등급에 따라 교사 처우개선비 등의 지원에 차등을 받게 되므로 평가를 통해 A등급, B등급의 우수등급으로 평정되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어린이집에서의 부모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으므로 가정어린이집에서도 필수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모교육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주로 영아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영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영아를 키우면서 양육에 관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부모들을 지원하고, 영아의 행복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가정과 연계하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보육정책의 일환으로 부모와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면서 가정어린이집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도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가정어린이집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운영 실제

가정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과 운영의 실제를 가정어린이집의 부모교육 인식, 가정어린이집의 부모교육 운영 실태 그리고 부모교육에 관한 요구는 무엇인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에 관한 인식을 부모, 교사, 원장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가정어린이집의 부모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모, 교사, 원장 모두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권이정, 2018; 김옥경, 최인화, 2013; 남지영, 정혜원; 박소현, 2016; 윤은미, 2017; 이상희, 2020; 이혜자, 2016). 한편, 남지영과 정혜원(2016)은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부모보다는 원장에게서 더 높게 나

타났고, 김옥경, 최인화(2013)은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모보다 교사에게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부모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부모들은 자녀의 올바른 양육과 교육에 관련된 전문적인 정보를 얻고(박소현, 2016), 가정과 어린이집과의 교육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김옥경, 최인화, 2013). 교사와 원장 또한 영아 발달과 양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는데(권이정, 2018; 이상희, 2020), 이는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첫 자녀를 기관에 처음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녀 발달에 대한 구체적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부모역할을 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윤미경, 배지희, 2021).

부모교육이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인식은 부모, 교사, 원장 모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김민조, 2022; 남지영, 정혜원, 2016; 문미숙, 2013; 이혜자, 2016). 한편, 부모는 가정어린이집의 부모교육을 위한 연간계획과 교사연수가 필요하며, 부모교육은 자녀가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육아분야 전문가나 원장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옥경, 최인화, 2013). 교사는 가정어린이집에서의 부모교육이 부모의 요구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고 부모교육 계획이나 지원체계가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다(윤은미, 2017). 그리고 원장은 등·하원 시간에 부모와 만나는 가정어린이집의 특성을 바탕으로 영아의 개별적인 특성에 대해 수시로 상담을 할 수 있으므로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교육보다 더 좋은 부모교육이 가정어린이집에서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윤미경, 배지희, 2021).

둘째, 가정어린이집의 부모교육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어린이집에서는 대부분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로 등·하원 시 이루어지는 개별

면담이나 주 1회 발송하는 가정통신문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문미숙, 2013; 박정순, 2016; 이상희, 2020; 이해자, 2016). 이 밖에도 부모교육 방법으로 한 학기에 1회 정도 오리엔테이션이나 강연회, 참여 수업, 개별면담 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조, 2022; 이상희, 2020). 그리고 주로 다루어지는 부모교육의 내용은 영아기 발달특성, 바람직한 부모역할, 놀이 방법, 건강, 영양, 안전 관리,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의 목적으로 나타났다(김옥경, 최인화, 2013; 문미숙, 2013; 윤은미, 2017).

가정어린이집에서 강연회와 유사한 형식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할 때는 가정통신문이나 전화 통화를 이용하여 사전에 공지하면서 참여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참여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이유로 부모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김민조, 2022; 배정일, 2017). 한편, 원장들은 참여도가 부족한 원인을 보완하기 위해 주말을 이용하여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면서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어린이집에서 영아들이 생활하고 있는 평일 오전 시간을 활용해 어린이집이 아닌 특별한 공간을 대여하여 부모교육을 진행하는 노력도 하고 있었다(윤미경, 배지희, 2021). 또한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소규모로 운영되는 특성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 장소의 협소함 등의 이유로 강연회 형식의 부모교육은 연합회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도 하지만 부모의 참여율은 어린이집에서 강연회를 진행할 때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배정일, 2017).

셋째, 가정어린이집의 부모교육에 관한 요구를 부모, 교사, 원장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의 요구를 살펴보면 부모는 영아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개별 면담의 방법으로 부모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호하면서 가정과 어린이집이 긴밀하게 소통하기를 바라고 있다(박정순, 2016; 배정일, 2017). 개별상담 다음으로 강연회를 통한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부모의 의견을 반영해서 내용이 선정되기를 희망하였고 실질적으로

양육에 도움이 되는 강연회를 기대하였다(박소현, 2016; 배정일, 2017). 부모는 강연회 형식의 부모교육이 학기마다 1회씩 1시간 정도의 횟수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장소는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강연자로는 부모교육 전문가, 원장, 교사의 순서로 선호를 나타냈다(김민조, 2022; 문미숙, 2013; 박정순, 2016, 최희정, 2009). 부모가 희망하는 부모교육의 내용으로는 정서발달, 사회성발달 등의 영아기 발달특성과 구체적인 양육기술로 생활습관 길들이기, 잘 들어주고, 질문에 답하는 방법, 훈육하는 방법, 성교육, 놀이하기 등으로 보고하고 있다(김민조, 2022; 박소현, 2016).

다음으로 부모교육에 대한 가정어린이집 교사들의 요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상희(2020)는 가정어린이집 교사들이 부모교육의 형태로 가정통신문을 주로 선호하고 있으나 강연회 형식의 부모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영아의 발달특성, 바람직한 부모역할의 내용으로 부모교육 전문가를 통한 강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국가 차원의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영아의 부모가 영아의 발달특성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 부모로서의 역할이 증진되기를 바라는 것에 있다고 밝혔다. 문미숙(2013)은 가정어린이집 교사들이 어린이집과 부모와 소통하고 이해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부모참여나 워크숍의 부모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교육은 어린이집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희망하면서 부모교육 전문 강사가 규칙적인 수면 습관, 배변 습관 등의 기본생활습관과 부모와 자녀의 적절한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의 요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지영, 정혜원(2016)은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가정과 어린이집이 서로 원활한 의견교환을 하면서 일관성 있는 교육을 위해서 부모교육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모교육은 외부강사가 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교육의 형식으로 집단면담, 개별면담, 참여수업 등의 방법을 선호하면서 부모의 요구에 적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부모 상담프로그램의 활성화, 교사의 전문성과 재교육 등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부모교육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미경, 배지희 (2021)는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부모교육을 운영하면서 과도한 업무와 부모들의 부모교육에 대한 낮은 인식, 부모교육을 진행하기에 부족한 자료 등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원장 고유 업무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육 정책이 필요하고 부모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개발, 보급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현직교육과 보수교육에 원장의 부모교육 역량 강화를 돕는 내용이 포함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부모교육에 참여가 저조한 부모의 부모교육을 위해 부모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가정어린이집의 부모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부모, 교사, 원장은 가정어린이집에서의 부모교육이 영아의 발달특성을 이해하고 어린이집과 가정의 교육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부모교육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가정어린이집 대부분은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로 등·하원 시 이루어지는 개별 면담이나 가정통신문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가정어린이집은 소규모로 운영되는 특성으로 강연회 형식의 부모교육은 연합회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지만 가정어린이집 원장은 부모에게 특별한 활동과 공간을 제공하면서 부모교육의 참여도를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는 가정어린이집에서의 부모교육이 어린이집과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영아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면서 양육에 실질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교사는 부모와 소통하고 이해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부모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국가 차원의 부모교육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가정어린이집의 원장 또한 가정과 어린이집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영아의 성장을 위한 일관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가정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정어린이집의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는 보육정책,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자료 보급, 원장의 부모교육 역량 강화 등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 2. 전문적학습공동체

### 1) 전문적학습공동체의 개념

전문적학습공동체(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의 개념은 미국과 영국 등 서구에서 과도한 업무와 개인주의 경향으로 고립화되는 교사 문화와 비효율적인 장학연수의 대안으로 1900년대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곽영순, 김종윤, 2016). Sergiovanni(1994/2004)는 학교 구성원들의 공동체 상실이 좋은 교육을 실천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학교 조직이 신뢰, 협동, 돌봄, 헌신 등을 바탕으로 결속과 연대할 수 있는 공동체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주요 연구자인 Dufour 와 Eaker(1998)는 전문적학습공동체가 나타나게 된 배경을 미국 공립학교의 낮은 교육 수준을 비판하고 혁신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수월성 운동(Excellence Movement)이 실상 진행된 내용에는 혁신적인 것이 없어 실패로 돌아가 버린 교육개혁에서 시작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Hord(1997)는 학습의 형태와 학교체제가 전통적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교사들의 효능감과 협력적인 환경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교육개혁 방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전문적학습공동체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Hord(1997)는 전문적학습공동체를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학습 증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면서 끊임없이 학습을 하는 전문가들의 학습공동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의의는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전통 방식의 교사 연수 학습을 벗어나 학생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교사

들과 학교 관리자들이 각자가 가진 교육 실천을 공유하면서 더 좋은 교육 방법을 함께 탐구하고 실험하며 집단 창의성을 발휘하여 학교 교육을 끊임 없이 혁신해나가는 것을 통해 학생의 학업성취를 높이는 것에 있다고 하였다.

Dufour와 Eaker(1998)는 전문적학습공동체를 공동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교육 실천을 탐구하며 향상시켜 나아가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정의하면서 전문적학습공동체의 개념을 전문가, 학습, 공동체의 3가지 용어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전문가’는 어떤 분야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그 분야에서 최신의 지식을 소유한 사람을 의미하고, ‘학습’은 지속적인 탐구와 향상을 의미하며 전문가에게 학습은 끊임없이 자신의 실천을 탐구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는 공동으로 공유하는 가치와 비전을 바탕으로 결속된 집단을 의미하면서 상호협력, 개개인의 성장, 정서적인 지원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Hargreaves와 Fullan(2014)도 전문가로서 교사의 판단을 바탕으로 교사의 학습과 학생의 학습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학교 조직의 학습이 향상하도록 교사들이 함께 협력하고 생활하는 공동체를 전문적학습공동체라 정의하였다. 또한 Annenberg Institute(2003)는 학교관리자와 교사들로만 구성된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의미를 교육 실천을 위해 공동으로 탐구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사, 교육행정가, 지역사회의 구성원 그리고 그 외 이해 당사자들로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형성할 수도 있다고 확장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서구의 교육 개혁과 비슷한 과정으로 1995년 5.31 교육 개혁안이 발표되면서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으로 학교평가와 교원평가,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 학교 다양화 정책 등이 실시되었다(이수민, 김경식, 2020).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학교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면서 학교교육 위기를 초래했다는 여론이 확산되었고 이에 내부적으로 학교를 혁신하려는 다양

한 움직임이 자생적으로 일어났다(서경혜, 2019). 이에 대한 사례로 2000년 폐교 위기에 있던 초등학교를 학부모, 지역주민, 교사가 함께 새로운 학교로 변화시킨 남한산 초등학교를 들 수 있는데 이처럼 새로운 학교로의 변화가 가능하게 된 동인은 학교 내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이었으며 공동체 운영을 통해 교육과정의 재구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정진화, 2014). 이후 남한산 초등학교는 학교 혁신의 모델이 되었으며 2009년 혁신학교 정책에 반영되어 공립학교로 확산되면서 국내에서도 전문적학습공동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이수민, 김경식, 2020).

경기도교육청은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와 미래 세대의 삶을 대비하기 위한 교육적 대안으로 혁신학교를 제시하였고 학교의 혁신을 이루기 위한 4대 중점 과제에 전문적학습공동체 형성을 포함하면서 전문적학습공동체는 학교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경기도교육청, 2015). 이처럼 경기도교육청은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학교의 문화를 변화하고 학교의 혁신을 이루는데 중요한 과제로 포함하면서 전문적학습공동체는 교원들의 동료성을 강화하여 협력적인 연구 그리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학습공동체이며 공동과제를 공동연구와 공동 실천하는 것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학교의 역량을 함께 성장시키는 모임으로 정의되었다(경기도교육청, 2021). 또한 이석열(2015)은 공동체적 접근은 교원들의 통찰력과 지식을 신장하는데 상호 간의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므로 교원능력개발을 위해서 전문적학습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학교개혁의 방향으로 정립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전문적학습공동체를 공동체 활동을 통한 교사의 성장에 가치를 높게 부여하고 그것을 학생의 학습에 연결하는 조직이라고 정의하였다.

그 외 전문적학습공동체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낙원(2007)은 교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성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에서 전문적학습공동체를 “교사들이 자신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하여 자신의 전문성에 미흡한 부분을 찾아내어 이를 보충하고 발전시켜 성숙된 교사로의 위치를 지킬 뿐 아니라 그 가운데 자기만족으로 추구해 나가는 모임” (p. 6)으로 정의하였다. 서경혜(2009)는 교사 전문성 개발에 대한 교사학습공동체의 대안적 접근 연구를 위해 교사학습공동체의 개념을 고찰하면서 교사학습공동체, 전문적학습공동체, 전문가 공동체에 대한 정의에 있어 큰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언급하면서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 전문성 신장과 학생들의 학습 증진을 위해 협력적으로 배우고 탐구하고 실천하는 교사 집단” (p. 250)로 정의하였다. 이경호(2011)는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축을 위한 교장의 역할을 탐색하는 연구에서 “전문적학습공동체는 교사뿐 아니라 교육 전문성을 인정받은 다양한 학교 관계자들이 학습을 주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지식과 신념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함으로써 전문적 발달을 도모하는 집단” (p. 200)이라고 정의하였다.

위 내용을 종합해보면 전문적학습공동체는 학생들의 학습 신장을 목적으로 교사와 교육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서로 협력하고 연구하며 성찰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각자가 가진 전문성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면서 교육현장을 개선하는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 2)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특성

전문적학습공동체와 다른 공동체를 구별하는 특성에 대해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절에서는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특성에 대해 국내외의 선행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Hord(2004)는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특성을 5가지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가치와 비전의 공유(shared values and vision)로 학생들의 학습을 최우선에

두고 교수와 학습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에 토대가 되는 비전을 세우고 공유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협력적 학습과 적용(collective learning and application of learning)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공동으로 학습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지원적 환경(supportive condition)으로 협력적인 동료 관계, 학교 구성원 간의 배려, 교육과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등의 인적환경과 자원을 이용하거나 학교의 시간, 장소와 같은 물리적인 환경 지원 조성이 기반 되어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배움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네 번째는 지원적 공유 리더십(supportive and shared leadership)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성원들은 위계적인 구조가 아닌 리더십을 공유하고 구성원의 성장을 돕기 위한 지원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실천의 공유(shared practice)로 구성원 간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교육 실천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교육실천을 개선하는 것이다.

Louis 등(1996)도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특성을 5가지로 설명하였다. 첫 번째는 반성적 대화(reflective dialogue)로 전문적학습공동체의 구성원은 서로의 교육 실천에 대해 성찰하면서 교육을 개선해나가는데 이러한 교육실천에 대한 반성적 대화는 교육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이어진다. 두 번째는 실천의 탈사유화(de-privatization of practice)로 교실에서 고립적으로 생활하던 방식을 벗어나 공동체 구성원 각자의 교육 실천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코치가 되어 수업의 개선으로 도우며 협력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학생의 학습에 대한 집중(focus on student learning)으로 이 특성은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핵심 특성으로 간주되는데 구성원들이 학생들의 학습을 최우선에 두고 지속적으로 집중하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네 번째는 협력(collaboration)으로 구성원들은 서로의 정보나 자료 교육 실천 등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공동 작업으로 협력하면서 함께 전문성을 증

진시킨다. 이러한 협력은 소속감을 키우고 공동의 책임감을 갖도록 한다. 다섯 번째는 규범과 가치의 공유(shared norms and values)로 학생과 학습 그리고 교사의 역할, 인간의 활동과 인간관계, 학교의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의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것이다. 전문적학습공동체의 규범과 가치의 공유는 교육실천의 기반이 된다.

Dufour(2004)는 전문적학습공동체는 학습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지원을 할지에 대해 고민하며 세 가지의 핵심원칙을 토대로 한다고 주장하였다. 세 가지의 핵심원칙은 모든 학생들의 학습 보장(ensuring student learn)하고자 하는 원칙, 교사들의 독립적 실천을 지향하며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높이는 협력적인 문화(A culture of collaboration)의 구축 그리고 학생들의 현재 수준을 파악해서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조정해가는 결과중심(A focus on results)의 원칙이다. Dufour 와 Eaker(1998)는 이러한 세 가지의 핵심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특성을 6가지로 제시하였다. 제시한 특성을 살펴보면 첫 번째, 공유된 미션과 비전, 그리고 가치(shared mission, vision, and values)로 학생들의 학습력 제고를 위해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목적, 목표, 지향점으로 공유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협력적 팀의 구성(collaborative teams of staff)으로 목적을 공유하는 협력적 팀으로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며 공동체의 발전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집단 탐구(collective inquiry)로 전문적학습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현재 상황의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방법을 탐색하며 반성하는 등으로 우수한 학습 실천을 이루기 위해 공동으로 교육의 실천을 탐구한다. 네 번째는 실천 및 실험지향(action orientation and experimentation)으로 새로운 이론이나 방법 등을 실험하고 실천에 옮겨 검증하며 이를 통해 실천을 개선하고 지식을 발전시킨다. 다섯 번째는 지속적인 개선(continuous improvement)으로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개선해 나아가는 노력으로 계속해서 성장한다. 여섯 번째는 결과지향(result orientation)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의 노력이 학생들의 학업 결과에 어떤 영향을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실천계획을 수립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간다.

Bolam 등(2005)은 영국에서 진행된 효과적인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형성과 지속에 관한 연구에서 효과적인 전문적학습공동체는 8가지의 특성을 보여준다고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모든 학생의 학습을 향한 공유된 가치와 비전(shared values and vision )이 핵심특성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로 개인의 자율성이 아니라 목표를 강화하기 위해서 학생 학습에 대한 공동의 책임(collective responsibility for pupils learning)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특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세 번째는 학습에 초점을 맞춘 협력(collaboration focused on learning)하는 특성이 있고, 네 번째는 개인 및 공동의 탐구(professional learning: individual and collective)로 모든 구성원이 동료와 함께 학습하는 경우가 많아 그룹 및 개인 학습이 촉진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는 반성적 탐구(reflective professional inquiry)로 상호 관찰하고 교육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의견을 나누면서 학생들의 성취를 검토하며 반성적인 탐구를 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개방성,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openness, networks and partnerships)으로 교직원이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홍보하고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 외부의 지원이나 정보를 연결하고 협력하면서 학교 밖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곱 번째는 포괄적인 회원(inclusive membership)으로 주로 교사로 제한되었던 학습공동체의 구성원에 교사와 학생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그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간호사, 행정 등의 지원 직원이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상호 신뢰와 존경 그리고

지원(mutual trust, respect and support)으로 구성원 간의 좋은 관계는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성장에 중요한 특성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필요성과 더불어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특성에도 주목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2005)은 학교혁신을 위해 학교의 본질적 기능은 학생들이 지식 기반 사회에 적합한 참된 학업 성취를 달성하도록 참된 교수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사 개인의 노력만으로 어려우므로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고 하면서 전문적학습공동체의 5대 핵심특성을 기준과 가치의 공유, 학생의 학습에 관심 집중, 반성적인 대화, 교수활동의 투명성 제고, 공동의 노력과 협력으로 제시하였다.

서경혜(2009)는 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한 접근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구하는 연구에서 전문적학습공동체 관련 문헌을 고찰하고 전문적학습공동체의 공통적인 특성을 추출하고 그것을 세 가지의 속성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속성은 가치와 규범의 공유로 전문적학습공동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특성이 있다. 두 번째 속성은 학습중심성인데 이는 전문적학습공동체를 다른 교사공동체와 구별하는 중요 특성으로 교사들의 학습과 학생들의 학습에 중점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 속성은 협력으로 그에 속하는 특성이 공동 탐구, 반성적 대화, 공동 문제해결, 집단 창의성, 학생 학습에 대한 공동 책임, 리더십 공유, 공동 실천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밝히면서 협력은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핵심 속성이라고 보고하였다.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특성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질적 메타 분석을 실시한 연구를 통해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승호 등(2015)은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한 전문성 개발에 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물 10편을 선정하여 각 연구

물들을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의 개념이나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혼합해서 사례를 분석할 틀을 추출하였다. 그렇게 추출된 전문적 학습공동체 특성의 틀은 자발적 활동 의지, 공동수업 설계, 수평적 상호작용, 수업사례 및 아이디어 공유, 공유를 통한 반성, 전문가의 도움, 협력, 지속적인 연구, 지원적 환경, 생산결과의 활용이다. 이러한 분석 틀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주요 특성은 수업 사례 및 아이디어 공유, 공유를 통한 반성 그리고 자발적 활동의지로 나타났고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핵심 특성은 협력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특성 간에는 순환적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순환적 관계란 교사가 자발적 활동의지로 수평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수업사례를 공유 하는 등의 실천 활동을 하고 반성적 성찰을 통해서 얻어지는 전문성 신장으로 성취감을 경험하면서 다시 자발적인 활동의지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핵심 특성인 협력이 작동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승호 등(2015)의 연구가 2015년 이전의 교육청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조직된 전문적학습공동체 관련 연구물을 대상으로 했다면, 김하정, 원효현(2020)는 교육청의 주도로 전문적학습공동체가 확산된 2015년 이후의 연구물을 대상으로 질적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참여요인과 특성 탐색에 적합한 연구로 선정된 10개의 연구물이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특성을 9가지로 추출하였는데 추출된 아홉 가지의 특성은 학생 학습에 중점, 가치와 비전 공유, 자발적 활동의지, 협력적 집단 탐구, 정서적 유대감과 소속감, 반성적 대화를 통한 실천 및 공유, 지원적·분산적 리더십, 물적·인적·행정적 지원환경, 교사전문성 함양이다. 그리고 메타분석의 연구 대상이 되는 연구물을 검토하면서 다수 사례에서 주목한 존중과 신뢰의 문화를 추가하여 총 10개의 특성으로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한편 분석 결과를 통해 존중과 신뢰의 문화를 기반으로

교사 개인의 문제의식이 아이디어로 발전하는 시점이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생성되는 순간이며 생성된 전문적학습공동체에 학교장의 리더십과 행정적 지원이 더해지면 학교전체가 연구하고 학습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밝힌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특성을 종합하여 유사한 특성들을 모아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지향하고 있는 특성,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과정에서의 특성 그리고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지원하는 특성의 3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2>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특성\*

특성		연구자	Louis, Marks & Kruse (1996)	Dufour & Eaker (1998)	Hord (2004)	Bolam, McMahon, Stoll, Thomas & Wallace (2005)	한국 교육 개발원 (2005)	서경혜 (2009)	이승호 외 (2015)	김하정 원효현 (2020)
지향 특성	공유된 가치와 비전 미션과 규범		○	○	○	○	○	○		○
	결과지향			○						
	협력, 신뢰, 존중 지향			○		○			○	○
	자발적 활동의지								○	○
운영 특성	개인 실천 공유		○		○		○		○	
	협력적 학습				○				○	
	학생학습에 집중		○			○	○	○		○
	집단 탐구		○	○		○	○	○	○	○
	실천 및 실험			○				○		
	반성, 지속 개선		○	○		○	○	○	○	○
지원 특성	지원적 공유 리더십				○			○	○	○
	지원적 환경				○	○			○	○
	포괄적 회원					○			○	

\* 이 표는 문헌분석을 통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하였음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특성은 학자들이 주목하는 점과 표현하는 용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포괄적인 의미로 보자면 학자들이 밝힌 특성 안에 다른 학자들이 언급하는 특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특성을 표 2에서 구분한 범주별로 살펴보자면 전문적학습공동체는 궁극적 목적인 학생들의 학습증진을 위해 구성원의 전문성 신장이라는 목적이 있고 이 목적을 향한 지향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향 특성은 자발적인 활동의지를 가진 구성원이 서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 하는 것과 학생의 학습에 관한 같은 고민과 생각으로 가치와 비전 그리고 미션과 규범을 공유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향점을 바탕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학생의 학습에 집중하는 것을 기반으로 구성원 각자가 가진 실천을 공유하고 협력적으로 학습하면서 구성원이 함께 고민하는 문제를 공동으로 탐구하고 도출된 결과들을 교실에서 실천하고 실험을 하는 것이다. 또한 공동체에서 학습한 것을 실천하고 실험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반성하는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특성도 운영 과정의 특성으로 포함 된다.

마지막으로 지원특성은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운영을 통해 구성원들 간의 배움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특성으로 구성원은 수평적인 구조로 서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지원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특성이 있으며 구성원 간의 배려나 교육과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시간이나 장소와 같은 물리적인 환경 지원을 조성하는 하는 특성이 있다. 또한 교사와 학생의 학습 촉진을 위해 구성원에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행정, 간호사 등의 지원 직원이 포괄적 회원으로 포함되는 특성도 있다.

### 3) 유아교육에서의 전문적학습공동체 관련 선행연구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려는 교사들의 학습모임은 전문적학습공동체 외에도 탐구공동체, 교사학습공동체, 교사 연구회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왔다. 곽영순, 김종윤(2016)은 국외에서는 전문적학습공동체로 사용되는 용어를 국내에서는 주로 교사학습공동체로 지칭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교사들의 다양한 공동체와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전문성 신장, 공동체 지향성, 학생학습의 측면에서 개념상 차이가 없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이수민, 김경식, 2020). 따라서 본 절에서는 유아교육에서의 전문적학습공동체 관련 선행연구에 학습공동체 연구를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유아교육에서 전문적학습공동체와 관련된 연구는 2000년부터 시작되었고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다가 2016년 이후 박사학위 연구주제로도 확장되기 시작했다(이은정, 2020). 한편 2019 개정누리과정에 교사의 교육과정 실천과 개선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강조되면서 동료 간 협력이 교육과정 실행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제시되었다(교육부, 2019). 이처럼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강조한 2019 개정누리과정이 2020년 3월에 본격 시행된 것을 기점으로 유아교육 분야에서 전문적학습공동체와 관련된 연구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안지혜, 안소영, 2021).

전문적학습공동체 관련 연구는 주로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권정아, 2021; 김미란, 2021; 서은총, 2022; 송진영, 2023; 지옥정, 김경숙, 2021). 이에 본 절에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통해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어 가는지의 운영 과정과 그 과정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은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그리고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의 학습의 실천 의미를 서술하였다.

또한 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미미한 상황이지만 발표된 연구를 중심으로 원장의 전문적학습공동체에 관한 경험을 분석하여 서술하였다.

#### (1) 유아교사의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과정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어 가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남정과 임부연(2013)은 교사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교사학습공동체의 경우에도 형성 초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아니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과 변화의 발달 단계를 거친다고 보았다. 이에 공립유치원 교사들의 학습공동체 사례 분석을 통해 교사학습공동체의 발달 단계를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이를 형성기, 내면화기, 성장기, 확장기, 전이 및 소멸기로 보고하였다. 형성기는 공동체의 시작을 알리고 공동체를 구성하여 구성원을 모집하는 시기이며 내면화기는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를 알아가며 친밀감을 형성하고 공동으로 지향하는 가치를 구체화하면서 공동체를 유지하는 시기라고 하였다. 성장기는 학습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주인의식을 고양하고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여 새롭고 좋은 교수 자료와 수업에 투자함으로써 개인적 성장과 공동체의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라고 하였다. 또한 확장기는 지식과 정보의 공유가 공동체 구성원으로 제한되어 있던 상황에서 공동체 외부의 관심 증가로 인해 공동체의 학습 결과가 외부로 확산된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전이 및 소멸기는 행정구의 개편, 리더의 부재와 교체 등의 갈등 상황을 겪으면서 소멸의 위기로 갔다가 새로운 리더의 등장으로 전이기를 맞이한 시기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상의 다섯 단계에서 내면화기, 성장기, 확장기, 전이기는 순환적 구조로 학습공동체의 유지, 성장, 발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진다정(2020)은 개정된 누리과정과 관련한 연수가 유치원의 맥락과 특수성

이 고려되지 않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고민을 바탕으로 교사학습공동체를 운영하게 되었다. 그 사례를 통해 교사학습공동체의 운영 과정을 4단계로 나누고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첫 번째는 형성기로 관리자의 지원과 민주적 학교 문화를 기반으로 개정된 교육과정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막연한 걱정 그리고 배움의 열정을 함께 공유하면서 학습공동체를 시작되었다. 두 번째는 침체 및 재정비기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계획한 내용이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어 침체되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구성원들과 협의과정을 거쳐 공동의 비전과 목적을 재정립하고 운영방법을 개선한 단계이다. 세 번째는 활성화기로 구성원들은 학습, 실천한 사례를 공유, 협력적으로 탐구한 내용 적용으로 교육과정의 개선의 과정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네 번째는 유지발전기로 개정된 교육과정 실행을 위해 교사학습공동체 운영이 필수라는 의견에 동의하고 교사학습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것에 합의를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원미(2021)는 개정 누리과정 시행을 앞두고 원장이 교육과정 방향을 결정하고 교사가 따르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원장과 교사가 협력하여 교육과정 방향을 협의하고 실천하는 교사학습공동체 관련 연구를 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구성된 교사학습공동체 운영의 결과로 교사학습공동체의 운영 과정을 4단계로 보고하고 있다. 첫 번째는 태동기로 그간의 놀이와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의 놀이가 다른 의미인지, 놀이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한지,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동료교사들과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모여 교사학습공동체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공동의 가치를 찾기 위한 가치 형성기로 유아가 놀이의 과정에서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배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공동체가 추구하는 놀이의 의미로 공유하고 유아가 만들어가는 놀이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공동의 가치를 실천하는 성장기로 교실 안에서의 실천을 통해 교육 과정을 구체화하여 실천하고 그러한 실천을 돌아보는 반성을 통해 교사 역할의 실천 규칙을 새로이 규정하면서 나아가는 과정을 밝혔다. 네 번째는 활성화기로 각 교실에서 실천한 것을 공유하면서 다른 교사의 시각에서 해석한 것을 알게 되고 그 해석을 자신의 실천에 다시 반영하면서 협력적 학습을 통해 교수실천의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는 단계로 보고하였다.

안유리(2022)는 2019 개정누리과정에서 강조하는 놀이중심교육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 원외의 교사들과 온라인을 활용한 교사학습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운영 과정과 경험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학습공동체의 운영 과정이 착수단계, 실행·발전 단계, 정착화·유지 단계를 거쳤다고 밝혔다. 첫 번째인 착수단계에서는 모임의 일정과 주제 및 내용 등을 조율하는 사전 준비를 하고 함께 계획하면서 공동체 운영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고, 상호 토론과 의견 교환을 통해 세부 주제를 선정하고 합리적인 일정을 결정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두 번째인 실행·발전 단계에서는 학습공동체의 목표와 가치, 비전을 구성원 간에 공유하고 협력 학습을 통해 정보와 노하우 등도 공유하고 확장함으로써 각자의 고민, 집단적 문제도 해결해나가는 경험을 하였다. 또한 함께 성찰하면서 신뢰감과 소속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공동체가 동반 성장하는 동시에 개인의 전문성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세 번째는 정착화·유지 단계에서는 교사 개인의 전문성이 신장되었고 자신감으로 교육관을 확립해나갔으며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생의 관계로 마무리를 아쉬워하며 공동체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한 단계로 밝혔다.

선행연구에서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운영과정은 3단계, 4단계, 5단계로 연구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운영과정 단계 분석을 통해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과정 전체의 시기를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로 구분하

였다. 그리고 각 시기에 해당하는 선행 연구의 단계를 포함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어를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3>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운영 과정 단계\*

시기 연구자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
최남정 임부연 (2013)	형성기    내면화기	성장기    확장기	전이 및 소멸기
진다정 (2020)	형성기    침체 및 재정비기	활성화기	유지발전기
이원미 (2021)	태동기    형성기	성장기	활성화기
안유리 (2022)	착수단계	실행·발전단계	정착화·유지단계
시기별 핵심어	구성, 친밀, 가치, 비전, 목적 공유	학습, 실천, 협력적 탐구, 결과공유, 반성	전문성 신장 성장, 소멸, 유지, 전이

\* 이 표는 문헌분석을 통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하였음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운영 과정을 표 3의 시기별로 살펴보면 먼저 전반기는 교육상황에서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동체 구성원을 모집하고, 서로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며 공동체의 구체적인 진행을 계획하고 친밀감을 형성하고자 노력을 하며 침체가 될 경우 다시 목적을 재정립하기도 하면서 공동체 운영 과정의 토대를 다지는 단계이다. 중반기는 구성원이 서로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여 공동으로 탐구한 것을 실천하면서 다시 실천을 공유하고 반성하는 순환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적인 전문성 신장과 더불어 공동체의 성장을 이루어 가는 단계이다. 후반기는 뜻하지 않는 변화로 인해 갈등과 소멸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공동체로 인한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다른 공동체로 전이되거나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단계이다.

## (2) 유아교사의 전문적학습공동체 관련 경험

전문적학습공동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유아교사의 전문적학습공동체 관련 경험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가운과 최연철(2020)은 교사들은 매번 공동체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유치원 안의 다양한 갈등 상황을 나누게 되는 잡담이나 사적인 수다가 많아지는 상황이 고민되기도 했지만, 이러한 과정 또한 그 안에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배우는 경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배움을 위한 출발을 알려주는 신호가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바쁜 업무로 시간을 할애하여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에 갈등을 느끼기도 하였으나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믿고 의지하고 격려하며 공동체를 지속할 수 있었다. 교사들은 공동체를 지속하면서 교실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공유하였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유아의 일상적 행위를 새롭게 보게 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한편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에서 결정된 사안이 학부모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게 되면서 공동체가 학습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자(2020)는 교사들은 각자의 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어려움을 공유하면서 이러한 어려움이 본인의 능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어려움이 아니고 교사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존감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또한 교사들은 함께 모여 고민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교수방법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자신의 교실에 적용하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질 높은 교육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게 된다고 하였다.

손은실과 오채선(2022)은 전문적학습공동체는 구성원들이 교육청의 제도적 지원에 의해 전문적학습공동체에 참여하게 되면서 자율과 타율 사이에서 갈

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공동체 모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유아교사는 공동체 모임 참여를 위해 유치원을 비우는 시간을 달가워하지 않는 관리자의 따가운 시선, 그리고 전문적학습공동체에 참여하지 않는 교사가 참여하는 교사의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을 하는 것과 새로운 교수 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에 불편한 시선을 바라보는 것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한편 경력이 많은 교사는 구성원으로서 구성원들에게 경력으로 인해 기대를 불러일으키거나 본인의 생각 표현으로 인해 수평적인 관계에서 수업 나눔을 하고 배우는 공동체에서 동료와의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조심을 하게 되고 자신의 조언에 대한 책임감으로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적당한 선을 지키고자 표현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지속하면서 교사들은 혼자 고민했다면 평소에 생각하지도 못했을 방법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 의논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관점을 통해 교육 실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얻어 갈 수 있었던 경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진다정과 이승연(2021)은 교사가 전문적학습공동체를 모임에서 학습한 것을 교실에서 실행하는 것이 숙제처럼 다가와 부담스러웠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을 위해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부족한 부분을 반성하면서 더 배우려하고 또 시도하게 되는 경험을 한다고 밝혔다. 이런 과정에서 향상된 교사의 실행 능력은 유치원에서 각자의 교실에서만 놀이하던 아이들이 교실을 벗어나 서로 다른 반의 유아들과 함께 어울려 놀이하게 되는 변화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각 반의 활동이 유치원 전체로 확장되고 공유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공동체 모임이 지속되면서 구성원들은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 위로받으며 공감대가 생겼고 이로 인해 교사들 간에 인간적인 측면에서 유대감이 형성되면서 전문적학습공동체의 모임 자체가 편안하게 서로의 생각과 관점을 나누며 조율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교사들은 바쁜 업무와 시간적인 제약으로 참여에 갈등을 경험하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다양한 어려움도 경험하지만 전문적 학습공동체 모임이 진행되면서 긍정적인 경험으로 보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참여하면서 고립된 생활에서 벗어나 서로의 고민과 어려움을 공유하고 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탐색하면서 다양한 관점과 정보와 지식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학급에서 실천하고 다시 그 실천을 공유하고 반성적 성찰을 하는 순환적인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확장되는 경험을 하였다. 이는 학습자인 유아의 변화에서도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험들은 구성원 간에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친밀한 동료애로 발전하였다.

### (3) 유아교사의 전문적 학습공동체에서 학습의 실천 의미

유아교사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실천한 의미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다정(2020)은 교사 학습공동체의 주제를 놀이중심 교육으로 정하고 학습공동체를 운영하면서 놀이중심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와 실천 과정을 알아보았다. 교사들은 놀이중심 교육을 실제 놀이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제안한 놀이와 유아들의 발현된 놀이의 적절한 비중, 한 학급에서 유아들이 보이는 다양한 흥미에 대한 수용의 정도, 기본적인 질서를 지키는 것과 놀이의 즐거움 병행의 여부, 놀이와 교육과정의 연계 등에 대해 고민을 반복하면서 유아들의 놀이를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교사들의 실천은 유아들에게 놀이의 주도권과 일과를 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돌려주며 유아가 주인이 되는 교실 만들기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실천은 유아들이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 내거

나 놀이를 확장하는 모습으로 이어졌다. 또한 교사들은 협의를 통해 과감하게 좁은 교실을 벗어나 놀이 공간으로 복도를 활용하도록 공간을 재구성하였고 이렇게 놀이공간이 된 복도는 유아들이 옆 반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되었다. 이는 유아들의 놀이가 서로 연결이 되고 공유가 되면서 유아들의 놀이가 자연스럽게 촉진되고 확장되는 현상을 가져왔다.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한 이러한 실천은 교사들이 각자가 가진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반성적 사고 과정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면서 교실 수업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이는 교사 자신과 동료의 교육적 전문성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윤정(2022)은 놀이에서 유아의 과학적 경험 지원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면서 공동체를 통한 교사들의 실천을 통해 과학적 경험을 위한 놀이 지원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교사들은 놀이 지원을 하면서 교사들은 유아들이 놀이할 때 유아들의 흥미가 놀이의 어느 부분에 있는 것인지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적절한 과학적 경험 지원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유아들이 흥미 안에서 자연스럽게 과학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노력하며 실천하고 있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교사들은 교사가 유아들의 놀이 속에서 과학적 경험을 읽어주고 유아와 함께 계획하고 제안하는 과정에서 유아들의 과학적 경험이 확장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는 과학은 어렵다는 교사 자신의 인식에 변화를 주면서 유아들에게는 과학적 정보를 알려주는 것보다 놀이를 통한 과학적 경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원을 실천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이러한 실천과 토론을 통해 자신이 가진 정보와 지식이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유아가 자신의 일상에서 흥미를 느끼는 경험 안에서 과학적 경험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과학적 경험을 지원하는 교사로서의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조인영과 이연우(2021)는 어린이집에서 장애유아의 담임을 맡고 있는 통합반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장애유아 놀이 지원에 대한 실천적 변화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교사들은 장애유아가 놀이에 서툴고 잘 놀지 않으며 친구를 방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장애유아의 놀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공동체 활동을 통해 장애유아의 놀이가 교실 안에서 발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실천하게 되었다. 먼저 교실 환경에서 장애 유아의 흥미를 고려한 놀잇감으로 교실을 재구성하고 놀이 자료 외에도 장애유아의 집중을 도울 수 있도록 교실 내에서 주변의 소음을 줄여 준다거나 장애 유아가 방해받지 않는 공간을 확보하는 등으로 지원하였다. 이러한 지원으로 장애유아의 놀이 행동이 증가하였고 장애유아와 일반유아가 함께하는 놀이가 촉진되었다. 그리고 교사들은 교사가 계획한 놀이 외에 다른 놀이가 발현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가르치지 않아도 일반유아와의 관계 안에서 장애유아의 자발적 놀이가 발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사들은 이러한 실천 과정을 통해 장애유아에게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런 변화는 교사가 직접 가르치지 않은 놀이를 통해 배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함께 놀이하며 더 다양한 놀이가 발현될 수 있게 자료와 환경을 준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교사들은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학습한 부분을 학급에서 실천하게 되고 그 실천을 공동체에서 공유하면서 다시 한 번 반성을 하게 되고 다시 실천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교사들은 이러한 실천을 통해 유아에게 더욱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 전문가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유아교육기관 원장의 전문적학습공동체 경험

원장이 전문적학습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 이루어진 연구는 학술연구정보 서비스를 통해 검색한 결과 5편으로 나타났고 모두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이다. 원장의 전문학습공동체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미란(2021)은 교육과정 실행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 참여 경험과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전문적학습공동체의 과정은 자발적으로 모인 구성원이 모임의 운영 방법과 주제 등에 대한 협의를 거치며 준비하는 형성기, 교육 신념과 어려움을 공유하며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공동의 가치를 합의하며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내면화기, 구체적인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관찰 및 지원, 변화, 협력적 실행을 하는 성숙기,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평가와 공동체의 지속성 여부를 논의하며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변형기로 진행이 되었다. 또한 원장들은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교육에 대한 신념을 재정립하였고 교사, 유아, 원장에 대한 생각과 실천의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구성원 간의 협력적인 문화 조성을 통해 동반성장을 하게 되었다고 경험의 의미를 보고하였다.

보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학습공동체의 실행 과정과 변화를 탐색한 연구(권정아, 2022)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실행과정을 살펴보면 전문적학습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기대를 가지고 공동체의 목표 및 방법 등을 설정하면서 함께 출발하였고 이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으로 1차 실행을 통해 다음의 2차 실행을, 2차 실행을 통해 3차 실행으로 진행하였다. 실행 이후 새롭게 원내 학습공동체까지 이어가자 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원장은 구성원 간의 협력과 지지를 통해 전문성이 향상되었으며 보육 과정의 지원 행동, 리더십, 놀이성에 관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지옥정과 김경숙(2021)은 원장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원장이 구성원이 된 전문적학습공동체 선행연구를 볼 수 없다는 것에 주목하여 15년간 프로젝트 접근법을 중심으로 진행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들의 전문적학습공동체 참여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여 원장의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원장의 원 운영의 방식과 기관의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이 강화되면서 지역사회의 능동적인 주체 역할을 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해 협력하였다. 그리고 원장으로서, 유아교육전문가로서 자신감이 올라가고 역량이 강화되었으며 구성원 간 깊은 신뢰감 형성으로 평생의 동반자 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문제를 발견하여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실천하는 과정의 방식으로 학습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어린이집 원장의 변화와 성장을 알아보고자 실시한 연구(서은총, 2022)도 있었다. 연구결과 연구에 참여한 원장들은 집단차원과 개인차원에서 변화와 성장이 나타났는데 먼저 집단차원의 변화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인식이 외부에서 원장 스스로인 내부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변화는 원칙을 수정하고 문제해결 전략을 끊임없이 변경하면서 원장들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개인차원의 변화에서 원장들은 전문적학습공동체에 참여하면서 자기를 반성하고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고 자기를 재인식하는 것을 통해 내적·외적 변화가 나타났고 이러한 변화를 기반으로 자신 관리에 대한 개선, 체계적인 업무 관리를 위한 원칙 등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학습공동체를 통한 어린이집 원장의 재교육과 전문성 증진에 대해 초점을 둔 연구(송진영, 2023)에서 원장들은 전문성 향상에 대한 기대와 기관을 운

영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공동체를 시작하였다. 공동체 운영의 주제는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며 정해 실행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것으로 주제를 수정하기도 하였다. 주제를 정한 후에는 서로의 사례를 공유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해당 주제에 대한 전문성이 향상되었고 이와 같은 공동체 참여 경험은 원장의 사고 전환과 확장을 가져왔으며 혼자보다 같이 하는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공동체의 실천이 부모와 지역사회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유아교육기관 원장의 전문적학습공동체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유아교육기관을 운영하면서 같은 고민과 기대를 가진 원장들은 서로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비전을 확립하게 된다. 이후 원장들은 고민을 해결하고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서로의 사례와 전문성을 공유하면서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공동의 주제를 함께 학습하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순환의 과정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운영 과정 안에서 원장들은 공동체의 협력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동반성장 하게 되었고 교육과 기관 운영에 대한 사고 전환과 확장을 경험하였으며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원장으로서 그리고 유아교육전문가로서도 전문성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교육과 관련한 같은 고민과 관심을 가진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전문적학습공동체를 구성하고 서로의 전문성을 공유하면서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학습하는 과정은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부모교육 실행을 위한 전문성 향상에 전문적학습공동체가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 Ⅲ. 연구 방법

본 장에서는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에 대해 서술하고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의 연구자 역할에 관해 기술하였다. 또한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에 대한 요구조사, 학습 내용과 방법 선정을 위한 문헌 연구,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계획과 본 연구에서 실행된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과정으로 연구 절차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과 분석 절차를 기술하였다.

#### 1. 연구 참여자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성공 요인 중 하나는 공동체 형성 과정에서의 자발적 참여 여부에 있다. 자발적인 참여는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공동체 활동을 긍정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서경혜, 2019; 이준희, 이경호,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G 지역에서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단체 커뮤니티로 사용하는 SNS에 연구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문을 게시하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공고문에는 전문적학습공동체의 개념,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예상 운영방식, 구성원으로서 역할, 수집된 자료의 논문 사용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공고문을 본 후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원장은 22명이었다.

연구자는 원장들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통해 연구 과정에 신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의사를 밝힌 22명의 원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

다. 설명회에는 15명이 참여하였으며 연구자는 설명회를 통해 가정어린이집의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필요성, 목적, 운영 과정, 구성원으로서 역할, 연구의 자료수집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원장들은 궁금한 점을 질문하며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설명회를 마친 후 연구자는 요구조사를 위해 설명회에 참석한 원장들과 소그룹으로 면담 일정을 정해 집단면담을 하였다. 집단면담 일정은 원장들의 일과가 끝난 저녁 시간과 일과 중 외출이 가능한 오후 시간으로 나누어 각자 편안한 시간을 선택해서 진행하자는 원장들의 의견에 따라 정하였다.

요구조사를 마친 후 설명회에 참여했던 15명의 원장 모두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설명서와 연구동의서를 배부하였다. 연구 설명서에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된다는 내용, 연구 참여 절차와 연구 참여 중에도 불참 의사가 있다면 자유롭게 중도에 그만둘 수 있다는 내용 그리고 연구자의 역할, 연구 참여에 따른 혜택, 연구 참여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비밀 보장에 관한 내용(Hatch, 2002/2016)이 포함되었다. 원장들은 설명서를 충분히 읽어본 후 연구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어린이집 평가제 관련 업무로 본 연구에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한 5명의 원장을 제외하고 최종 연구 참여자로 선정된 원장은 총 10명이다. 또한 최종으로 연구동의서를 작성한 연구 참여자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일반적인 배경과 참여 동기를 파악하였다. 이렇게 연구 참여자로 선정된 10명은 모두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부모교육 경험이 있고 부모교육에 관한 관심을 가진 원장으로 이는 동질적인 표본 선정 방법(Patton, 2015/2017)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원장 10인의 일반적인 배경은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4>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2023년 1월 기준)

연구 참여자 (요구조사 시 명칭)	연령	학력	진공	가정어린이집 원장 경력	총 보육 경력
A 원장 (가 원장)	47세	석사과정	유아교육학과	4년	13년
B 원장 (나 원장)	39세	석사	보육학과	4년	11년
C 원장 (다 원장)	53세	석사	사회복지학과	10년	18년
D 원장 (라 원장)	55세	전문학사	유아교육학과	2년	4년
E 원장 (마 원장)	54세	학사	아동학과	4년	12년
F 원장 (비참여)	57세	학사	아동학과	13년	13년
G 원장 (바 원장)	48세	학사	아동학과	15년	17년
H 원장 (사 원장)	51세	전문학사	아동학과	19년	20년
I 원장 (아 원장)	60세	박사수료	아동학과	27년	27년
J 원장 (자 원장)	51세	학사	기타	13년	13년

1) A 원장

A 원장은 교사 생활을 지속하다가 가정어린이집 원장으로 운영을 시작한 지 4년째 되었다. A 원장은 국공립 시설의 교사로 경험했던 부모교육과 달리 가정어린이집에서의 부모교육 참여율이 적은 부분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 어떻게 하면 부모교육의 참여율을 높이고 그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때 부모교육을 실행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성원 모집에 대한 공고문을 보고 제일 먼저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하였다. A 원장은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부모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 2) B 원장

B 원장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가정어린이집 운영을 시작한 지 4년째이다. B 원장은 부모교육은 주 양육자인 부모와 보조 양육자인 어린이집 간의 신뢰와 정보를 교환하는 시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원장의 업무가 너무나 과도한 현실에 미디어 매체에서 나오는 발달 전문가나 소아정신과 의사 정도의 상담을 부모가 요구하는 상황이 겹치면서 운영 관련 지식 외에도 부모와의 소통에 필요한 전문적인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B 원장은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 다른 원장들과 함께 학습하면서 질적으로 성장하는 운영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참여 동기를 밝혔다.

## 3) C 원장

C 원장은 현재의 가정어린이집을 10년째 운영하고 있다. C 원장의 어린이집은 0세와 1세만 있는 0세 전용 어린이집으로 최근 출산율이 저조해지면서 입소하는 영아들이 첫 자녀인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의 연령대도 다양해서 2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까지 격차가 있고 부모 대부분이 자녀의 개별적인 발달 부분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처럼 다양한 부모의 유형과 요구에 맞춰 부모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전문적학습공동체가 그런 부분을 해소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 4) D 원장

D 원장은 유아교육을 전공하였으며 보육 경력은 4년이고 현재 재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2년째 운영을 하고 있다. D 원장은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매일 만나게 되는 영아기 부모의 양육 방법이나 태도를 보면서 원장으로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하였다. 그래서 원장이 좀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부모교육 방법을 파악하여 어린이집에 적용하면 부모가 영아를 이해하고 잘 양육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부모교육을 실행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 5) E 원장

E 원장은 4년째 현재 재직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E 원장은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주 느끼는데 필요한 사안이 생길 때마다 외부 강사에게 의뢰하는 것은 쉽지 않을뿐더러 외부 강사는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부모에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E원장은 부모가 사소한 양육 갈등을 경험할 때 아이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원장이 더욱 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전문적학습공동체에 참가해서 막연히 알고 있던 양육 지식을 좀 더 명확한 이론을 바탕으로 확립시키면서 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원장이 되기를 기대하였다.

#### 6) F 원장

F 원장은 현재 재직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을 13년째 운영 중이다. F 원

장은 최근의 영아기 부모들은 요구가 다양하고 자녀에게 관심은 많으나 정작 영아의 발달 과정에 맞춰 어떻게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 고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원장으로서 요즘 부모 세대의 요구에 맞는 적절한 부모교육을 실시해서 영아들이 잘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밝히면서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같은 생각을 하는 원장들과 함께 부모교육을 공부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 소중하다고 하였다.

#### 7) G 원장

G 원장은 현재 재직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을 15년째 운영하고 있다. G 원장은 영아들의 발달에 있어 어린이집과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어린이집은 꾸준한 교육으로 보육의 질이 평준화가 되어가고 있어 영아들의 발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부모교육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모의 부모교육 참여도는 낮은 부분이 안타깝다고 하였다. 그래서 원장이 부모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좀 더 학습하고 어린이집 자체에서 원장이 부모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부모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전문적학습공동체 참여 동기를 밝혔다.

#### 8) H 원장

H 원장은 19년째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H 원장은 20년 가까이 영아만 돌보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영아기 부모들에게 부모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세월이 지날수록 더 느낀다고 하였다. H 원장은 최근에

만나는 부모들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H 원장은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원장으로서 최근 부모세대의 특성을 파악하고 부모를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을 좀 더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이 개인적으로도 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 9) I 원장

I 원장은 27년째 현재 재직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I 원장은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생각과 현재 원장으로서 하는 부모교육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으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배우고, 익히고, 나누기 위해 전문적학습공동체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I 원장은 자녀가 영아일 때는 부모교육도 영아처럼 집단이 아닌 개별로 해야 하고 멀리 있는 목표를 가지고 교육하기보다 가까이에서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좋은 것 같다고 하면서 가정어린이집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적합한 부모교육에 대한 생각을 피력하였다.

#### 10) J 원장

J 원장은 13년째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J 원장은 현재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을 공공형과 열린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면서 부모교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많고 좀 더 효과적인 부모교육을 하고자 고민을 하지만 실제로 부모교육을 위한 자료 수집이나 제작에 있어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많다고 하였다. J 원장은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같은 고민을 하는 원장과 학습을 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였고 이를 통해 부모교육 전문

성을 증진하여 원장으로서 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교육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 2. 연구자의 역할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의 성공 요인 중 하나는 역량을 겸비한 리더의 존재이며 리더는 구성원의 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성구진, 김지은, 2022).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의 리더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첫 번째, 공동체의 비전과 목표 설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다. 연구자는 공동체 구성원의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을 구성원들과 함께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의 비전을 세우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 구성원과 함께 부모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파악한 후 해결 방법을 제안하고 찾아나가면서 가정어린이집에서의 부모교육을 위한 공동체 활동의 목표를 설정하도록 지원하였다.

두 번째, 조율자 역할을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가정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원장, 교사, 운전, 행정 등의 과도한 업무와 어린이집의 서로 다른 운영방침으로 인해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각각 도에서 조율이 필요하다. 연구자는 각 구성원의 상황을 파악하여 일정을 계획하고 조정하며 학습할 부분을 제안하고 운영 방향과 일정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구성원을 독려하면서 공동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조율자의 역할을 하였다.

세 번째, 촉진자 역할을 하였다. 촉진자는 공동체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며 구성원 간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Mcdonald et al., 2013/2018).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원장들이 제안한 주제에

대해 공동으로 학습할 부분과 각자가 학습할 부분을 함께 나눈 후, 공동으로 학습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구성원의 발표와 의견을 듣고 각자가 학습한 부분은 각자 발표하고 그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서로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학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집단 학습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학습 차이를 이해하면서 차이를 보완할 기회를 더 보장하거나 구성원 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더라도 존중하면서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원장들이 부모교육에 있어 각자가 제기한 문제와 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지지하면서 함께 해결 방법을 제안하고 찾아가는 협력적인 과정을 통해 서로 신뢰하면서 의미 있는 학습을 하도록 돕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네 번째, 역할 분담으로 리더십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가정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구성된 전문적학습공동체이므로 원장들은 부모교육 관련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있다. 연구자는 공동체 활동 진행 과정에서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습 진행 과정에서의 리더십을 분산하였다. 이때 참여자가 각자가 맡은 부분에서 강점을 드러내는 주도적인 활동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지원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구성원 각자가 보유하고 있었던 전문성을 공유하면서 집단지성을 발휘하며 부모교육 전문성을 증진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되었다.

### 3.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부모교육을 실행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알아보고자 참여를 희망한 원장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가정어린이집 특성을 고려한 부모교육을 위해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의 학습 내용과 방법에 관한 문

현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요구조사와 문헌분석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본 연구를 실행하였다. 이에 따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요구조사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한 원장 11명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요구조사는 가정어린이집의 부모교육을 위해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운영된다면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지 알아보고자 집단면담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집단면담은 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유사한 경험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표현할 수 있어 요구조사를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Glesne, 2016/2017).

요구조사를 위한 집단면담은 2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가정어린이집 각각의 운영 상황과 원장의 개인 사정에 따라 원아들의 낮잠 시간과 일과가 끝난 저녁 시간이 면담을 위한 적절한 시간이라는 원장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두 번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이렇게 정해진 오후와 저녁시간 중에 같은 시간을 선택한 원장들로 집단면담의 구성원이 이루어졌다. 집단면담을 위한 장소는 원장들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원장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지역 중심부에 위치한 세미나실을 대여하였다. 집단면담에는 2023년 1월 27일 오후 1시에 6명, 저녁 6시에 5명으로 모두 11명이 참석하였고 각각 2시간 정도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구하고 집단면담 전 과정을 녹음하였다.

집단면담에 참여한 원장은 모두 2023년 1월 16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실시했던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에 관한 설명회에 참석하여 전문적학습공동체의 개념과 대략적인 운영 과정에

대해 숙지하고 있었다. 요구조사에 참여했던 원장 중 2명은 평가제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다. 요구조사에 참여한 가정어린이집 원장 11명의 일반적인 배경은 표 5와 같다.

<표 5> 요구조사를 위한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2023년 1월 기준)

연구 참여자 (본연구 시 명칭)	연령	학력	전공	가정어린이집 원장 경력	총 보육 경력
가 원장 (A 원장)	47세	석사과정	유아교육학과	4년	13년
나 원장 (B 원장)	39세	석사	보육학과	4년	11년
다 원장 (C 원장)	53세	석사	사회복지학과	10년	18년
라 원장 (D 원장)	55세	전문학사	유아교육학과	2년	4년
마 원장 (E 원장)	54세	학사	아동학과	4년	12년
바 원장 (G 원장)	48세	학사	아동학과	15년	17년
사 원장 (H 원장)	51세	전문학사	아동보육학과	19년	20년
아 원장 (I 원장)	60세	박사수료	아동학과	27년	27년
자 원장 (J 원장)	51세	학사	기타	13년	13년
차 원장 (비참여)	43세	학사	유아교육학과	12년	12년
카 원장 (비참여)	45세	학사	유아교육학과	5년	15년

연구 참여자들은 같은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적인 교류를 통해 어느 정도 참여자들 간의 라포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가정어린이집에서의 부모교육 관련된 경험과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에 대한 기대 등을 공유하고 서로의 생각을 편안하게 주고받기에 적합하였다. 집단면담은 참여자들이 공통된 주제와 관련된 생각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혼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기에 좋은 방법으로 (Bogdan & Biklen, 2007/2015)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요구조사를 위한 집단면담에 사용된 질문은 표 6과 같다.

<표 6> 요구조사에 사용된 질문

질문 영역	질문 내용
전문적학습공동체에 대한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li> <li>▪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방법에 대해 어떤 기대를 하고 있나요?</li> </ul>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의 학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 학습하고 싶은 주제와 그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li> <li>▪ 부모교육 주제와 관련된 학습 외에 가정어린이집의 부모교육을 위해 학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li> </ul>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의 학습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 구성원들과 어떤 방법으로 학습하기를 바라나요?</li> </ul>

이러한 절차로 진행된 집단면담 녹음 자료는 전사하여 A4지 140쪽 분량의 지면 자료로 생성하였다.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에 대한 요구조사를 위한 집단 면담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장들은 부모교육을 주제로 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같은 고민을 하는 원장들이 함께 모여 공부하는 것은 부모교육 전문성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고 부모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면서 영아들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예전에는 형제도 많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도 많아서 주변에서 다른 아이들을 볼 기회가 많았는데 요즘 부모들은 형제도 없는 경우가 많고 자녀의 친구 부모들과도 교류가 없고 회사 갔다가 집에 오는 생활이 계속되니까 비교할 대상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신의 아이밖에 모르고 아이의 발달 상황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아이를 예쁘고 귀하게 대하지만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고 발달이 지연되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공부해서 그

런 아이들에게 적합하면서도 부모가 받아들이기 쉽게 이야기 해줄 수 있는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간절했는데 같은 고민을 하는 원장님들과 공부하는 것이 다른 곳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실질적이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 원장, 2023. 1. 27.)

요즘 부모들이 모든 것을 어린이집에서 다 해주기를 바라면서 그냥 아이를 어린이집에 전적으로 맡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부모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고민만 하고 있는 상황에 지난 주 저희가 부모 만족도 조사를 했거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부모교육에 불만족이 높아서요. 그래서 부모들이 마음속으로 부모교육에 갈급했구나. 직장 다니느라 시간이 없고 방법을 잘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는 부모교육을 많이 받고 싶은 거라는 것을 알고 저는 더욱 더 공동체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공부해서 부모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아 원장, 2023. 1. 27.)

아이들의 발달 과정은 물론이고 발달에서 조금 다르게 나가는 부분까지 알고 있어야 부모들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잘 할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아이를 키웠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러다보면 신뢰도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인 것도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책도 보고 논문도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필요했어요. 원장님들과 만나서 공부를 하면 사례도 많이 알 수 있고 제가 전문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가 원장, 2023. 1. 27.)

원장들은 기성세대와 다른 사고방식의 젊은 세대 부모와 소통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부모들은 부모교육 경험이 부족하고, 부모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원장들은 채용하고 영아의 부모와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그들에게 적합한 부모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을 위한 원장의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모인 전문적학습공동체는 부모교육에 관한 고민을 해

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원장들은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 다루어지기를 바라는 부모교육의 내용으로 아이의 기질과 부모의 기질에 따른 양육법, 안정애착 형성을 위한 육아, 의사소통하는 방법, 감정코칭, 부부 교육, 상담 상황 등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 문제행동 대처, 발달 심리, 엄마들의 심리 등을 희망하였다.

아이들의 기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요즘 부모님들은 TV나 유튜브에 나오는 소아정신과 전문가가 하는 것처럼 저희가 아이들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처를 얘기해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아요. TV에서는 아이들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을 녹화해서 분석하고 방송을 하는 것이니까 저희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은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아이의 기질을 잘 알고 또 부모의 기질도 파악해서 양육할 때 무엇을 좀 더 신경써야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 원장, 2023. 1. 27.)

저는 주말마다 ○○대학원에서 하는 감정코칭 과정을 다니고 있어요. 부모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잘 몰라서 애착형성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애착형성에 관련된 이론적인 배경도 같이 배우고 감정코칭도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기질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데 부모들이 아이들이 표현하는 것을 잘 못 알아차리고 제대로 반응을 못해주면 애착형성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민감하게 아이의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애착형성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돕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요. 지금 제가 하는 과정에서는 그림책도 이용하는데 그 방법도 좋더라고요.

(바 원장, 2023. 1. 27.)

가정어린이집 아이들은 모두 영아이잖아요. 영아들이 보이는 문제행동 중에 무는 행동이 있으면 너무 힘든데 무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고 무는 행동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아이마다 방법이 달라야 하고 집에서도 같이 알려줘야 하는데... 이런 것처럼 영아기 문제행동과 관련된 것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각 원마다 이런 사례들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런 얘기도 나누면서 해결 방법을 다양하게 찾아가면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

을까요?

(차 원장, 2023. 1. 27.)

부모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아이가 떼를 쓸 때인 것 같아요. 아이들 발달 상 보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는 한데 아이들마다 떼를 쓰는 강도는 다 다르잖아요. 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대체로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을 잘 파악하지 못하거나, 아이들의 변화를 부모가 이해하지 못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떼를 쓰는 행동이 더 커지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가 발달이나 기질에 따라 자신의 욕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에게 적합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 해줄 수 있는 내용을 공부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 원장, 2023. 1. 27.)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부모들이 영아가 표현하는 것을 잘 파악하지 못해 적절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면서 영아의 문제행동 대처와 안정애착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부모들 또한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원장이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원장들은 부모가 영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질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해 영아가 부모와 안정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 그와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원장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부모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도 부모교육을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학습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저는 원장님들 스스로가 전문가답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주로 부모들과 일대일로 이야기하면서 부모교육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일반 아주머니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경이 쓰이는데 머릿속에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어설피게 말할 때가 있어서 스스로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쉽지 않기도 하고 공부했다고 해서 적재적소에 잘 표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일단 이론적인 공부를 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연습을 하면 좋겠어요.

(자 원장, 2023. 1. 27.)

저희가 부모교육을 한다고 해서 부모님들을 모시고 강사처럼 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래도 저는 일 년에 한두 번은 강사처럼 주제를 정해 부모들을 모이게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부모교육을 한다고 했고 토요일에 신청하신 어머니 4분과 애착형성에 관해서 부모교육을 했는데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어린이집과 지내다 보니 신뢰도 높아져서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리엔테이션이나 학기 중에 한 번은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힘을 좀 더 키워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라 원장, 2023. 1. 27.)

요즘 대부분이 키즈노트를 사용하잖아요. 키즈노트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모 교육 방법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카드뉴스로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짧은 내용의 부모교육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올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동영상도 올라가니까 동영상으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세대들은 통화보다 카톡으로 소통하는 것이 좋다고 하던데 키즈노트나 인스타그램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보고 그것을 만드는 방법도 같이 배우면 좋겠어요.

(아 원장, 2023. 1. 27.)

이처럼 원장들은 원장 자신이 전문성을 키워 전문가다운 언어 사용과 소통으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므로 공동체를 통해 부모교육 관련 이론을 학습한 후, 학습한 내용을 적절한 언어로 표현하면서 부모를 교육하고 상담하는 방법을 연습하기를 희망하였다. 그리고 학습한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강의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 디지털이 발달한 시대에 맞게 카드뉴스, 동영상, SNS 활용 등에 대해서도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셋째,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주목하면서 공동체에서의 학습 방법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다. 원장들은 우선 부모교육과 관련된 주제의 이론을 재정립하기 위해 관련 도서를 통한 학습이 필요하고 학습한 내용을 내면화하여 적용하는 것에는 내용과 연결되는 다양한 실제 사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저희가 기본적인 이론을 다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교재를 선정해서 각자 공부하고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모임에서 만나서 책을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사 원장, 2023. 1. 27.)

책을 읽다 보면 책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사례도 있잖아요. 원장님들마다 사례가 다르고 대처하는 방법도 다르니까 공부한 것과 연결해서 각자의 사례를 나누면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적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 원장, 2023. 1. 27.)

공부하다가 필요하면 동영상 강의나 아니면 ○○○ 박사가 나오는 육아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접목해서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원장님처럼 강의 경력 있으신 분이 정리해서 강의를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자 원장님만 괜찮다면요.

(카 원장, 2023. 1. 27.)

원장들은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의 학습 방법으로 이론의 재정립을 위한 책 읽기, 관련된 사례를 나누기, 관련된 영상 보기, 강의 듣기 등의 방법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다. 이와 같은 요구조사를 위한 예비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요즘 부모 세대의 특성을 반영해서 적절하게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부모교육이 필요하고 그러한 부모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 원장의 부모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정어린이집 특성을 반영한 부모교육 관련 재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 기관을 찾기가 어렵고 시간이나 비용에 있어서도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부모교육에 관해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원장들이 함께 모여 학습

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가 부모교육 전문성을 신장하기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였고 부모교육을 좀 더 효과적으로 실행하기에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활동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둘째,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현장에서 만나는 부모들과의 경험을 기반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영아의 기질, 애착형성, 감정코칭, 문제행동 대처 방법 등의 이론을 주제로 학습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이론을 학습할 때 원장이 직접 경험하는 사례에 이론을 접목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다. 또한 학습한 이론을 부모교육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통하는 법, 강의하는 법, 디지털 매체를 사용한 전달 방법 등도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숙달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원장들은 공동체 모임에서의 학습을 통해 이론을 재정립하고 학습한 내용을 부모교육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원장들이 제안한 효과적인 학습 방법은 주제와 관련된 도서를 읽고 나누기, 주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 공유하기, 주제와 관련된 영상을 찾아 분석하기, 주제를 정리하는 강의 수강하기이다.

가정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부모교육 실행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에 대한 요구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 시사점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교육 실행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의 학습 내용으로 원장들이 영아의 특성을 파악하고 영아의 특성에 따른 부모 역할에 대해 학습하여 부모를 코칭 할 수 있도록 영아의 기질과 기질에 적합한 양육 방법에 대한 내용을 구성한다. 원장들은 부모가 영아의 마음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못해 영아의 애착형성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고민하면서 부모가 영아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적절하게 반응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를 통해 애착과 안정애착 형성방법 그리고 감성코칭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원장들은 영아들이 보이는 문제 행동은 어린이집과 부모가 같이 일관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영아기의 발달을 이해하고 영아기의 문제 행동 사례를 파악하여 긍정적으로 훈육하는 방법을 내용에 포함한다. 또한 학습한 이론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전자알림장에 사용할 가정통신문 작성법, 카드뉴스 작성법, 동영상 제작, 강의 교안 만드는 법, 강의하는 법 등을 내용에 포함하여 효과적인 전달 기술을 익히도록 진행한다.

셋째,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 부모교육과 관련한 학습을 위해서 관련 도서 중심으로 학습하고 나누기, 학습한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 나누기, 학습과 관련된 영상 분석하기, 강의 수강하기 등의 방법으로 학습을 한다. 이외에도 원장들은 학습한 내용을 부모교육에 실제 적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므로 그에 적합한 학습 방법을 구성원들과 함께 모색한다.

## 2) 문헌연구

본 절에서는 요구조사를 통해 도출된 원장들의 요구가 학문적 근거가 있는지 문헌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학습 내용 선정을 위한 문헌 연구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학습 내용 선정을 위한 문헌연구는 영아, 부모, 영아기 부모교육, 영유아교육기관의 부모교육과 관련된 학위논문, 학술지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문헌분석을 통

해 영아기 부모교육에 적합한 주제와 그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부모교육 방법으로 구분하여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학습 내용을 도출하고 적용하였다. 이에 따른 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7>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학습 내용 선정을 위한 문헌 검토 및 적용점

구분	연구자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적용점
부모가 영아기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한지혜 정희정 (2019)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훈육방식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머니의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요인과 논리적인 설명 요인이 영아의 기본정서 및 사회적 행동에 정적 영향 미침</li> <li>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훈육방식은 자아개념과 자기조절에 정적 영향 미침</li> </ul>	<부모교육 주제> 영아기 발달 긍정훈육
	김은희 정희정 (2019)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원가족 애착경험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버지의 양육참여 증 생활을 지원하는 하위요인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정적 영향 미침</li> <li>아버지가 경험한 자신의 아버지와의 애착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정적 영향 미침</li> </ul>	<부모교육 주제> 영아기 발달 애착이론
	김선영 김희진 (2014)	영아의 기질, 어머니-자녀 간 애착,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간의 관계: 애착의 매개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머니-자녀 간 애착과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능력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li> <li>어머니-자녀 간 애착은 기질,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간의 관계를 매개하여 애착이 안정적인 경우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이 높음</li> </ul>	<부모교육 주제> 기질이론 애착이론 영아기 발달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부모교육 및 요구	정보미 김낙홍 (2016)	영아기 첫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부모교육 경험 및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녀의 출생순위와 연령에 특화된 부모교육 요구</li> <li>효과적인 대화 및 상호작용 교육 요구</li> </ul>	<부모교육 주제> 영아기 발달 상호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아의 성격과 사회성 발달 교육 요구</li> </ul>	
	배지희 황인애 탁옥경 (2007)	영유아기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에 대한 전업주부의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교육방법 요구</li> <li>훈육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제공 및 개별 상담에 대한 높은 요구</li> </ul>	<p>&lt;부모교육 주제&gt; 영아기 발달 긍정훈육</p> <p>&lt;부모교육 방법&gt; 일대일 상담</p>
	정미라 김경숙 이방실 (2013)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지원에 대한 질적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아실현과 육아 병행 지원 희망</li> <li>더 좋은 부모 되기 희망</li> <li>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부모교육을 통해 양육자신감 갖기 희망</li> </ul>	<p>&lt;부모교육 방법&gt;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부모교육</p>
	박선미 (2014)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경험 및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녀의 발달 단계 및 특성에 적합한 부모교육 요구</li> <li>자녀의 기질, 특성에 따라 다른 양육방법 교육을 위한 일대일 서비스 요구</li> </ul>	<p>&lt;부모교육 주제&gt; 영아기 발달 기질이론</p> <p>&lt;부모교육 방법&gt; 일대일 상담</p>
	이명순 고여훈 (2016)	영아부모 양육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부모역량 및 요구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회성이 아닌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 형태 요구</li> <li>기질, 발달촉진, 상호작용 방법 지원 요구</li> </ul>	<p>&lt;부모교육 주제&gt; 영아기 발달 기질이론 상호작용</p> <p>&lt;부모교육 방법&gt; 부모교육 프로그램</p>
	정숙향 정희정 (2020)	SNS 기반 영아기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아기 아버지 대상 교육프로그램 요구</li> <li>프로그램 운영방법은 SNS 활용, 전문가 강연, 훈련프로그램 선호</li> </ul>	<p>&lt;부모교육 방법&gt; 온라인 교육 강의 전자알림장 활용 부모교육 프로그램</p>
영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	김득란 (2008)	영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아의 근육 감각적 경험과 목적적 움직임을 격려하는 방식의 상호작용 프로그램</li> <li>영아의 발달 리듬에 대한 이해와 존중 및 영아모 자신의 스트레스 관리와 돌보기 자세 향상</li> </ul>	<p>&lt;부모교육 주제&gt; 영아기 발달 상호작용</p>
	백승선 안연경 곽경화 (2017)	감정코칭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양육효능감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정코칭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정서표현성에</li> </ul>	<p>&lt;부모교육 주제&gt; 감정코칭</p>

	양육 행동, 정서표현성에 미치는 효과	긍정적 영향 미침	
신혜영 김명순 (2021)	만1세 영아의 맞벌이 부모 동반참여 블렌디드러닝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한 격주제 블렌디드러닝 독립교수모형 사용</li> <li>• 온라인 운영플랫폼세팅 클래스팅 선정</li> </ul>	<부모교육 방법> 온라인 교육 강의
홍나래 방희정 (2018)	양육 민감성과 안정 애착 증진을 위한 애착 기반 부모교육 프로그램 적용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기능적 상호작용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보고한 참여자 집단과 우울 점수를 높게 보고한 참여자 집단에서 양육민감성의 긍정적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li> <li>• 까다로운 기질 점수를 높게 받는 자녀를 양육하는 참여자 집단에서 안정 애착의 변화가 크게 나타남</li> </ul>	<부모교육 주제> 애착이론 기질이론
이정은 (2016)	감정코칭 중심 양육지원 프로그램이 영아기 자녀 어머니의 애착관계와 양육태도에 미치는 사례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애착관계를 돌아보고 자기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경험</li> <li>• 자녀와 남편과의 의사소통기술이 향상되면서 양육효능감이 증진</li> </ul>	<부모교육 주제> 감정코칭 이론
윤지영 한미라 (2021)	앱 기반 가정연계 부모-영아프로그램이 부모와의 상호작용과 영아 발달 증진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아들과 할 수 있는 활동 내용을 담은 영상과 설명을 매주 앱에 탑재하고 부모는 영상을 보고 영아의 요구에 맞춰 영아들과 활동</li> <li>• 활동 후 활동 내용을 앱에 탑재하여 댓글이나 전화상담 통해 질문, 조언, 격려</li> <li>• 월령별 영아발달에 대한 강의 영상 앱에 탑재</li> <li>• 부모-영아의 상호작용에 긍정적 효과</li> <li>• 영아 발달에 긍정적 효과</li> </ul>	<부모교육 주제> 영아기 발달 상호작용  <부모교육 방법> 온라인 교육 전자알림장 활용

표 7에 제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가 영아기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에서 한지혜와 정희정(2019)은 어머니가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과 발달 지원을 하는 능력이 높고, 영아를 훈육할 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영아의 기본 정서와 사회적인 행동 그리고 영아의 자아개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양육에 관한 가치관과 양육 지식인 교육 요인은 영아의 자기조절에 영향을 미치고, 발달지원과 논리적 설명 요인은 영아의 사회적 관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김은희와 정희정(2019)은 아버지가 생활을 지원하는 양육 참여는 영아의 정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경험한 긍정적 애착 경험은 자녀인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에도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김선영과 김희진(2014)은 영아의 기질 중 부적정서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과 부적 상관성이 있고 어머니-자녀의 애착이 높을수록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인 요구 행동의 시도와 반응, 공동주의 시도와 반응, 사회적 상호작용의 반응을 자주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부정적인 정서가 높게 나타나는 영아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이 낮지만, 어머니-자녀 사이에 애착이 높을 경우 애착의 매개효과로 인해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영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부모에게는 양육과 관련된 지식이 필요하고 부모 자신과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애착과 기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애착과 기질은 부모 자신과 자녀의 이해를 돕고 긍정적인 애착형성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의미 있는 부모 교육 학습주제가 될 수 있다.

둘째,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부모교육 요구를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영아기 부모는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따른 부모역할(박선미, 2014; 배지희 등, 2007; 정미라 등, 2013; 정보미, 김낙홍, 2016)과, 훈육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제공(배지희 등, 2007), 자녀의 기질과 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상호작용(박선미, 2014; 이명순, 고여훈, 2016; 정보미, 김낙홍, 2016) 등으로 부모교육 내용을 희망하였다. 또한 영아기 부모가 요구하는 부모교육 방법은 개별 상담, 일대일 교육, 일회성이 아닌 집중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SNS를 활용한 교육(박선미, 2014; 배지희 등, 2007; 정숙향, 정희정, 2020)등으로 보고되었다.

셋째, 영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다룬 연구에서 김득란(2008)은 영아 발달과 돌봄의 중요성, 모아 상호작용과 애착, 기질에 맞는 양육, 균형적인 발달을 위한 월령별 감각, 어머니와 영아의 관계, 발달 리듬에 맞춘 양육, 신체 감각, 언어 자극의 중요성, 장난감 선택과 활용, 양육 스트레스 다루기의 내용으로 영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백승선 등(2017)은 걸음마기 영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감정코칭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감정코칭의 개념, 감정코칭 부모유형, 감정코칭 5단계, 공감의 중요성, 한계설정하기, 감정코칭 5단계 역할극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만 1세 영아의 맞벌이 부모를 대상으로 블렌디드러닝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신혜영과 김명순(2021)은 오프라인 교육과 클래스팅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 방법을 격주로 번갈아 가며 실시하였고 프로그램의 내용은 언어적 상호작용, 놀이를 통한 부모-자녀 상호작용, 반응적 상호작용, 부모 됨과 부모 공동양육을 주제로 하고 학습 과정은 동기유발, 기술훈련, 정보습득, 자기성찰, 생활적용의 5단계 사용하였다. 홍나래와 방희정(2018)은 애착 기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애착-탐색 행동 체계 이해, 자녀의 욕구 파악, 양육자의 어려움 인식, 깨진 애착-탐색 행동 체계, 애착유형과 애착-탐색 행동 체

계, 애착-탐색 행동 체계 균형 회복하기, 정서 타당화, 애착의 세대 간 전이 이해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감정코칭 중심 양육지원 프로그램에서 이정은(2016)은 어머니의 애착유형, 부부 사이 진단, 감정의 이해와 나의 초 감정, 멀어지는 대화 가까워지는 대화, 감정코칭 5단계, 경청과 공감, 정서반영, 칭찬, 훈육하기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윤지영과 한미라(2021)는 앱 기반 가정연계 부모-영아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을 부모-영아 프로그램, 부모교육 프로그램, 교사교육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여 실시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영아 프로그램은 앱을 사용하고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보육 활동을 주제로 동영상 모델링, 실행하기, 함께하기, 돌아보기의 단계로 실행하였고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월령별 영아 발달, 부모-영아가 함께하는 운동, 식단관리에 관한 동영상을 앱에 올리는 방법과 오프라인에서 만나 정보교환과 부모-영아 프로그램에 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집단부모교육을 병행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의 주제로 영아의 발달, 기질, 애착, 상호작용, 감정코칭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부모교육 방법으로 오프라인 외에도 온라인을 이용한 방법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요구조사를 통해 도출된 학습내용의 학문적 근거를 확인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부모교육 실행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시 적용할 학습 내용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학습 내용을 부모교육 주제와 부모교육 방법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통해 선정된 학습 내용을 부모교육 주제와 부모교육 방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학습 내용

부모교육 주제	부모교육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아기 발달과 상호작용</li> <li>• 부모와 영아의 기질에 대한 이해</li> <li>• 부모와 영아의 애착 유형 이해와 안정애착 형성</li> <li>• 긍정훈육</li> <li>• 감성코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대일 상담 위한 의사소통 방법</li> <li>• 전자 알림장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카드뉴스, 동영상 제작법 등)</li> <li>• 온라인 교육을 위한 방법</li> <li>• 효과적인 강의 방법(강의안 제작 등)</li> <li>• 부모교육 프로그램 활용</li> </ul>

[그림 1] 요구조사와 문헌분석을 통해 선정된 전문적학습공동체 학습 내용

이와 같이 문헌분석과 요구조사를 통해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가 희망하는 부모교육 주제와 그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부모교육 방법을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학습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부모교육 주제는 영아기의 전반적인 발달과 그에 따른 올바른 상호작용 방법, 부모 자신과 영아의 기질 이해를 통한 상호작용 방법, 부모 자신의 애착유형 이해를 통해 자신의 양육 태도를 돌아보고 온정적인 양육 태도로 자녀의 안정애착형성 돕는 방법, 긍정적인 훈육과 감성코칭 방법이다.

그리고 부모교육 전달방법으로 선정된 학습 내용은 부모와 일대일 상담을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어린이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 알림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부모들의 상황을 고려한 온라인 교육 방법, 효과적인 강의를 위한 방법, 지속적인 교육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부모교육 방법이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선정된 학습내용은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제안, 논의, 협의를 거쳐 구성원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 내용으로 재선정하였고 구성원들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유연하게 적용되었다.

(2)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학습 방법 선정을 위한 문헌연구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부모교육 실행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학습 방법을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 문헌연구는 영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전문적학습공동체 연구와 원장의 전문적학습공동체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문헌 분석을 통해 부모교육을 실행하기에 적합한 학습 방법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적용점은 표 8과 같다.

<표 8> 전문적학습공동체 학습 방법 선정을 위한 문헌 검토 및 적용점

구분	연구자	연구 제목	학습 방법	적용점
교사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	사영숙 (2017)	수업전문성을 추구하는 영유아교사의 학습공동체 경험 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민나누기</li> <li>• 시범 수업하기</li> <li>• 수업 동영상 시청하기</li> <li>• 부모교육을 위한 독서하기</li> </ul>	강의시연 동영상 분석 도서 읽기
	진다정 (2020)	원내 교사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한 놀이중심 교육의 이해와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놀이중심관련 고민나누기</li> <li>• EBS 놀이 관련 영상 감상 후 토의하기</li> <li>• 독서 후 토의하기</li> <li>• 놀이중심 교육 실천 및 결과 공유하기</li> </ul>	동영상 분석 토론 실천 사례 공유
	이원미 (2021)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무지개어린이집의 교사학습공동체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에 대한 의미와 속성 공유하기</li> <li>• 토의하기</li> <li>• 각 학급의 실내놀이 사례 동영상 공유하기</li> <li>• 비구조적인 놀이감으로 놀아보기</li> <li>• 실천한 사례 공유하기</li> <li>• 놀이의 흐름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하기</li> </ul>	사례 공유 토론 역할극 계획
	이진실 (2020)	보육실습 지도를 위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화 및 협의하기</li> <li>• 사례 및 경험 공유하기</li> </ul>	협의 사례 공유

		배움공동체에 참여한 실습지도교사들의 실천적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브레인스토밍 후 사후 반성적 저널 작성하기</li> </ul>	
	이윤정 (2022)	유아 놀이 중심 과학적 경험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 실행과정과 놀이지원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론하기</li> <li>• 과학적 경험 지원에 관한 사례 공유하기</li> <li>• 고민하는 내용을 주제로 토론하고 피드백하기</li> </ul>	토론 사례공유 피드백
	안유리 (2022)	‘그려유’원외 유아교사 학습공동체 경험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놀이중심교육과정에 대한 각자의 생각 및 어려움 공유하기</li> <li>• 교육 계획 및 평가 방법 공유하기</li> <li>• 효과적인 유아 관찰 방법 및 기록 관련 토론하기</li> <li>• 놀이지원 사례 발표 및 토론하기</li> </ul>	토론 실천 사례 공유 피드백
원장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	권정아 (2021)	어린이집 원장학습공동체 실행과정 및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놀이 상황 동영상 분석하기</li> <li>• 놀이 관찰 및 분석하기</li> <li>• 교사의 상호작용 관찰 및 분석하기</li> <li>• 학부모와 소통하는 방법 공유하기</li> <li>• 실행사례 나누고 협의하기</li> </ul>	동영상 분석 사례 공유 협의
	서은총 (2022)	학습공동체 참여 경험을 통한 어린이집 원장의 변화와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운영 경험을 공유하며 문제를 발견</li> <li>•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하기</li> <li>• 실천하면서 저널 작성하기</li> <li>• 저널을 중심으로 실천과제 수행 공유하기</li> </ul>	사례 공유 협의 실천
	지옥정 김경숙 (2021)	유아교육기관장의 학습공동체 참여 경험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 수업에 관한 논의 및 관련정보 교환하기</li> <li>• 프로젝트 과정 결과 공유와 피드백하기</li> <li>• 주제관련 특강 수강하기</li> </ul>	사례 공유 토론 협의 피드백 강의 수강
	김미란 (2021)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심사 공유 및 논의하기</li> <li>• 학습공동체 관련 논문</li> </ul>	도서 읽기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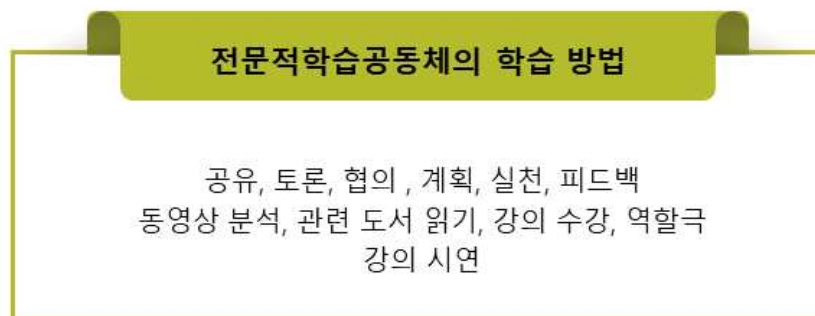
	실행을 위한 학습공동체 참여 원장의 경험과 의미 탐색	읽고 논의하기 • 놀이이해자료 읽고 논의와 협의하기 • 놀이 실행 사례 공유 및 분석하기 • 놀이 관찰 및 지원방안 계획하기	실천 토론 계획
송진영 (2023)	어린이집 원장의 학습공동체 참여 경험과 의미 탐색	• 공동체에서 계획한 내용을 실행하고 실행 내용을 공유하기 • 공유한 내용 평가하고 피드백하기	실천 피드백

전문적학습공동체 학습 방법 선정을 위해 표 8에 제시한 내용을 교사와 원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은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진행하면서 공동체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주제와 관련된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하면서 협의를 통해 학습하고자 하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유리, 2022; 이원미, 2021; 이윤정, 2022; 이진실, 2020). 또한 주제에 대한 학습 방법으로 자신의 수업이나 유아의 놀이 동영상을 공유하고 분석하기(사영숙, 2017; 이원미 2021), 주제와 관련된 동영상을 시청하고 토론하기(진다정, 2020), 주제와 관련된 도서 읽고 토론하기(사영숙 2017; 진다정, 2020), 시범수업하기(사영숙, 2017)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학습을 통해 배운 내용을 교실에서 실천하고 결과를 공유하며 서로 피드백(사영숙, 2017; 안유리, 2022; 이원미, 2021; 이윤정, 2022; 진다정, 2020)을 하는 방법으로 학습공동체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원장들은 기관을 운영하면서 갖게 되는 경험과 관심사를 공유하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문제에 대해 고민을 나누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협의를 통해 공동체에서 학습할 주제를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미란, 2021; 서은총 2022; 송진영, 2023; 지옥정, 김경숙, 2021). 또한 원장들은 공동체 학

습에 도움이 되는 자신 만의 전문적 지식이나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권정아, 2021; 지옥정, 김경숙 2021). 그리고 공동체에서의 학습 방법으로 주제 관련 동영상 분석하기(권정아, 2021), 관련 도서나 논문 읽고 토론하기(김미란, 2021), 주제 관련 특강 수강하기(지옥정, 김경숙 2021), 주제관련 토론하고 협의하기(권정아, 2021; 김미란, 2021; 서은총 2022; 송진영, 2023; 지옥정, 김경숙, 2021)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장들은 학습한 내용을 실천하는 과정을 저널로 작성하였고(서은총, 2022), 기관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행한 후 내용을 공유하고 서로 피드백을 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하였다(권정아, 2021; 김미란, 2021; 서은총 2022; 송진영, 2023; 지옥정, 김경숙, 2021).

교사와 원장의 전문적학습공동체를 다룬 선행연구의 학습방법 분석과 본 연구의 요구조사를 통해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부모교육 실행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에 적용할 학습 방법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선정된 학습 방법은 그림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습 방법을 협의를 통해 결정하였는데, 그림 2에 선정된 학습 방법은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순환되며 사용되었다.



[그림 2] 요구조사와 문헌분석을 통해 선정된 전문적학습공동체 학습 방법

이와 같이 문헌분석과 요구조사를 통해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학습 방법은 사례 공유하기, 토론하기, 협의하기, 계획하고 실천하기, 서로의 실천에 관해 피드백하기, 관련 동영상 시청하고 분석하기, 부모교육 관련 도서 읽기, 강의 수강하기, 역할극 하기, 강의 시연하기이다.

### 3)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운영 계획

요구조사와 문헌분석을 통해 선정된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학습 내용과 학습 방법을 기반으로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부모교육 실행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운영을 계획하였다.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 잠정 결정한 운영 계획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 제시한 시기대로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전체 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가 시작되는 전반기는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성의 필요성과 부모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시기이다. 또한 전반기는 공동체 시작을 위해 가정어린이집의 운영과 부모교육 운영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구성원 간의 친밀감을 형성한다.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의 역할, 공동체 모임의 주기와 시간, 모임 장소 등을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어 공동체에서 어떤 주제를 어떤 방법으로 학습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계획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정된 첫 번째 학습 주제는 일대일 상담을 위한 의사소통방법이다.

둘째, 중반기는 구성원들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학습 내용과 방법으로 학습을 하고, 학습한 내용을 실천하고, 공유하고, 피드백 하는 과정을 순환하면서 지속적으로 학습을 이어가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계획한 부모교육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운영 계획	
학습 내용	학습 방법
<b>전반기</b> 사전모임 2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교육 관련 가치관 공유</li> <li>▪ 구성원 간 래포 형성</li> <li>▪ 구성원 간 역할 논의</li> <li>▪ 부모교육 경험 공유</li> <li>▪ 모임 주기, 시간, 장소 협의</li> <li>▪ 학습내용 선정 과 학습 계획</li> <li>▪ 일대일 상담 위한 의사소통 방법</li> </ul>	경험 공유 토론 협의 및 계획
<b>중반기</b> 3회기 10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질 이해와 기질에 따른 양육방법</li> <li>▪ 애착 이론과 안정애착 형성</li> <li>▪ 영아기 발달과 상호작용</li> <li>▪ 긍정훈육, 감정코칭</li> <li>▪ 전자알림장, 온라인 활용 방법</li> <li>▪ 부모교육 자료 제작 방법</li> </ul>	결과 공유 및 토론 협의 및 계획 실천 및 피드백 도서 읽기 영상 분석 강의 수강 및 역할극
<b>후반기</b> 11회기 12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교육 자료 제작</li> <li>▪ 부모교육 프로그램 활용</li> <li>▪ 효과적인 강의 방법</li> <li>▪ 공동체 운영과정 돌아 보기</li> <li>▪ 공동체의 유지와 종결 협의</li> </ul>	결과 공유 및 토론 협의 및 계획 실천 및 피드백 강의 수강 강의 시연
<b>연구자 역할</b>	공동체의 비전과 목표 설정 지원 역할, 조율자 역할, 촉진자 역할, 리더십 분산의 역할
<b>자료수집</b>	현장일지, 연구일지, 심층면담 자료, 연구 참여자 일지, 학습 산출물

[그림 3]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운영 계획

내용은 기질이론, 애착이론, 감정코칭, 긍정훈육, 영유아기 발달과 상호작용, 전자알림장 활용을 위한 자료 제작 방법, 온라인 프로그램 활용방법, 부모교육 위한 자료 제작 방법이다. 이를 위해 사용할 학습 방법은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기, 협의하여 계획하기, 실천하고 피드백하기, 도서 읽고 발표하기,

관련 영상 분석하기, 역할극, 강의 수강 등이 포함 된다.

셋째, 후반기는 그동안의 학습을 통해 학습한 내용이 축적되고 내면화 되면서 전문성이 증진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계획한 학습 내용은 부모교육 자료 제작 방법과 효과적인 강의 방법이다. 이를 위한 방법은 사례 공유와 토론, 협의 및 계획, 강의 수강, 강의 수강, 강의 시연실천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 받는 순 회기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원 각자가 원하는 강의안을 구성하고 직접 강의를 시연하는 것이다. 강의 시연 후 구성원은 강의에 대해 피드백을 하고 각자가 제작한 강의안을 공유한다. 또한 공동체의 운영 과정을 돌아보고 공동체 모임을 종결을 할지 유지를 할지에 대해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시기이다.

이와 같은 운영 과정 계획은 잠정적인 것이지만 본 연구의 전문적학습공동체 실행에 기초가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적학습공동체는 구성원 간의 의견과 협의를 바탕으로 학습 내용과 방법 등을 결정하고 실행하면서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운영 과정 계획의 일부는 제외되기도 하고 일부는 새롭게 생성되기도 하면서 본 연구의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운영되었다.

#### 4)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과정

본 연구는 2023년 6월 8일 연구 참여자 10명과 사전모임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사전모임에서는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가치관을 공유하고 구성원과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 내용은 모임 주기와 시간, 모임 장소, 1회기에 시작할 학습 주제와 방법, 공동체 이름이다.

사전모임에서 결정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모임의 주기는 기본 2주 1회, 시간은 일과를 마친 후 저녁 6시에서 9시까지, 장소는 구성원 모두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한 세미나실, 1회기의 학습 주제는 기질로 결정하였다. 학습 방법은 협의를 거쳐 선정한 기질 관련 도서를 1회기 모임 전에 각자 맡은 분량을 학습한 후 발표하기, 추후 학습할 내용은 학습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서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동체 이름은 아이를 알고 나를 알면 편안하다는 의미로 지피지기(知彼知己) 안(安) 부모교육 공동체로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모임을 통해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피지기 안(安) 부모교육 공동체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운영 방식은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수정 보완 하면서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기간은 2023년 6월 8일 사전모임을 한 후 2023년 6월 22일부터 2023년 11월 24일까지 16회기로 이루어졌다. 모임의 주기는 사전 모임에서 2주 1회로 결정하였으나 학습의 진행 상황이나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처하게 되는 행사 등의 상황에 따라 협의를 통해 1주 1회, 3주 1회로 변경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였다.

총 16회기로 진행한 본 연구의 운영 과정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학습 내용 및 방법은 표 9와 같다.

<표 9> 지피지기 안(安) 부모교육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과정

회기	날짜	학습 내용 및 방법
사전 모임	23/06/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관한 가치관 공유</li> <li>• 공동체 구성원의 역할 토론</li> <li>• 모임의 주기와 시간, 장소, 공동체 이름 협의 및 결정</li> <li>• 학습주제와 방법 협의 결정: 기질</li> <li>• 1회기 내용 계획</li> </ul>
1회기	23/06/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은정(2019). 『육아고민 기질육아가 답이다』</li> <li>• 기질 관련 도서 읽고 내용 공유</li> <li>• 기질과 관련 사례 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회기 내용 계획</li> </ul>
2회기	23/07/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질 관련 도서 읽고 내용 공유와 토론</li> <li>• 기질 관련 사례 분석</li> <li>• 기질 관련 영상 시청 후 토론</li> <li>• 3회기 내용 계획</li> </ul>
3회기	23/07/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질 검사 공유</li> <li>• 기질 맞춤 육아코칭 도서 읽고 공유와 토론</li> <li>• 4회기 내용 계획</li> </ul>
4회기	23/0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질 관련 부모교육 자료 선정과 공유</li> <li>• 전자알림장에 올릴 부모교육 자료 제작</li> <li>• 자료 제작 역량 있는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 지원</li> <li>• 온라인 플랫폼 이용 지원</li> <li>• 5회기 내용 계획</li> </ul>
5회기	23/08/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의안 제작 위한 관련 콘텐츠 공유</li> <li>• 기질 관련 강의안 제작 위한 토론과 협의</li> <li>•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강의안 제작</li> <li>• 6회기 내용 계획</li> </ul>
6회기	23/08/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질 관련 부모교육 적용 사례 공유</li> <li>• 여성가족부 제공 영아기 자녀 부모교육 정보 공유</li> <li>• 양육태도 구성원 자체 검사, 결과 분석</li> <li>• 양육태도, 애착 개념 관련 강의 수강</li> <li>• 애착 관련 도서 함께 읽고 토론</li> <li>• 이보연(2019). 『애착육아의 기적』</li> <li>• 7회기 내용 계획</li> </ul>
7회기	23/08/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애착 관련 도서 읽고 공유</li> <li>• 애착 관련 사례와 적절한 양육법 공유와 토론</li> <li>• 부모교육 자료 제작 기질 복습 강의 수강</li> <li>• 8회기 내용 계획</li> </ul>
8회기	23/09/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소통 강의 수강</li> <li>• 의사소통 관련 영상 분석</li> <li>• 의사소통 관련 사례 공유와 토론</li> <li>• 4회기 부모교육 자료 제작 협의</li> <li>• 9회기 내용 계획</li> </ul>
9회기	23/09/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성애, 조벽, 존 가트먼(2020). 『내 아이를 위한 감정코칭』</li> <li>• 감정코칭 관련 도서 읽고 공유와 토론</li> <li>• 기질 관련 오디오 영상 확인과 협의</li> <li>• 4회기 영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 구성 협의</li> <li>• 프로그램의 명칭 협의, ‘지피지기 安 육아’</li> <li>• 10회기 내용 계획</li> </ul>
10회기	23/09/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정코칭 관련 도서 읽고 공유와 토론</li> <li>• 감정코칭과 관련 사례 공유</li> <li>• ‘지피지기 安 육아’ 프로그램 강의안 공유, 토론, 협의</li> <li>• 11회기 내용 계획</li> </ul>
11회기	23/1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피지기 安 육아’ 프로그램 공유, 토론, 협의</li> <li>• 완성된 오디오 영상 활용 방법 협의</li> <li>• 12회기 내용 계획</li> </ul>

12회기	23/1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피지기 安 육아’ 프로그램 1회기 강의 시연</li> <li>• 강의 관련 기기 사용 방법</li> <li>• ‘지피지기 安 육아’ 프로그램 수정 방법 공유</li> <li>• 시강 후 내용 전달 관련 피드백</li> <li>• 효과적인 강의 방법 토론</li> <li>• 13회기 내용 계획</li> </ul>
13회기	23/1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피지기 安 육아’ 프로그램 2회기 강의 시연</li> <li>• 강의 관련 기기 사용 방법 공유</li> <li>• 시강 후 내용 전달 관련 피드백</li> <li>• 효과적인 강의 방법 토론</li> <li>• 14회기 내용 계획</li> </ul>
14회기	23/1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피지기 安 육아’ 프로그램 실행 사례 공유</li> <li>• ‘지피지기 安 육아’ 프로그램 3회기 강의 시연</li> <li>• 시강 후 내용 전달 관련 피드백</li> <li>• 15회기 내용 계획</li> </ul>
15회기	23/1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피지기 安 육아’ 프로그램 실행 사례 공유</li> <li>• ‘지피지기 安 육아’ 프로그램 4회기 강의 시연</li> <li>• 시강 후 내용 전달 관련 피드백</li> <li>• 16회기 내용 계획</li> </ul>
16회기	23/1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피지기 安 육아’ 프로그램 진행 경험 공유</li> <li>• 슬기로운 부모교육 공동체 종결 및 유지에 관한 협의 및 계획</li> </ul>

본 연구의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학습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습 내용에서 학습 주제로 기질, 양육 태도, 애착, 의사소통, 감성코칭 방법을 선택하였으며, 학습한 주제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카드뉴스 제작, 오디오 영상 제작, 강의안 제작, 자료 제작 위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에 대해 학습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부모교육으로 전달하기 위해 강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회성으로 끝내는 교육보다 다회기로 만드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구성원의 의견에 따라 구성원들은 협력하여 4회기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모교육을 실행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학습 방법은 구성원 간의 사례와 경험 공유, 제안, 논의, 협의, 계획, 실행, 반성으로 순환하는 모습을 보였고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도서 읽기, 영상 분석하기, 강의 수강, 역할극, 강의 시연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 4. 자료 수집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운영 과정과 부모교육 실행을 위한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자료는 연구자가 전문적학습공동체에 참여하여 기록한 현장일지와 연구일지, 참여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 그리고 연구 참여자 일지와 부모교육 실행을 위해 만들어진 학습 산출물이며 이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현장일지와 연구일지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연구 장소에서 연구 참여자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현장의 흐름을 경험하면서 의식적으로 연구 현장 상황의 많은 측면을 자세하게 탐색하는 것이다(Glesne, 2016/2017). 참여관찰에서 참여의 정도는 완전한 참여자로서 연구 집단의 구성원이 되어 몰입하는 수준에서부터 연구 현장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관찰만 하는 수준을 모두 포함하는 연속체의 개념이며 연구자는 이러한 양극의 사이에서 다양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게 된다(Patton, 2015/2017).

연구자는 참여의 연속체에서 균형이 맞는 지점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가 진행되면서 균형을 변화시키는 것도 때로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Hatch, 2008/2002). 따라서 본 연구자는 지피지기 안(安) 부모교육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과정 전반부에는 모임을 원활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완전한 참여자 역할에 비중을 두었으며, 운영 과정의 중반부와 후반부에서는 참여자의 학습과정과 역량을 파악하여 참여자에게 적절하게 리더십을 분산하면서 점차 연구 현장의 가장자리에서 관찰에 비중

을 두며 참여관찰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현장일지와 연구일지를 작성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현장일지는 연구 현장 상황에 있는 동안 관찰한 것을 현장에서 현장노트에 기록하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처음 기록을 채워 넣는 과정을 통해 연구 관찰 기록으로 변환된다(Hatch, 2008/2002). 연구자는 전문적학습공동체 모임에서 논의된 내용과 참여자의 행동과 태도 등을 현장약기로 기록하면서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협의 내용과 진행 과정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현장일지에 담았다. 또한 정확한 연구 관찰 기록으로 변환하기 위해 연구자의 기억을 돕고자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모임과정을 녹음하였다.

녹음자료는 음성을 문자로 변환 해주는 네이버 클로바노트 앱을 이용하여 문서 파일로 변환하였고 변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문서와 음성 녹음 자료를 교차 검토하였다. 교차 검토하면서 참석자와 참석자의 음성이 부합하도록 정리하고 문장이나 단어에서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연구자가 음성 녹음 자료를 반복해 들으면서 본래의 문장이나 단어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회기마다 평균 2시간 정도의 녹음자료가 수집되었고 이를 한글 문서 자료로 변환하였을 때 평균 80쪽 정도 분량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연구일지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자가 경험하는 정서를 기록하고 반성적인 성찰과 연구의 맥락 그리고 연구 과정에 자리 잡은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는 것으로 더 많은 질문이나 새로운 전략을 이끌어 낼 수 있게 한다(Glesne, 2016/2017). 연구자는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운영 과정의 매 회기마다 구성원들로부터 받은 인상, 회기 진행 시 부족했던 부분, 전체 과정을 짚어 보면 고민되는 부분, 연구자의 선입견이나 편견이 작용되는지에 대한 점검 등의 내용으로 연구일지를 작성하였다.

## 2) 심층 면담 자료

본 연구의 심층 면담은 연구참여자 모두가 참여하여 개별면담과 집단면담으로 이루어졌으며 개별면담 2회, 집단면담 2회로 총 22회 진행하였다. 1차 개별면담은 8월 2주와 3주에, 2차 개별면담은 11월 2주와 3주에 실시하였다.

개별면담은 각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과 참여자 개인 상황을 반영하여 영아들의 낮잠 시간, 하원이 이루어진 오후나 저녁 시간 중에 참여자가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하였다. 개별면담의 내용은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운영 과정에서의 경험과 개인적인 요구 등을 알아보기 위해 반 구조화된 질문과 개방형 질문을 혼용하여 사용하면서 4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개별면담은 연구자가 관찰한 행동과 상황에 대하여 참여자의 관점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관찰되지 않았던 상황이나 경험에 대해서도 알 수 있으며 현장에서 수집한 인공물 데이터의 중요성과 의미를 알려주기도 한다(Hatch, 2002/2016).

집단면담은 지피지기 안(安) 부모교육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시작된 6월 8일에 1차 집단면담, 공동체 운영의 마무리 시점인 11월 24일에 2차 집단면담을 진행하였다. 집단면담은 참여자들이 공통된 주제로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을 촉진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Bogdan & Biklen, 2007/2015),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공동체 모임이 있는 장소에서 학습을 마친 후에 실시하기를 희망하는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모임 장소인 세미나실에서 1시간 정도로 집단면담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개별면담과 집단면담은 사전에 모든 참여자의 동의를

언어 녹음했다. 녹음자료는 면담 후 1~2일 이내에 네이버 클로바노트를 사용하여 문서 파일로 변환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참여자들과의 면담 내용은 표 10과 같다.

<표 10>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 내용

면담		시기	면담 내용
개별 면담	1차	2023년 8월 2주 8월 3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체에서 이루어진 학습 내용과 방법에 관한 경험</li> <li>공동체에서의 학습이 본인에게 주는 의미</li> <li>모임 안에서 경험하는 구성원과의 관계</li> <li>공동체 모임에서 보완되기를 바라는 부분</li> </ul>
	2차	2023년 11월 2주 11월 3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체 모임 시작에서 지금까지 경험한 변화</li> <li>학습한 내용을 부모교육에 실행한 사례</li> <li>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의 의미</li> </ul>
집단 면담	1차	2023년 6월 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어린이집에서의 부모교육 운영 경험</li> <li>부모교육을 위한 학습이 필요한 이유</li> <li>공동체 모임에서의 구성원의 역할</li> <li>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에 관한 기대</li> </ul>
	2차	2023년 11월 2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의 의미</li> <li>지피지기 安 육아 부모교육 실행 경험</li> <li>어린이집 부모교육 실행의 변화</li> <li>공동체의 종결과 유지에 관한 생각</li> </ul>

### 3) 연구 참여자 일지

연구 참여자의 일지는 참여자가 자신이 편한 시간에 기록할 수 있다는 점과 연구자가 참여자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개인면담이나 집단면담 등의 다른 자료 수집 방법에서 연구자가 간과한 것이 연구 참여자 일지에 나타날 경우 연구자는 자료 수집 방법의 내용을 조정하며 자료 수집의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Hatch, 2002/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에게 일지를 배부하여 연구 참여자 일지 작성을 부탁하였다.

참여자 일지 작성 여부와 작성 분량은 참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기로

하였고 참여자들은 흔쾌히 작성에 동참하였다. 이러한 절차로 최종 7명의 참여자가 연구 참여자 일지를 작성하였고, 1인당 평균 작성 분량은 B5 용지 크기 노트에 10쪽 정도이다. 연구 참여자 일지에는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서 배운 점, 전문적학습공동체 진행과정에서 느낀 점,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서 배운 것을 부모교육에 적용하면서 느낀 점, 공동체 모임과 관련하여 자유로운 생각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 4) 학습 산출물

연구 참여자들의 전문적학습공동체 참여 경험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회기별 계획안, 부모교육 가정통신문, 부모교육 참여 신청서 등의 문서, 기질검사 분석 자료, 양육 태도 분석 자료, 학습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제작한 녹음 영상, 부모교육 내용을 전달하거나 부모교육을 신청하도록 제작한 카드 뉴스, 강의안, SNS 공유물 및 대화 등의 학습 산출물을 수집하였다.

### 5.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연구자가 전문적학습공동체에 참여를 시작하면서 자료를 수집한 시점부터 Hatch(2002/2016)가 제시한 유형적 분석을 참고하여 진행하였다. 유형적 분석은 연구자가 본 연구를 설계하면서 가졌던 주제를 분석할 유형으로 결정하고 결정된 유형을 기준으로 수집된 자료를 범주로 구분하면서 시작된다. 유형적 분석을 참고하여 실시한 본 연구의 자료 분석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가 본 연구를 설계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주제는 ‘부모교육

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과정’ 과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한 부모 교육 실행의 변화’ 이며 두 가지의 주제를 초기 분석 유형으로 확인하였다. 확인된 두 가지 분석 유형에 근거하여 수집한 자료를 반복하여 읽었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의 분석 유형 중 해당 유형을 나타내는 부분을 각각 다른 색으로 표시하였고 그 내용을 발췌하여 다른 문서 틀에 구분해서 기록하였다.

둘째, 발췌하여 기록된 내용을 다시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주제어를 탐색하였고, 두 가지 분석 유형 안에서 주제어와 주제어 사이의 패턴과 관계를 분석하면서 분류하였다. 그리고 분석 유형에 포함된다고 표시한 주제어들을 수집된 원 자료로 돌아가서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어가 범주에 부합한지를 판단했다.

셋째, 범주에 포함된 주제어들의 관계를 다시 분석하면서 주제어들이 범주에 부합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위 범주로 통합하거나 재조직하였다. 넷째, 이런 절차로 정해진 범주를 한 문장으로 기술하고 그 문장을 지지하는 사례들을 선택하여 발췌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자료 분석 과정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자료 분석 과정

## 6. 연구의 신뢰성 확보 방안

질적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말, 사고, 기술은 그 자체로는 본질적으로 의미가 없으나 연구자가 분석과 해석을 통해 그것들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다(Glesne, 2016/2017). 이런 과정에서 연구자의 개인적 해석이 포함될 수 밖에 없으므로 연구의 신뢰성에 대한 질문을 반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해석이 옳은 것인지에 관해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다음과 같이 연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다각적으로 수집한 자료는 그렇지 않은 자료보다 연구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더 충분한 이해를 제공해준다(Bogdan & Biklen, 2007/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과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자료로 현장일지와 연구일지, 심층면담 녹음 자료, 심층면담 전사 자료, 연구 참여자 일지 그리고 문서, 시청각 자료 등의 학습 산출물을 수집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하면서 다각적인 분석과 해석으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Patton(2015/2017)은 연구에 기술된 내용을 연구 참여자가 확인하는 과정이 생략된다면 연구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참여자의 말이 나타나는 연구 결과 보고서의 초안을 참여자에게 보여주는 참여자 확인을 통해 참여자의 반응을 파악하고 유용하게 해석했는지, 다른 제안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논문 과정에서 연구자의 지도교수, 부모교육 전문가 1명, 박사과정 동료 1명에게 분석 및 해석, 결과를 공유하여 조언을 구하면서 연구의 결과와 분석 사이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나 편향적인 부분을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는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가정어린이집의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를 구성하고 운영을 해나가는 과정과 그에 따른 부모교육 실행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 문제에 따른 결과 및 해석은 다음과 같다.

### 1.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과정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부모교육 실행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운영 과정은 적응기, 집중기, 발전기, 결실기, 종결 및 유지기로 이어졌다. 적응기에 원장들은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관한 고민이 있었지만 모임의 경험을 통해 친밀감과 유대감을 느끼며 적응하였다. 공동체에 적응한 원장들은 부모교육을 위한 학습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집중기에는 학습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해보고 그 사례를 공유하고 논의하면서 더욱 학습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학습한 내용을 부모교육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도 하였다. 발전기에는 집중기를 거치면서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다른 주제의 학습을 이어가면서 학습한 내용을 4회기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기로 협의하고 관련된 준비를 하며 부모교육자로서 전문성을 발전시켜 나갔다. 발전기에 개발된 프로그램의 명칭은 지피지기 안(安) 육아이다. 결실기에는 발전기에 구성한 지피지기 안(安) 육아 프로그램을 실행하고자 강의 시연을 하고 프로그램 내용을 숙지한 후 각 어린이집에서 4회기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결실을 맺었다. 마지막으로 종결 및 유지기에는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공동체 모임의 종결과 유지에 대해 협의를 한 시기로, 다른 주제의 부모교육 학습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구성원 모두 공동체 모임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 1) 적응기: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유대감 형성하기

원장들은 사전 모임을 통해 학습할 내용과 방법을 협의하고 계획하여 공동체 모임을 시작했지만 막상 1회기가 진행되면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혼란을 느끼기도 하였다. 그러나 1회기 2회기 모임을 거치면서 원장들은 그러한 고민이 혼자만의 고민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서로를 지지하고 협력하며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가치를 다시 인식하면서 적응을 시작하였다. 또한 원장들은 학습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상황이 많아지면서 친밀감과 유대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다.

제가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사실 시간이 부족하니까 마음같이 잘 되지가 않고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하는 것 같아 처음에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다른 분들 보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걸까?, 도움이 되는 걸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공동체 시작 전에 식사할 때 원장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D 원장, 1차 개별면담, 2023. 8. 9.)

원장님들이 너무 열정적이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 나누시다 보면 9시 넘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아이들 데리러 먼저 나가야 하다 보니 다른 원장님들께 피해가 될까 봐 걱정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잘하고 싶고 노력하고 싶은데 온전히 시간을 쏟을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속상해요.

(B 원장, 1차 개별면담, 2023. 8. 8.)

지피지기 안(安) 부모교육 공동체 1회기는 기질 학습을 위해 선정된 교재 안에서 공동으로 학습한 부분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정리하는 방식과 각자가 학습했던 부분에 관한 발표를 통해 학습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원장들의 발표는 책을 보면서 표시한 부분을 발표하거나, 따로 요약한 자료를 이용해 발표하거나, 다른 자료를 이용하여 공부한 것을 비교하면서 발표하는 등으로 정해진 형식 없이 이루어졌다. 원장들은 이와 같은 구성원들의 발표를 보고 듣는 과정에서 구성원보다 자신이 준비가 덜 된 것 같다는 생각으로 미안한 감정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일부 원장들은 공동체 모임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개인적인 상황으로 먼저 나와야 하는 부분이나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으로 모임에 늦거나 참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으로 걱정하고 있었고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과는 달리 온전히 집중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에 속상함을 표현하고 있었다.

가정어린이집은 원장이 담임교사를 겸직하거나 조리사, 사무원, 통학버스 기사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지영, 김현주, 2016). 원장들은 이 같이 과도한 업무 속에서도 부모교육을 위해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은 구성원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원장들은 각자의 책임을 다 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서로 인정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공동체 모임에 적응해나갔다.

E 원장: 오후에 갑자기 상담이 와서 상담 하다 보니 늦어졌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공부하고 싶은데 평일에는 도저히 시간 내기가 어려워요. 제대로 하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J 원장: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그래도 같이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저도 주말에 공부했는데 솔직히 오늘 원장님들 이야기하는 부분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례가 있고 이렇게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분명히 읽은 부분이 맞는데.

I 원장: 우리 모두 똑같아요. 그래도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 원장님이 얘기해주

시니까 이해되고 또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에 대해 원장님(연구자)이 부연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되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콩나물 자라듯이 자라겠지요. 서로 부담 갖지 말자고요.

D 원장: 맞아요. 기질에 대해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책을 보니까 좋은데 생각보다 내용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원장님들이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내가 읽은 거 하고 원장님들이 얘기해 주는 것이 같이 맞물려 가면서 더 이해가 쉬워져서 재미있어요.

(1회기 참여관찰, 2023. 6. 22.)

이처럼 1회기를 마치면서 원장들은 공동체 모임을 위한 학습 준비 경험과 실제로 1회기에 함께 했던 학습에서 느낀 점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였다. 구성원들은 사전모임에서, 기질을 학습하기 위한 도서는 이해하기 쉽고 구체적인 사례가 포함되어 있기를 바라며 연구자가 선정해주기를 요청하였다. 연구자는 구성원의 요청을 반영하여 기질을 다룬 일반 단행본 도서 4권을 검토한 후 구성원들에게 선택하도록 하였다. 구성원들은 논의를 통해 최은정(2022)의 『육아고민? 기질육아가 답이다!』를 기질 학습 도서로 선정하였다. 이 교재에는 기질의 9가지 요소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과 사례가 나와 있고 9가지 요소를 조합하여 결정한 4가지 기질 유형을 소개하면서 4가지 기질 유형의 이해를 돕는 사례도 나와 있다. 4가지의 기질 유형은 원장들이 평소 알고 있던 3가지 유형의 순한, 느린, 까다로운 기질보다 좀 더 세분화되어 순응성, 억제성, 지속성, 민감성 기질로 명칭을 달리하고 있다. 원장들은 교재를 통해 기질을 이루는 9가지 요소와 기질 유형에 관해 학습한 부분을 자신의 사례에 접목하고 논의하면서 서로의 이해를 도왔다.

이 책에 있는 사례에서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싶다고 해서 놀이터에 갔는데 모르는 친구가 많이 있으니, 아이가 가만히 있다가 울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아이가 도대체 왜 우는지 몰랐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우는 이유가 놀고 싶은 욕구는 강한테 접근성이 약해서 스스로 낮은 친구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니까 결국 욕구가 좌절돼 운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관찰할 때 욕구와 기질을 함께 잘 살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엄마

가 꼭 저 같은 거예요. 저는 민감성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사례에 나오는 엄마 처럼 저는 제 아이들의 마음을 놓쳤던 부분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아이들이 진짜로 분기 별로 한 번씩 대성통곡하면서 엄마는 나를 이해 못한다고 얘기한 적이 많아서... 저는 이 부분이 가슴 아프게 다가왔어요.

(F 원장, 2회기 참여관찰, 2023. 7. 6.)

C 원장: 저는 자극 민감성, 반응 강도 이런 단어들이 기질을 공부하면서 나오니까 읽으면서도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A 원장: 저는 자극민감성에서 시각적 자극 이야기 하니까 생각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평상시에도 예민한 아이예요. 그런데 하원할 때 신발을 신고 앉아서 갑자기 크게 우는 거예요. 앞 뒤 상황을 봐도 이유를 알 수가 없었는데 아이가 계속 신발을 보고 있어서 살펴보니깐 한 쪽 신발에 리본이 비뚤어져 있어서 리본을 예쁘게 해줄까? 하고 바르게 해주었더니 울음을 그치고 가더라고요. 그 아이는 시각적인 민감성이 높았던 것 같고 크게 울면서 표현한 걸 보니 반응 강도가 센 것 아닐까요?

C 원장: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저희 원에 어디선가 음악이 들리면 아이가 벌떡 일어나 춤을 추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럼 이 아이는 소리에 예민한 걸까요?

연구자: 그 아이가 다른 소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유독 음악소리에 반응한다면 음악과 관련한 청각적 자극에 민감한 것으로 보이고 아이의 생활 경험에서 음악과 연결된 부분이 많았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겠지요.

(1회기 참여관찰, 2023. 6. 22.)

원장들은 기질에 대해 공부하면서 자신의 기질과 자녀의 기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자신과 자녀의 기질이 서로 맞지 않았던 개인적인 사례와 그로 인해 생기는 부모로서의 반성을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상황을 통해 동질감과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같은 가정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채용하고 있는 영아들의 사례와 운영 전반을 공유하며 고민을 나누는 과정에서 치유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혼자 운영하고 혼자 고민하던 원장들이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같은 생각을 하는 원장들과 만나 함께 공부하고 공동의 관심사로 마음을 열고 나눈 이야기에 공감

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부모교육에 대해 따로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이 참 좋아요. 기질 공부하는데 기대했던 것 보다 세밀하게 자세하게 해나가는 것에 저는 너무 만족했어요. 그래서 목요일이 기다려져요. 그리고 기질을 배우다 보니 조금 특별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는지 원장님들과 서로 얘기하는 것들도 너무 도움이 되고 좋아요.

(J 원장, 1차 개별면담, 2023. 8. 7.)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하고도 잘 지내지만 외로운 건 있잖아요. 그런데 공동체 모임에서는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우린 서로 공감하잖아요.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되고 원장님들이 뭐든 편하게 알려줘서 고맙고 너무 감사해요.

(D 원장, 1차 개별면담, 2023. 8. 9.)

저는 여기 와서 공부하는 게 힐링이거든요. 그런데 힐링하면서도 원아가 생각나요. 아까 말씀드린 그 아이요. 그 아이가 잘 놀면서도 신나게 놀지는 않아요. 활동성이 내향적인 거겠죠. 그런데 다른 곳을 보면서 잘 놀다가도 저만 일어나면 제가 어디 가는지 자동으로 저를 주시해요. 기질 공부를 하니까 자꾸 기질 요소가 생각나면서 유독 그 아이랑 접목이 되면서 재미있어요.

(A 원장, 2회기 참여관찰, 2023. 7. 6.)

원장들은 지피지기 안 부모교육 공동체 모임의 1회기 2회기에 기질을 주제로 함께 학습하면서 학습한 내용을 재원하고 있는 원아들에게 자연스럽게 적용하며 관찰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즐거움을 표현하였다. 또한 부모 상담을 하면서 기질과 양육방법에 대해 코칭을 한 후 달라진 원아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있었다. 이처럼 학습한 내용을 적용해보고 앞으로 공동체의 나아갈 길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원장들은 부모교육에 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관한 가치와 부모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었다.

저희 어린이집에 얼마 전에 새로 온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적응과정 때 캥거루처럼 엄마 품을 떠나지 않더니 적응하고 나서는 제 품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움직여도 강하게 우는데 그런 현상이 너무 오래가서 지난주에 부모 상담을 했어요. 상담하면서 엄마에게 아이가 뭔가 요구했을 때 바로 들어주시냐고 물어보았더니 아빠랑 같이 오셨는데 두 분 다 아이의 버릇을 들이기 위해서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기질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기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중략...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그 다음 날부터 이 아이가 등원할 때 울지 않고 기분 좋게 등원하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하루 사이에 확 달라진 모습이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자기 기질이 있으니깐 중간 중간 불편함이 있으면 울음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저도 아이가 저를 의지하니까 그럴 때 마다 아이에게 다가가서 안정감을 주려고 노력해요. 정말 부모가 아이에 대해 잘 알고 양육을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D 원장, 2회기 참여관찰, 2023. 7. 6.)

연구자: 그럼 원장님들의 의견대로 지금 우리가 기질 공부한 것 중에 어떤 내용을 부모에게 전달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고 싶은지도 생각해보시고 다음 회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F 원장: 큰 그림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 뿌듯합니다.

H 원장: 진짜 우리가 귀한 일을 합니다.

(2회기 참여관찰, 2023. 7. 6.)

원장들은 다양한 업무로 힘든 상황이지만 부모교육을 잘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에 참여하여 학습을 시작했다. 원장들은 공동체 모임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서로 인정하고 지지하며 공동체 모임에 적응하였다. 또한 공동체 모임에서 같은 생각을 하는 원장들이 함께 모여 공동의 주제로 고민을 나누고 어린이집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면서 유대감과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유대감과 친밀감은 학습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났는데, 원장들은 부모로서 자신의 육아과정을 반성하면서 서로 공감하고 원장로서는 학습한 내용을 어린이집에 적용해본 경험을 공유하면서 부모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며 부모교육의 가치와 비전을 다시 한 번 공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적응기를 보낸 원장들은 지피지기 안(安)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학습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 2) 집중기: 함께 이론을 탐구하고 사례를 분석하기

원장들은 공동체 모임에서 기질에 대해 심층 학습을 한 후 어린이집으로 돌아가면 기질 요소를 하나하나 영아에게 대입해보면서 영아들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게 된다는 유사한 사례들을 공유하였다. 이처럼 기질 요소를 영아에게 대입하다 보면 궁금한 점이 생기는 데 그럴 때 마다 책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꾸 찾아보게 되고 공동체 모임에 오면 그 부분을 주제로 구성원과 논의하면서 원장들은 학습에 더욱 집중하게 된다고 했다. 그리고 원장들은 교재에 실린 기질 검사 도구로 재원하고 있는 영아들을 검사하고 결과를 분석해보면서 기질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더욱 깊이 알게 되었다 원장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부모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부모교육 방법에 대해 고민하였다. 또한 영아와 부모의 기질조화적합성을 돕기 위한 주제로 양육 태도, 애착 형성 방법, 의사소통 방법, 훈육 방법을 기질에 이은 학습으로 결정하고 학습하면서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J 원장: 이 아이는 시각적 민감성이 높은 것 같아요. 밥을 너무 안 먹어서 제가 밥을 동그랗게 뭉쳐서 몇 번 시도하다가 먹인 적이 있는데 그 때부터 동그랗게 뭉친 밥만 먹어요. 밥 안에 카레가 들어가도 괜찮고 다른 반찬이 들어가도 괜찮은 걸 보면 미각은 예민하지 않은데 한 번 살펴보고 동그란 모양이 아니면 안 먹어요. 사실 자폐아의 특성을 보이는 건지 걱정이 돼서 검색도 해보면서 살펴보고는 있는데 자기 혼자 미끄럼 타고 놀고 처음 보는 거 있어도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놀기는 해요.

B 원장: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친구가 와서 때리면 어떤 반응을 보여요?

J 원장: 그렇게 친구가 와서 방해하거나 때리면 우는데 그 반응 강도가 세지는 않지만 길게 울어요.

B 원장: 제가 왜 여쭙봤냐면 저희 어린이집에 재작년쯤에 있던 아이가 교사가 불러도 보지도 않고, 눈도 안 마주치고, 혼자 조용히 놀고, 먹이면 그냥 받아먹고 그리고 귀가를 하니깐 손이 많이 안 가는 아이인데 자극에 반응이 없는 것이 걱정스러워서 엄마에게 말을 했거든요. 결국에 엄마가 센터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릴 때부터 상호작용 없이 영상을 많이 보여준 것이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양육 환경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질을 잘 파악하려면 아이가 보이는 행동이나 모습이 그 아이의 기질 때문인지 아니면 기질과 양육 환경이 맞물리면서 나타나는 모습인지 잘 구분해야 할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E 원장: 기질을 좀 자세히 알고 나니까 저도 원에서 아이들을 보면 기질 요소가 계속 생각나면서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좀 헛갈리는 것은 다시 책을 찾아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원장님들과 아이들 관찰하신 거 같이 이야기하니깐 공부한 게 다시 정리가 되고, 아이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지 생각도 다시 하게 되고 진짜 공동체 하기 잘 했다. 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3회기 참여관찰, 2023. 7. 20.)

원장들은 기질 요소의 개념을 공동체 모임을 통해 좀 더 이해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재원하고 있는 영아를 더 세심하게 관찰하고 학습한 기질 요소를 영아에게 대입해보게 되었다고 하였다. 원장들은 어린이집에서 특성이 강한 영아의 기질에 관심을 더 보이면서 서로 사례를 공유하고 영아의 행동 특성과 지원했던 방법에 대한 논의에 긴 시간을 할애했다. 이는 어린이집마다 특성이 강한 영아들이 다수 있고 그런 영아의 양육을 어려워하고 있는 부모들을 매일 만나고 있는 원장들의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영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영아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적절하게 지원하고 싶고 부모에게도 영아와 상호작용을 잘 하도록 지원하고 싶은 원장들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원장들은 재원하고 있는 영아들에게 기질의 요소를 대입하고 구성원들과 유사한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영아의 기질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교재에

수룩된 기질검사도구 사용에 관한 학습을 이어갔다. 그리고 재원하고 있는 영아 중 2명을 검사하고 분석한 것을 공유하였다. 이처럼 원장들은 공동체 모임에서 학습한 기질을 어린이집에 돌아가 실질적으로 접목할 수 있게 되었고 공동체에서 그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하고, 그에 대한 지원 방법을 함께 찾아가면서 학습에 더욱 집중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제가 이 아이는 0세 때부터 봤는데 그 때 적응을 3일 만에 했어요. 지금 만 2세고 검사를 해 본 결과 활동성이 낮은 순응성 기질로 나왔어요. 이 아이는 소파에 자주 누워있고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거의 안 해요. 한 번은 친구중 하나가 “어, 나 살려 줘”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와서 “내가 살려 줄게” 이러면서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 날도 이 아이는 소파에 누워 있으면서 아이들 놀이를 보고 있었는데 그 놀이가 재미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앉더니 “나 좀 살려줘” 그래요. 그런데 친구들이 노느라 안와요. 이 아이 목소리가 작거든요. 그런데 계속 “나 좀 살려줘”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서 “제가 살려 줄게요” 그러면서 호응을 해줬어요. 아직 협동놀이를 할 연령은 아니지만 활동성이 너무 낮아서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이 부족한 거예요. 놀고 싶다는 욕구는 있는데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마음이 쓰이지요. 이 책을 보니까 이런 유형의 아이들은 새로운 경험을 접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다. 라고 나오는데 부모님 모두 직장을 다니시니까 퇴근하시면 아이는 영상을 보여주고 집안 일 하시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순하다고 그냥 두면 자극이 부족하잖아요.

(J 원장, 3회기 참여관찰, 2023. 7. 20.)

기질 검사를 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면서 원장들은 부모도 자녀의 기질을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부모교육 방법에 대해 고민을 시작했다. A원장은 부모에게 영아와의 상호작용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실시했던 부모교육 경험을 공유하였고 D원장은 가정연계를 위해 가정으로 보낸 텃밭수확물을 자녀와 소중하게 다루며 이웃에게 나누는 사진을 전자알림장에 올려준 부모의 사례를 공유하였다. 이처럼 전자 알림장을 사용해서 이루어졌던 사례를 바탕으로 원장들은 기질의 요소를 알려주는 카드뉴스를 제작하기로 협의하였다.

어린이집은 부모와의 소통을 위해 대부분 전자 알림장을 사용하고 있다. 카드뉴스는 전자 알림장에 올리기 좋은 자료이고 스마트 폰으로 소통을 주로 하는 지금의 부모 세대가 보고 인지하기에 유용한 자료이기도 하다. 그리고 원장들은 지피지기 안(安) 부모교육 공동체에서 아직은 학습을 하고 있는 중이므로 직접적인 교육보다는 전자 알림장을 통해 간접적인 교육으로 실행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요즘 부모들이 아이들하고 잘 못 놀아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꾸러미를 보낸다고 전자 알림장에 올렸어요. 그리고 그 꾸러미에 있는 대로 실행하고 알림장에 사진 2~3장 올릴 수 있는 분만 신청하시라고 했는데 3분의 2가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꾸러미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크로와상 냉동 생지, 찍기 틀, 밀대, 접시, 놀이 설명서를 잘 포장해서 만들어서 보냈는데 가지고 가자마자 사진을 올려준 분이 있었어요. 그 사진에는 크로와상 구워서 먹는 아이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A 원장, 3회기 참여관찰, 2023. 7. 20.)

저는 \*\*사에서 지원해준 텃밭 상자가 있잖아요. 거기에 상추를 키우면서 아이들과 관찰하는 과정들을 전자 알림장에 계속 올려주고 상추를 수확했을 때 그 상추를 포장해서 가정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한 엄마가 그 상추가 너무 귀해서 아이하고 같이 씻어서 그릇에 예쁘게 담아 옆집에 갖다 주었다고 그리고 너무 잘 먹었다고 하면서 옆집에 상추 들고 아이가 조심스럽게 가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 알림장에 올려주신 거예요.

(D 원장, 3회기 참여관찰, 2023. 7. 20.)

E 원장: 이 기질 요소 표를 복사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일대 일로 설명하거나 그룹으로 만나서 설명하거나 하면서 알려주면 어떨까요?

B 원장: 그런데 저는 아직 설명할 자신은 없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통신문이나 카드뉴스로 만들어서 전자알림장에 올리고 저희가 공부 더 하고 3회기 정도의 강의안 만들어서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A 원장: 항상 부모들과 얘기하면서 느끼는 건데 짧게 간단하게 이야기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먼저 카드뉴스로 눈에 띄게 만들어서 관심을 갖도록 올리고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강의안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3회기 참여관찰, 2023. 7. 20.)

원장들은 카드뉴스를 만들기 전에 카드뉴스에 넣으면 좋을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그리고 카드뉴스를 만드는 방법에 익숙한 구성원이 있고 익숙하지 않은 구성원이 있으므로 익숙한 구성원인 G 원장이 카드뉴스 만드는 방법에 대해 강의하고 모든 구성원은 각자의 노트북을 가져와서 G 원장의 강의와 지원에 따라 카드 뉴스 만드는 방법을 익혔다. 카드뉴스에는 내용이 함축적으로 들어가고 흥미를 끌 수 있는 문구나 디자인 요소가 필요하다. 원장들을 새로운 방법을 익히는데 모임 시간을 거의 다 사용했지만 함께 카드뉴스를 제작하면서 어떤 내용을 어떤 디자인으로 제작하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전달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G 원장: 기질이 성격이 된다는 걸 의외로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기질은 커서 성격이 된다는 그런 부분을 알려주고 좋은 성격이 되려면 중요한 것은 부모 당신입니다. 라는 식으로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A 원장: 저는 카드뉴스에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생각해보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책을 봤는데 달리 생각할 게 없고 여기 목차에 다 있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질을 알면 아이의 강점이 강화된다. 라는 이 말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넣어 처음에 올리면 부모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의 기질을 궁금해 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기질의 9 가지 요소를 한 번씩 보내면 우리 아이를 살펴볼 것 같아요.

B 원장: 그런데 기질의 요소 보다는 기질의 유형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요소를 조합해봐야 기질을 알 수 있는데 요소만 알려주면 이해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유형으로 나가고 유형의 특성에 간단히 설명하면 아이와 대입해보기가 쉬울 것 같아요.

(4회기 참여관찰, 2023. 8. 10.)

G 원장: 시작하기를 눌러볼게요. 위에 보면 사이즈 있지요. 여기서 카드뉴스를 누르면 정사각형이 나와요. 옆에 보면 카드뉴스하고 관련된 디자인들이 많이 떠요.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없다. 잘 모르겠다. 하면 템플릿 검색

에서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것과 관련된 단어를 넣어보면 되요.  
 J 원장: 여러 가지가 나오네요. 노는 게 제일 좋은 우리 아이 이런 거 나오네요.  
 이 디자인이 좋으면 여기다 하면 되는 거지요.

(4회기 참여관찰, 2023. 8. 10.)

원장들은 카드뉴스를 만드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 긴 시간 집중했고 방법을 익힌 후에는 각자 하나씩 맡은 부분을 어린이집에 돌아가서 시간이 될 때 제작하고 공유하자고 제안하였다. 원장들이 제작해서 단체로 사용하는 SNS에 공유한 카드뉴스의 일부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 기질의 중요성과 유형을 전달하는 카드뉴스

원장들은 기질을 학습하면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더욱 강조하였다. 따라서 영아와 부모의 기질조화적합성을 도울 수 있는 주제로 학습하기를 희망하였고 모임의 주기도 일주일로 변경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다음 회기에는 부모교육 강의를 위해 강의안을 만드는 방법에 관해 학습하기를 희망하였다. 연구자는 구성원들의 협의에 따라 강의안을 함께 만들기로 하였고 원장들은 기질과 관련한 내용을 쉽게 전달하기 위한 영상, 그림, 그림책 등의 콘텐츠를 찾아오기로 했다.

A 원장: 저는 매 달 부모교육을 해요. 이번에는 부모 힐링 프로그램으로 꽃꽃

이를 하는데 여기서 카드뉴스 만드는 거 배웠잖아요. 너무 유용한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전자 알림장에 올려서 5명 선착순으로 신청 받았는데 댓글로 5명이 그날 곧바로 올라와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 기질로 4회기 하는 것도 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내가 더 알아야 되는데 하는 조바심이 생기더라고요.

D 원장: 맞아요. 더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오늘 강의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연구자: 할 수 있을 만큼 해보지요. 일단 대상과 목표를 정해봅시다. 그리고 원장님들이 준비하신 콘텐츠를 어느 부분에 넣으면 효과적일지 의논해 보지요.

(5회기 참여관찰, 2023. 8. 17.)

연구자는 강의안 제작이 익숙하지 않은 원장들을 대신하여 원장들이 구성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모임 시간에 강의안을 제작하였다. 강의안 제작은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였으며 강의안을 제작하는 과정을 구성원들과 함께 하면서 강의안의 구성과 파워포인트 사용 방법도 알려주었다. 원장들은 기질을 자세하게 학습하다보니 아이의 기질에 따른 부모의 상호작용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서 좀 더 학습하고 강의안을 만들어 부모교육을 잘 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원장들은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학습 주제로 애착, 의사소통, 훈육 그리고 양육태도를 결정하였다. 양육태도는 논문을 검색하여 양육태도 검사도구를 통해 직접 양육태도 검사를 해보며 세부 내용을 학습하였다. 그리고 애착 학습을 위한 도서는 관련 도서 3권을 검토하고 구성원들의 논의를 통해 구체적 사례가 잘 나와 있는 이보연(2019)의 『애착육아의 기적』으로 선정하여 애착에 관한 학습도 이어갔다.

연구자: 양육태도는 보통 논문에서 웨퍼가 제시한 양육태도 검사도구를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도 그 도구를 사용해서 직접 스스로를 검사해 보면 부모에게 검사 도구를 주고 결과를 받았을 때 저희가 해석하는데 힘이 될 수 있으니 검사를 직접 해보시겠습니다.

I 원장: 이게 문항이 12개씩이니까 60점이 만점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점수만 가지고 1번 2번 해서 애정 자율이라고 정하는 것 보다 50점이 넘

어가는 경우 아니면 30점이 안 되는 경우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거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연구자: 이 검사 도구는 자기보고식이기 때문에 각 요인의 점수가 극단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오류도 있을 수 있어요. 원장님 말씀처럼 점수가 극단적으로 나올 경우는 평상시 엄마의 양육 태도에 기초해서 설명을 잘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요.

G 원장: 저는 애정-통제로 나오네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통제를 많이 하기는 하거든요.

(6회기 참여관찰, 2023. 8. 24.)

원장들은 교사들과도 양육태도 검사를 해보면서 다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게 돼서 활기차고 뿌듯한 마음이 들고 그동안 알고 있던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 같아 자신감도 생겼다고 하였다. 또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공간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위로받는 것도 공동체에 참여한 큰 의미라고 했다. 원장들은 공동체 모임 시간을 어린이집 업무로 인한 심신의 고단함을 해소하는, 편안하고 안전한 시간으로 만들면서 동질감을 경험하고 있었고 이러한 경험은 공동체 모임이 거듭되면서 원장들이 학습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공동체 모임에서 양육태도 검사를 했는데 교사들도 같이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교사들과 같이 양육태도를 검사해보고 ‘아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를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 기회가 닿으면 엄마들 모두에게 권하고 싶다. 이렇게 공동체 모임을 통해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하게 돼서 활기찬 기분이고 내가 뭔가 하고 있다. 는 뿌듯함이 있다.

(E 원장, 연구 참여자 일지, 2023. 8. 25.)

공동체 모임을 통해 제가 알고 있던 것을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체계화된 느낌이 드니까 부모님을 만나도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A 원장, 1차 개별면담, 2023. 8. 14.)

이번 공동체 모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이야기 하면 공감해 주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자체가 너무 즐거웠어요. 배움도 중요하지만 한 공간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위로 받는 것도 저는 이번 공동체의 큰 성과라고 생각해요.

(C 원장, 1차 개별면담, 2023. 8. 18.)

공동체 모임에 적응한 원장들은 공동체 모임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면서 전자 알림장에 올릴 수 있는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제작하였다. 또한 직접 강의를 통해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구성원들과 강의안을 함께 구성하고 강의안 만드는 방법을 배웠다. 그리고 부모의 상호작용을 돕기 위한 학습주제로 양육태도, 애착, 의사소통, 훈육을 정하고 학습을 이어갔다. 이처럼 원장들이 모임과 학습에 집중할 수 있었던 힘은 구성원과 나누는 모든 시간에서 경험하는 동질감 때문으로 해석된다. 원장들은 공동체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지식을 정리하고 체계화 하면서 원장으로서의 자신감도 경험하고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원장들은 4회기의 강의안을 만들자고 계획하였다.

### 3) 발전기: 협력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기

원장들은 공동체 모임에서 집중적으로 학습한 시기를 거치면서 알게 된 내용을 기반으로 학습을 더 이어갔다. 동시에 부모교육에 사용할 4회기의 강의안을 만들면서 부모교육자로서의 전문성을 발전시켜 나갔다. 양육태도에 이어 연구자의 특강으로 애착과 관련된 용어와 개념을 먼저 학습한 원장들은 1회기를 성인애착유형을 통해 부모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감정코칭에 관해 알고 있는 C원장의 의견으로 의사소통과 훈육은 감정코칭 학습을 통해 강의안을 만드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편 애착을 학습하면서 애착 도서의 내용을 녹음하여 오디오북처럼 만들고 전자 알림장에 올리자는 아이디어에 구성원들은 자신이 전하고 싶은

부분을 녹음해서 공유했고 연구자가 편집하여 전자 알림장에 올릴 수 녹음 영상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원장들은 애착과 감정코칭에 관련한 학습을 지속하면서 최종적으로 1회기 부모 자신의 이해, 2회기 기질, 3회기 애착, 4회기 감정코칭(의사소통과 훈육)을 주제로 강의안을 만들었다. 또한 강의 슬라이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와 강의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멘트를 슬라이드 노트에 작성하는 작업을 함께 하면서 4회기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강의안이 완성되었다. 공동체의 이름을 그대로 적용한 프로그램의 명칭은 지피지기 안(安) 육아이다.

어릴 때 경험에서 내적작동모델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성인애착유형 검사를 해보았는데 성인의 애착유형도 어린 시절 경험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결론은 부모의 애착유형이 내적작동모델을 알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 부모의 애착유형 검사를 먼저 해서 부모가 자신을 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D 원장, 7회기 참여관찰, 2023. 8. 31.)

저는 오늘 발표하려고 책을 읽으면서 표시를 해 놓았는데 이 책의 내용은 알기 쉽게 기술을 해놓아서 좋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잘 표현을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책은 그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이 책의 사례들은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하는 상호작용이라서 ‘내가 잘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뿌듯했어요.

(I 원장, 7회기 참여관찰, 2023. 8. 31.)

애착을 공부하니까 기질하고 연관이 계속 되더라고요. 부모가 민감해야 아이들 기질을 파악할 수 있고 기질에 맞게 적절하게 반응을 해야 아이는 안정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거니까 계속 기질과 연결이 되면서 기질 요소가 계속 생각나다 보니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기질도 잘 알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기질이 좀 어려웠거든요.

(C 원장, 7회기 참여관찰, 2023. 8. 31.)

원장들은 연구자가 진행한 애착관련 특강을 수강하면서 성인애착유형 검

사를 직접 해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애착유형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현재 모습과 연결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애착 이론의 내적작동모델을 대입하면서 부모교육에서 부모가 자신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부모는 자녀와 생활하면서 후회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지 자신을 돌아 볼 수 있게 성인애착유형 검사도 하고 내적작동모델도 알려주면 부모가 자신을 조절하면서 자녀를 긍정적으로 양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원장들의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원장들은 애착이 쉽게 학습할 수 있어 좋다고 공통적으로 이야기 했는데 이는 원장들이 평상시 보육하면서 영아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고 그렇게 누적된 경험들이 애착형성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학습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원장들은 기질에 대해 학습하면서 어렵다고 생각한 부분을 애착과 연결하여 학습하면서 좀 더 쉽게 이해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원장들은 학습을 계속하면서 강의안에 관한 구상도 함께 했다.

A 원장: 저희가 성인애착유형 검사 하면서 자신 이해를 1회기에 넣기로 했잖아요. 그럼 기질이 2회기로 가고 애착형성방법이 3회기로 가는 건가요?

연구자: 원장님들의 의견대로 하면 1회기는 부모 자신의 이해를 하고 2회기에서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인지 알기 위한 기질을 하고, 3회기는 애착을 하면서 안정애착 형성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 4회기에 아이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의사소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안 되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지에 대한 훈육으로 이어지면 될 것 같아요. 의사소통도 광범위해서 다음 회기에 관련 강의와 영상을 보고 어떻게 4회기에 다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H 원장: 그럼 1회기 내용을 짜보고 거기에 맞는 콘텐츠도 찾아봐야겠네요.

연구자: 오늘 애착 공부를 하고 나서 1회기를 어떤 내용으로 할지 이야기 나눠봐요. 그 다음 부분은 F 원장님이 말씀하셨죠.

F 원장: 저는 예전에 공원에 산책 갔을 때 작가들이 앉아서 책을 읽어주는 행사를 하고 있어서 들어 보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것도 참 좋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책 뒷부분에 저한테 와 닿았던 부분을 여러분

께 읽어 드리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7회기 참여관찰, 2023. 8. 31.)

F 원장이 자신의 좋았던 경험을 공유하고자 책을 읽어 주었는데 원장들은 자신이 눈으로 보고 읽은 것과 달리 더 집중되고 편안하게 책의 내용이 들린다고 소감을 이야기하였다. 원장들은 부모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내용을 이렇게 녹음해서 전달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하였고 녹음을 하고 싶은 구성원은 애착교재에서 읽고 싶은 부분을 핸드폰을 이용하여 녹음하고 파일을 공유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유된 녹음파일은 연구자가 편집해서 오디오북처럼 제작하였고 원장들은 이 녹음영상을 어떻게 사용하면 효과적일지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D 원장: 원장님들 목소리가 모두 좋아요. 이 파일은 전자 알림장에 올리면서 간단하게 내용을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들도 원장님들이 노력하고 있구나. 느끼지 않을까요?

C 원장: 전자 알림장에 올리고 댓글로 마음에 와 닿은 문장을 적어보세요. 하면서 이벤트처럼 많이 적은 분에게 이 책을 선물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좀 더 주의 깊게 내용을 듣지 않을까요?

B 원장: 이 녹음 영상이 원장님들이 돌아가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녹음 영상을 원장님들의 부모님들이 한 곳에서 들을 수 있도록 유튜브를 개설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원장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지도 알 수 있고 유튜브에 댓글 이벤트를 하면 다른 부모들의 반응도 볼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I 원장: 그럼 유튜브는 누가 해요?

B 원장: 저희가 연합회에서 사용했던 계정도 있고 하니까 한 번 생각해볼게요.

(11회기 참여관찰, 2023. 10. 5.)

원장들은 B 원장의 의견으로 유튜브를 개설해 음성영상을 올리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어린이집 업무와 공동체 모임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상황과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도 검토해봐야 하는 상황으로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미루어졌다.

이처럼 원장들은 부모교육을 위해 더 좋은 방법을 고민하고 적용하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원장들은 의사소통 특강을 수강하면서 강의 4회기 내용을 감성코칭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 C 원장의 의견을 듣고 감성코칭에 대해 학습을 이어가기로 협의하였다.

제가 대학원에서 기회가 돼서 감성코칭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감성코칭에는 우리가 배운 의사소통도 있고 훈육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감성코칭 하려면 경청해야 하고 감정은 잘 들어주지만 잘못된 행동은 바로 잡아 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감성코칭 방법으로 4회기를 하면 그 안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내용이 포함 될 것 같아요.

(C 원장, 8회기 참여관찰, 2023. 9. 7.)

원장들은 C 원장의 의견을 들으면서 영아의 언어 발달을 고려할 때 마음을 읽어주는 방법의 감성코칭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4회기의 내용을 감성코칭으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학습교재는 C 원장이 소개한 최성애 등(2020)의 『내 아이를 위한 감성코칭』으로 선정하였다.

우리가 매주 만나다 보니까 사실 많이 읽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마음 다스리기 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제 마음을 알아야 상대방 마음도 읽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일 것 같아요. 여기 책에 보면 심장집중호흡이라고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이 인상적이더라고요. 부모도 화가 나면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좋더라고요.

(F 원장, 9회기 참여관찰, 2023. 9. 14.)

여기 128쪽에 보면 아이의 타고난 기질을 알면 감성코칭이 쉽다. 라고, 나오는데 제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우리가 기질을 배우고 부모가 그 기질을 알고 상호작용을 잘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꼭 우리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은 제목이 반갑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기질 유형의 이름도 조금 다르지만 순한 기질, 까다로운 기질, 느린 기질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애착에서도 감성코칭에서도 기질과 연관되니까 어려웠던 기질이 이제는 내가 말하기 쉽게 내 것이 되었어요.

(A 원장, 10회기 참여관찰, 2023. 9. 21.)

원장들은 기질에 이어 양육태도, 애착, 감정코칭을 학습 하는 과정에서 어렵게 느꼈던 기질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이는 부모교육을 주제로 한 학습이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이 이어질수록 어려웠던 개념을 이해하면서 원장들의 부모교육과 관련된 지식이 발전한 것으로 이해된다. 원장들은 이렇게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강의안을 구성하는 논의를 계속하면서 완성된 강의안에 강의를 도울 수 있는 내용으로 노트를 달기 시작했다.

제목 다음 슬라이드에 목차가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고 부모들도 보면 오늘 무엇에 대해 하는구나 이해를 하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B 원장, 10회기 참여관찰, 2023. 9. 21.)

여기에 들어간 그림책 내용이 아빠에게 토끼가 놀자고 했다가 거절당하는 내용인데 이곳에 들어가는 것 보다 으르렁 아빠 밑에 들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아빠의 현재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E 원장, 10회기 참여관찰, 2023. 9. 21.)

접촉이 중요하다에서 보면 뇌 발달, 스트레스 감소, 면역력 강화 이렇게 나와 있어서 꼭 만병통치약 광고 같은 느낌이 나요. 여기서 만병통치약처럼 접촉이 중요하다. 라고 하면 좀 재미있게 느껴질 것 같아요.

(G 원장, 11회기 참여관찰, 2023. 10. 5.)

원장들은 8회기부터 11회기까지 강의안 제작을 위해 적절한 콘텐츠를 찾아 공유하고 잘 전달하기 위해 내용을 보완하면서 협의하였고 10월에 부모교육을 해보고 싶다는 원장들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자는 원장들이 매 회기 마다 강의안 구성을 위해 협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강의안을 제작하였다. 강의안은 원장들이 협의한 바와 같이 4회기로 제작되었다. 지피지기 안(安)육아 프로그램의 강의안 일부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지피지기 안(安) 육아 프로그램 강의안 일부

원장들은 연구자의 제안에 따라 각 회기마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추가하고 직접 활동을 해보면서 부모교육 진행에서의 상황들을 미리 예측하고 보완하며 강의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부모교육 시작을 알리는 신청서와 안내문 제작을 위해 협의를 하고 각자 부모교육을 시작할 일정을 정하였다. 이처럼 공동체에서 만들어진 지피지기 안(安) 육아 프로그램으로 시장을 하고 어린이집에서 실행하겠다고 계획한 원장은 6명이었고 나머지 4명의 원장은 실행을 유보하였지만 구성원들과 학습을 지속하면서 추후 실행을 위한 준비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내 장점을 적어주니까 읽으면서 기분이 좋아지네요. 부채에다가 적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예요. 부모들에게 해보라고 하면 저희처럼 세로로 할까 가로로 할까 고민할 것 같아요. 미리 정해주고 편하게 적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I 원장, 11회기 참여관찰, 2023. 10. 5.)

B 원장: 간단하게 육아가 힘드시다면 문을 두드려 주세요. 함께 모여 자녀를 이

해하고 알아가는 모임입니다.

- A 원장: 행복한 육아를 위한 함께 하는 부모교육. 이렇게 제목만 잡고 밑에 내용을 1, 2, 3, 4 이런 모임입니다. 그냥 요즘 유행하는 공동체, 부모 공동체 이렇게 할까요?
- H 원장: 우리 목적이 이거잖아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하는 거. 부모 공동체 모임으로 하면 이 문구도 좋은 것 같아요.
- J 원장: 공부하러 오라고 하면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양육의 어려움을 고민을 서로 나누자고 하면 참가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 연구자: 정해진 일정 알려주시고 10월부터 하시려면 다음 주부터 곧바로 시강을 해야 하겠는데요. 괜찮으시겠어요.
- I 원장: 시강을 해야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하니까 제가 1회기 시강을 할게요.

(11회기 참여관찰, 2023. 10. 5.)

원장들은 부모교육 일정을 잡고 신청서를 작성하면서도 참여가 부족할까를 걱정하면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문구를 선택하고자 한참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2명의 구성원이 제작을 담당해서 완성된 신청서를 공동체의 단체 SNS에 공유하였다. 원장들은 신청서를 공유하면서 신청서 사용에 어려움을 표현하는 구성원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 도와주면서 서로의 노력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완성된 신청서는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지피지기 안(安) 육아 부모교육 신청서

원장들은 강의 시연 일정을 잡으면서 강의 장소에 대한 고민을 하였다. 장소가 정해지면 그 장소에서 시강을 하는 것이 강의를 실제로 할 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일정만 계획하고 장소는 추후 공유하기로 하였다. 가정 어린이집은 평일 영아들을 보육하는 시간에 어린이집에서 부모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원장들은 어린이집과 가까운 곳의 스터디카페 등의 공간을 대여하여 부모교육을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바쁜 업무 중에도 부모교육의 전문성을 키우고자 전문적학습공동체에 참여한 원장들은 함께 모여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저도 대학원에 가서 이야기하면 원장님들이 너무 부러워해요. 부모교육 하고 싶어도 시간도 없고 돈 내고 배우는 곳에서 배워도 내 것이 되지 않잖아요. 저도 그래서 자꾸 자랑하게 되더라고요.

(G 원장, 10회기 참여관찰, 2023. 9. 21.)

그동안 배운 부모교육을 어린이집에서 부모님과 공동체육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자료가 모아졌고 부모님들께 알릴 수 있는 공지문을 함께 만들었다. 처음 생각했던 것 보다 부모교육 강의안이 깊이 있고 재미있게 만들어 졌다. 영상들도 들어가면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강의안이 만들어져 감사하다. 개별적으로 각각의 원장님들이 시강을 할 때 서로 참여하며 보완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까지 생겼으니 완벽한 부모교육 공동체가 되었다.

(J 원장, 연구 참여자 일지, 2023. 10. 5.)

원장들은 기질을 공부하며 부모교육을 직접 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강의안 만들기를 시작했고 이어서 양육 태도, 애착, 감성코칭을 주제로 학습을 이어가면서 강의안의 내용도 발전시켜나갔다. 강의안에 들어갈 내용과 콘텐츠를 찾아 강의안을 구성하면서 어떻게 강의안을 만들어야 부모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매 회기 끊임없이 논의하면서 원장들은 4회기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강의안을 만들었다. 원장들은 함께 강의안을 만들면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였으며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이렇게 발전한 원장들은 강의 시연을 계획 하고 부

모교육을 직접 실행하고자 공동체에서 제작한 신청서를 이용하여 부모들에게 부모교육에 관한 공지를 한 후 각 어린이집의 상황에 맞춰 부모교육 일정을 결정하였다.

#### 4) 결실기: 부모교육을 실행하고 결과 공유하기

원장들은 공동체 모임에서 함께 구성한 프로그램으로 부모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각 어린이집의 강의 일정애 앞서 강의 시연 일정을 정하고 강의 시연을 했다. 강의 시연은 각 구성원이 실제로 강의를 할 장소로 어린이집 교실, 스터디카페, 공유 사무실 등에서 이루어졌다.

원장들은 강의 시연을 하면서 강의안 제작에 사용된 파워포인트 사용 방법, 강의를 순조롭게 진행하도록 돕는 기기의 사용 방법 그리고 강의안의 사례와 내용을 보완하고 서로 피드백을 하는 방법으로 강의에 필요한 기술들을 익혔다. 또한 강의 시연 일정 중에 시작된 실제 부모교육에 대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면서 서로의 강의 준비를 도왔다. 이런 과정을 통해 원장들은 4회기의 지피지기 안(安) 육아 부모교육을 직접 실행하면서 원장으로서 자신감이 생기고 부모교육자로서 전문성이 성장했다고 밝혔다.

B 원장: 여기서 민감성, 반응성, 일관성 이야기하고 다시 설명을 하잖아요. 그때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보여주려면 하나씩 크게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이 있나요?

연구자: 아~ 애니메이션을 추가하면 되요.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민감성 동그라미를 클릭하고 애니메이션 추가에 들어가면 강조하기가 있거든요. 여기보면 크게 작게가 있어요 이걸 눌러주면 되요.

D 원장: 확대 축소를 뭘로 하나요?

A 원장: 여기서 이 부분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H 원장: 정말 많은 것을 배우네요. 컴퓨터가 참 좋아요.

(14회기 참여관찰, 2023. 10. 24.)

I 원장: 제가 음량조절이 되는 포인터를 샀어요. 그걸 사용하니깐 확실히 여유가 있어요. 이 부분을 누르면 소리를 조절할 수 있어요.

D 원장: 저도 포인터로 신여성이 되어가고 있어요. 포인터가 있으니 피피티 넘기면서 실수도 적어지면서 이제 잘 다뤄지는 거예요.

(14회기 참여관찰, 2023. 10. 24.)

원장들은 강의 시연을 하면서 자신의 강의 진행에 맞춰 파워포인트를 수정하는 방법을 익히고, 강의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기기도 구입하고 그 사용법에 익숙해지면서 강의를 좀 더 잘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강의 시연을 참관하는 구성원이 부모역할을 하면서 강의 시연을 하는 구성원에게 피드백을 해주었는데 이를 통해 원장들은 좀 더 좋은 강의 진행 방법을 익힐 수 있었다. 이러한 강의 시연은 원장들의 강의 기술을 익히는 시간이 되었고 강의 내용의 이해를 돕는 사례도 보완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은 부모님과 같이 읽어보자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복잡한 내용이 아니니까 부모님들이 같이 읽으면서 분위기도 전환하고 좋을 것 같아요.

(H 원장, 12회기 참여관찰, 2023. 10. 13)

A 원장: 제가 영아들에게 감정코칭을 어떻게 해줘야 하나 고민을 했어요. 여기 4단계에 보면 감정명료화를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아이가 어느 정도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부모들도 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연구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도 영아가 언어 구사가 되지 않더라도 감정을 수용 받는 느낌은 영아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표정으로 말로 감정코칭 하는 것을 통해서 감정 단어를 배우고 할 수 있으니까 감정코칭을 하는 부모가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적절하게 반응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하면 되겠지요.

D 원장: 여기 슬라이드에서 단계별로 설명이 되어 있고 마지막 슬라이드에 전체 단계가 나오잖아요. 이때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단계를 이야기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B 원장: 아까 같이 보는 영상에 나온 아이를 사례로 대입해 보면 어떨까요?

(15회기 참여관찰, 2023. 11. 2.)

원장들은 실제 부모교육이 시작되면서 강의안을 숙지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의안을 숙지하는 과정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발견하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강의 시연 시간을 활용해 강의안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갔다. 그렇게 원장들은 구성원들과 함께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모교육을 시작했고 먼저 부모교육을 시작한 원장들은 강의 시연 시간에 자신의 실행 경험을 공유했다.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 하잖아요. 제가 혼자 힘들었어요. 저는 어제 2회기 했는데 입이 막 붙는 거예요. 물을 한 잔 먹었으면 좋겠는데 준비를 안 해서 먹을수 가 없어서 아... 이런 준비도 잘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D 원장, 15회기 참여관찰, 2023. 11. 2.)

B 원장: 저는 시작하면서 저희 공동체 이야기를 했어요. 원장님들과 이렇게 공부하면서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적용하고 아이의 마음도 신경 쓰게 됐다고 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부모님께도 소개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다.

A 원장: 저도 그랬어요. 배워서 좋은 내용이고 부모님과 같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떨려요. 그랬더니 부모들이 웃으면서 공감하더라고요.

H 원장: 저희 부모님들은 첫 날부터 나온 영상 보고 울고, 같이 이야기하다 울고 그러면서 2시간 동안 하게 되더라고요. 부모님들 가시면서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고... 정말 제가 너무 좋았어요.

(14회기 참여관찰, 2023. 10. 24.)

D 원장: 한 엄마가 제주도 여행 갔다 와서 힘든데 숙제여서 부채에 장점적기를 힘들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 너무 좋았대요. 남편이랑 서로 읽어 주면서 신혼 때로 돌아간 느낌이 들고 남편도 너무 즐거워했다고 별 생각 없이 그냥 했는데 이 작은 활동으로 마음이 이렇게 달라질 지 몰랐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해봤잖아요. 저희도 좋았는데 부부가 아이랑 같이 했으니 더 좋았을 것 같아요.

A 원장: 저희 부모님은 4회기 너무 짧다고 늘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놀라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15회기 참여관찰, 2023. 11. 2.)

원장들은 실제 부모교육을 진행하면서 부모들의 반응에 그 동안의 노력을 보상받은 느낌을 받으며 자존감이 충족된 모습을 보였다. 원장들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성장하는 이 과정에서 스스로 부모교육을 하게 된 결과물을 만들어 낸 것을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며 유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원장들은 먼저 진행한 순서부터 4회기를 마치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했는지도 공유했다. 부모들의 수료를 축하하기 위해 충분한 부모 자격증을 만들고 그 자격증을 담은 상장케이스도 공유하고 수료를 한 후의 마음도 공유하면서 서로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동체의 단체 SNS에 올라온 사례는 다음과 같다.

원장님들 응원에 힘입어 1회기 즐겁게 마무리 했습니다. 공동체 원장님들 덕분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4회기 마무리 하고 나면 원장으로서 자존감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B 원장, 단체 SNS, 2023. 10. 23.)

I 원장: 어제 4회기 잘 마쳤습니다. A 원장님 알려주신 것처럼 수료증도 만들고 꽃다발도 준비해서 마무리 잘 했어요. 부모교육 공동체 원장님들이 함께 해주신 덕분입니다.

A 원장: 마무리까지 성공적으로 마치신 I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저도 이제 막 3회기 마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H 원장: 저도 4회기 마치고 수료식 했어요. 부모님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더 행복하더라고요.

(단체 SNS, 2023. 11. 14.)

이처럼 원장들은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에 참여하여 구성원들과 함께 부모교육에 관한 고민을 나누면서 학습을 이어간 결실로 4회기로 진행되는 지피지기 안(安) 육아 프로그램을 만들고 직접 부모교육을 실행할 수 있었다. 원장들은 부모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강의 시연을 돌아가면서 했다. 강의 시연을 하면서 강의를 위한 기기 사용 방법을 익히고 강의안의 사례와 내용을 보완하고 역할극을 통해 서로의 강의를 피드백하며 강의 기술

도 익혔다. 또한 실제로 진행한 부모교육의 경험과 사례도 공유하면서 서로의 부모교육 준비와 실행을 도왔다. 원장들은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모교육을 직접 실행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과 아이를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부모들의 반응에 자존감이 높아지고 원장으로서 자신감과 효능감이 높아졌다고 하였다.

#### 5) 종결 및 유지기: 공동체 경험을 돌아보고 종결과 유지 협의하기

지피지기 안 육아 프로그램으로 부모교육을 시작한 원장들이 4회기를 모두 마친 시점에 16회기 공동체 모임을 가졌다. 16회기는 집단면담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동안의 과정을 돌아보고 지피지기 안 부모교육 공동체의 종결과 유지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처음 시작할 때 만 해도 제가 이 모임을 계속 올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계속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참여했는데 어찌다보니 매 번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게 되고 어찌다보니 4회기 부모교육을 마치게 되었어요. 저는 무엇보다 이 모임에서 원장님들을 만나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가 겪는 어려움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도감도 들고 동질감도 들면서 위로가 된 경험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좀 더 체계가 잡히고 자신감이 생기면서 부모들을 만날 때도 체계적으로 잘 이야기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이 공동체 모임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J 원장, 16회기 참여관찰, 2023. 11. 24.)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의욕이 많이 있었는데 개인적인 일로 참여를 못할 때가 있어서 아쉬웠어요. 그런데 제가 올 해 참여했던 모임 중에서 가장 유익했고 같은 마음으로 공부를 하자고 모인 모임이라 그리고 공부의 주제가 부모교육이라서 제가 속마음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모임이었어요. 오면 마음이 편한 소중한 모임이라 이 모임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C 원장, 16회기 참여관찰, 2023. 11. 24.)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바쁜 일과로 혼자 분주하게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

공부하기 위해 따로 시간을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 같은 지역의 원장들이 모여 어린이집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한다는 소식에 신청을 하고 모임을 시작했다. 원장들은 공동체 모임에서 학습을 하면서 서로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위로를 주고받은 시간들을 경험하며 공동체 모임은 마음이 편한 곳이라고 했다. 이는 혼자 고립되어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하던 원장들이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진 구성원들과 함께 나누는 모든 과정에서 동질감과 유대감을 경험하게 된 공동체 모임이 구성원들에게는 애착이론에서 말하는 안전기지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원장들은 안전기지가 된 공동체 모임을 유지하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원장들은 공동체 모임에서 부모교육을 주제로 함께 학습하고 함께 성장하며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아졌다고 하였다.

저는 이번 월요일에 4회기가 끝났어요. 부모교육을 준비하면서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의 보석을 만든 것 같은 기분. 바로 원장의 효능감이죠. 저는 앞으로도 구슬을 꿰어 보석을 만들고 싶습니다.

(B 원장, 16회기 참여관찰, 2023. 11. 24.)

저도 부모교육 하면서 부모들의 반응을 보니까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신감도 커졌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학습한 내용이 체계가 잡히니까 부모들을 보면 뭔가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힘이 생긴 것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힘을 많이 기르고 싶습니다.

(A 원장, 16회기 참여관찰, 2023. 11. 24.)

공동체 모임에서 함께 공부하고, 고민하며 만들어 낸 지피지기 안(安) 육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원장들은 스스로 부모교육을 실행하였다. 부모교육을 실행하기까지 원장들은 매주 3시간 정도의 학습과 강의 시연을 하면서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빠지지 않고 구성원들과 함께 하며 서로를 지지하였다. 이런 과정을 지나 온 원장들은 학습한 내용을 내면화 시켜 부모교육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부모교육을 직접 실행하며 원장이자 부모교육자로서의 효능감, 자신감, 자존감이 높아진 것으로 이해된다. 원장들은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함께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공동체 유지에 모두 동의하면서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모임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2.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한 부모교육 실행의 변화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한 부모교육 실행의 변화는 성찰을 통한 부모교육에 대한 관점의 변화, 부모교육에 대한 자신감과 능력 향상, 다양한 방식의 부모교육 실행으로 나타났다. 첫째, 성찰을 통한 부모교육에 대한 관점의 변화로 원장들은 부모교육 주제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양육을 돌아보며 양육태도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아와 부모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으며, 어린이집의 부모교육 운영에 관한 인식이 변화한 것이다. 둘째, 부모교육에 대한 자신감과 능력 향상으로, 원장들은 공동체 모임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내면화하면서 부모교육에 관한 자신감이 커졌다. 그리고 부모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작할 수 있게 되고 관련된 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교육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준비 능력이 향상되었다. 셋째, 다양한 방식의 부모교육 실행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에 참여하면서 갖추게 된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원장들은 상담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게 되었으며 전달하고자 하는 부모교육 내용을 새로운 방식으로 실행하였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구성원들과 함께 개발한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 1) 성찰을 통한 부모교육에 대한 관점의 변화

### (1) 자신의 육아 성찰을 통한 양육태도 변화

원장들은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모임이 시작되고 부모교육과 관련한 주제로 학습을 하면서 부모교육자로서 자신 스스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원장들은 공동체 모임을 하고자 학습한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과 자신의 양육 태도에 학습한 내용을 대입해보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육아를 돌아보고 반성한 사례들을 공유하였는데 이를 통해 원장들이 공동체 모임을 통해 부모로서 자신의 변화를 경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저는 부모 자신의 이해에 대해 공부하면서 자꾸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너무 엄격해서 참았던 것이 무의식에 남아 있는지 화를 못 참을 때가 많았어요. 저의 내적작동모델인거죠. 공부하면서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를 알게 되니까 제어가 되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제 아들이 저를 칭찬하더라고요. 4회기 때 있잖아요. 아이가 시작하는 아침에 축복의 말을 해주라는 그 말이 가슴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아들을 깨울 때 “사랑하는 \*\*아”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들이 엄마가 많이 변했다고, 성모마리아가 됐다고 저를 안아주며 칭찬하는데 너무 감동인거예요. 그러니 부모교육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H 원장, 2차 개별면담, 2023. 11. 16.)

저는 공동체 모임에서 학습을 할 때 마다 저희 아이가 떠오르면서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모임 초반에 제가 아이 때문에 걱정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부하는 내용이 아이도 이해하고 부모 자신도 이해하는 그런 내용이 많았잖아요. 공부하다보니까 제 욕심이였다는 것이 갑자기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성인이 될 때까지 제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라오던 아이인데 갑자기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가서 계속 아이와 갈등상황이었는데 제가 반성이 되면서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제가 내려놓고 아이에게 제 마음을 이야기 하면서 관계가 좋아졌어요. 제가 여기서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학부모에게도 얘기했어요. 정말 사람하나 구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공

동체 모임 시간이 너무 소중한어요.

(C 원장, 2차 집단면담, 2023. 11. 24.)

부모교육을 위해 다양한 주제로 학습을 한 원장들은 부모로서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경험을 했다. 이는 공동체 모임에서 부모교육을 위한 학습의 이론적 내용뿐 아니라 부모교육의 내용을 실제로 경험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인애착유형 검사, 양육태도 검사, 성인기질 검사를 직접 해보면서 그 결과를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분석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도 원장들은 자신을 이해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자신의 양육에 대한 가치관과 자신의 양육 태도를 성찰하게 된 원장들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도 이해하게 되면서 자신의 양육 태도를 변화하고자 실천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가 개선되어 가정이 편안해졌다는 사례를 공유한 원장이 많았다. 이러한 원장의 변화는 부모교육자로서 부모교육을 실행하면서 대상이 되는 부모를 이해하고 지원하는데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이해된다.

## (2) 영아와 부모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원장들은 공동체 모임을 통해 학습한 부모교육의 전문지식을 어린이집에 돌아가 적용을 해보고 다시 학습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이처럼 학습이 지속되면서 원장들은 자신의 육아에 대해 성찰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그동안 영아와 부모에 대한 이해도 단편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장들은 영아와 부모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영아와 부모를 좀 더 세심하게 이해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은데 그 전에는 이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그러면서 보이는 행동에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아이들이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저렇게 행동하는 원인이 뭘까? 생각하게 되요 그래서 기질의 요소 대입해보면서 아이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니깐 아이들이 달라 보이고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이 아이에게 가장 편안한 방법인지도 보이더라고요.

(I 원장, 1차 개별면담, 2023. 8. 7.)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났지만 가장 중요하게 드는 생각은 이 아이는 이런 아이다. 라고 확정을 짓지는 말자. 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특성을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하고 그 아이의 특성에 맞춰서 우리가 상호작용을 해주면 잘 자랄 아이들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공격적인 아이야. 라고 단정 지어 생각하면 위험하다는 거죠. 정말 부모들이 저희한테 보내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고 보내는 아기들인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공부도 하는 거고. 기질을 공부하니깐 그런 것들이 더 느껴지면서 아이들을 새롭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G 원장, 2회기 참여관찰, 2023. 7. 6.)

원장들은 공동체 모임에서의 학습을 통해 아이들을 보육하면서 아이들의 행동만 보고 그 행동을 중심으로 지도하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원장들은 아이들의 행동에는 많은 의미가 있으므로 단편적으로 아이의 행동만 보고 단정 지어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심하고 다각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원장들이 공동체 모임의 학습을 통해 영아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하면서 영아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원장들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런 부모는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공동체 학습과정에서 자신의 육아를 성찰하게 되면서 부모의 모습도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재인식하면서 부모를 보는 시각을 달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어린이집 올 때부터 한 번도 울지 않은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 엄마를 봐도 반기지도 않고. 엄마도 늘 아이에게 무표정이고 아이를 반기지 않아요. 제가 애착을 공부하면서 이 아이는 회피애착 유형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엄마를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저 엄마는 어쩌다 저런 양육 태도를 갖게 됐을까? 처음에는 솔직히 엄마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면서 미운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꾸 그 엄마를 관찰하게 되면서 지금 저런 모습을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엄마의 양육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자꾸 방법을 생각하게 되요.

(F 원장, 8회기 참여관찰, 2023. 9. 7.)

이처럼 공동체에서의 학습을 현장에 적용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행동에 초점을 두면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원장들은 영아와 부모를 다각적인 시각으로 세심하게 이해하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원장의 이러한 변화는 원장이 부모교육자로서 부모와 상담을 하거나 부모교육을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공감을 하며 소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3) 어린이집 부모교육에 대한 관점의 변화

일부 원장은 어린이집에서 부모교육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공동체 모임을 통해 학습을 하고 부모교육을 직접 실행하면서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진행하는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불평불만 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부모교육을 지원도 안 해주면서 이렇게 바쁘고 힘든 우리가 해야 하나. 나라는 보육료를 지원하면서 그 때 부모들을 교육해야지 왜 부모교육을 우리에게 떠 넘기냐. 이런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회기가 지나면서 저와 제 아들에게 내용을 대입을 하면서 제 내면이 치유가 되고 그때부터 부모교육을 정식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결국 이번에 4회기를 마쳤어요. 부모교육을 진행하면서 원장으로서 효능감도 올라갔지만 부모들을 보면서 부모들에게도 이렇게 마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구나. 부모도 알고 아이도 아는 원장이 부모교육을 하는 것이 더욱 편안하고 마음에 다가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B 원장, 2차 집단면담, 2023. 11. 24.)

영유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부모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정부 지원 기관의 부모교육 실무자나 영유아교육기관의 원장, 부모도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이윤진 등, 2017). 부모교육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원장들의 마음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부모교육 실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도 있지만 다양한 성향의 부모들을 매일 접하는 가정어린이집의 특성 상 직접 말하기 어려운 부분을 정부가 보육료 지원과 연동해서 의무 부모교육으로 교육해주시기를 희망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채용하고 있는 영아와 부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보육전문가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은 부모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책임자다. B 원장의 사례는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모임을 통해 어린이집에서의 부모교육이 중요하고 부모교육의 책임자로 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 관한 재인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원장들이 적극적으로 부모교육을 실행하는 데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 부모교육에 대한 자신감과 능력 향상

### (1) 학습한 내용의 내면화에 따른 자신감 향상

원장들은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모임에서 진행되는 학습을 통해 부모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부모교육 준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원장들은 부모교육에 관한 자신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변화 중 하나는 부모교육 관련 지식의 내면화로 나타난 자신감의 향상이다.

전에는 부모님하고 상담할 때 주로 내가 아이를 키우던 얘기로 상담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자주 들면서 약간 위축되는 느낌도 있었어요. 그래서 공동체 한다고 했을 때 얼른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질이랑 애착에서 배운 용어를 사용해서 체계적으로 설명도 하고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도 구체적으로 알려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웬지 전문성이 확 올라간 느낌이 들면서 자신감이 생겨요.

(G 원장, 2차 개별면담, 2023. 11. 16.)

얼마 전에 동생이 일이 있어서 동생 아이들을 돌봐줬어요. 그런데 아이가 10시 쯤 되니까 엄마는 왜 안 오나, 갖고 놀던 자동차를 가지고 왜 구겨지지 않느냐 그러면서 화를 내고 울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같이 화내고 야단쳤을 텐데 어느새 제가 아이에게 감성코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 마음을 알아주니까 금방 조용해지고 편안해지더라고요. 저는 이런 제 사례도 부모님들께 감성코칭 강의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경험하니까 더 자신 있게 알려줄 수 있어서 좋았어요.

(H 원장, 15회기 참여관찰, 2023. 11. 2.)

원장들은 부모교육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부모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전문 용어로 표현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원장들은 그러한 고민을 해결하고자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였고 모임을 통해 학습한 내용과 부모교육 관련 전문 용어를 내면화하여 부모들에게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H 원장은 공동체 모임을 통해 학습한 감성코칭을 개인 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된 경험을 공유하였는데 다른 원장들도 어린이집이나 가정에서 H 원장과 같이 학습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적용하게 된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원장들은 학습한 내용을 어렵지 않게 내면화하

여 실천하고 있었다. 가정어린이집은 소규모의 공간 특성으로 원장은 교사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밀접하게 생활하며 영아를 보육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장들은 영아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교사에게 모델링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원장들이 평상시 실천하고 있는 이러한 노력은 공동체 모임에서 학습한 상호작용 관련 내용을 쉽게 내면화할 수 있도록 돕는 요소가 되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공동체 모임에서 학습한 내용을 내면화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원장들은 부모교육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 전문성이 증진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는 원장들이 부모교육을 좀 더 효과적으로 실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화로 이해된다.

## (2) 부모교육 전달 방법에 관한 능력의 향상

부모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전문적 지식이 준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잘 전달하기 위한 방법들도 준비되어야 하는데, 원장들은 공동체 모임에서 학습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도 배우고 사 용하면서 부모교육을 전달하는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공동체 모임에서 제가 카드뉴스를 만드는 것을 배웠잖아요. 예전에는 한 번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그냥 누군가가 만들어 준 것만 사용하다가 제가 직접 만들어 보니 신세계가 열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교육 통신문을 만들 때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요즘 부모들은 그런데 익숙하니까 저희도 발 맞춰서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C 원장, 2차 개별면담, 2023. 11. 13.)

강의안을 어떻게 구성하고 피피티를 어떻게 수정하고 포인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게 되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열린 어린이집 부모교육 할 때도 피피티로 제가 강의안 만들어서 할 수 있었어요.

(H 원장, 2차 집단면담, 2023. 11. 24.)

원장들은 기질의 중요성과 기질의 유형을 전자 알림장에 올리고자 카드뉴

스 제작하는 방법을 배웠다. 또한 지피지기 안(安) 육아 프로그램의 강의안을 만들기 위해 강의안 구성하는 방법과 피피티 사용방법도 함께 배웠다. 가정어린이집은 규모가 작은 물리적 특성으로 강연회 형식의 부모교육 실행에는 어려움이 있어 주로 가정통신문을 활용한 부모교육을 하고 있는데(남지영, 정혜원, 2016) 원장들은 공동체 모임에서의 학습을 통해 단순하던 부모교육 가정통신문에서 시각적으로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카드뉴스로 부모교육 전달 방법에 변화를 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미 제작되어 있는 피피티 강의안을 이용하던 방법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주제에 맞게 강의안을 제작하는 방법의 변화도 나타났다.

그리고 애착을 공부하며 구성원 중 한 명이 읽어주었던 책의 내용을 들으면서 오디오북처럼 녹음 영상을 만들자는 의견으로 원장들은 부모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선택하여 각자의 녹음 영상을 만들었다. 이처럼 원장들은 부모교육을 준비하는 방법이 다양해졌고, 색다른 방법으로 부모교육을 준비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원장으로서 효능감도 경험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림 8은 원장들이 애착 교재를 낭독해서 제작한 녹음 영상의 표지이다.

애착 교재에서 부모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골라 녹음을 했다. 틀리지 않고 한 번에 읽어 내기가 쉽지 않았다. 아이들 낮잠 시간을 이용해서 비교적 방음이 잘 되는 창고에서 녹음을 했다. 원장님들이 이렇게 녹음한 것을 알림장에 공지나 알림으로 보내서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어린이집으로 인정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E 원장, 연구 참여자 일지, 2023. 9. 7.)



아이의 낮가림을 줄이는 방법

낭독자: 원장

아이의 행복한 성장 지원을 위해 원장님들이 들려주는 책이야기  
이보연 저, 애착육아의 기적, 위즈덤하우스

[그림 8] 애착 교재 낭독 녹음 영상 표지

(3) 부모교육 프로그램 진행 준비에 따른 능력의 향상

원장들은 4회기로 구성된 지피지기 안(安) 육아 프로그램을 함께 준비하고 강의 시연을 한 후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구성원들과 그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일회성 부모교육 강의와 달리 4회기를 이어가야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적합한 준비에 대한 능력과 자신감이 향상되었다.

부모들과 처음 시작할 때 어색할 것 같은데 시작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나. 어색하지 않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마음을 열고 시작해야 4회기를 지속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벌써 떨려요.

(H 원장, 10회기 참여관찰, 2023. 9. 21.)

지피지기 안(安) 육아 강의안을 완성하고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 적절한 사례를 공유하며 강의안에 설명 노트를 적는 과정에서 H 원장은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어색할 것에 대한 걱정을 표현하였다. 강의안에 노트를 달다보니

강의를 전체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그러지면서 갑자기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할 지가 걱정되었다고 하였다. H 원장의 말에 구성원 모두 동의하였고 그에 따른 방법을 논의하면서 제시된 방법을 구성원들과 직접 실행해보고 결정하였다.

D 원장: 부모님들이 서로 안다고 해도 부모교육 자리에서는 처음 만나는 것이니까 자기소개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H 원장: 자기소개를 하면 분명 누구 엄마입니다. 하고 끝날 것 같은데 그러면 오히려 더 어색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게임을 하는 것도 이상할 것 같고 다른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연구자: 저 같은 경우도 먼저 자기소개를 돌아가면서 하게 합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예상하신대로 약간 어색해 하면서 소개가 끝나요. 그런데 그렇게 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분들은 소개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첫인상도 느끼게 되면서 그 사람에 대해 파악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본인의 장점을 적어보라고 종이를 나눠 줘요. 부모님들이 의외로 장점을 잘 못 적고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과정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되요. 장점을 다 적으면 진행자가 장점을 적은 종이를 걷어 읽어 주면서 어떤 분의 장점일지 맞춰달라고 하지요. 그리고 맞추신 분에게 아주 작은 거라도 선물을 준비해서 줍니다. 물론 장점을 다 발표하고 나면 선물은 모두 하나씩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요. 이렇게 진행하면 장점을 말하고 서로 맞추면서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더라고요.

A 원장: 우리가 지금 직접 해보고 결정해요.

(10회기 참여관찰, 2023. 9. 21.)

이처럼 원장들은 지피지기 안(安) 육아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구체적인 진행 방법에 대해 고민하였다. 원장들은 고민을 통해 4주 동안 매 주 만나야 할 부모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부모들이 그 내용을 가정에서 잘 적용하도록 돕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원장들은 가정활동 자료를 준비해서 각 회기 마다 가정에서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을 과제로 주고 다음 회기를 과제 발표를 하면서 시작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논의를 통해 1회기, 2회기, 3회기 내용

에 적합한 가정활동자료를 만들었다.

지피지기 안(安) 육아 1회기의 제목은 ‘나는 어떤 부모인가?’로 부모 자신의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1회기에서는 부모로서 지금의 내 모습을 돌아보고 양육 상황에서 제어하지 못하는 내 감정의 원천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도록 돕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부모 자신의 행복이 자녀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힘이 되므로 부모 자신의 정서적 편안함을 돕는 실천 방법도 포함하였는데 그 중 하나로 장점 찾기를 1회기 가정활동으로 준비하였다. 1회기의 처음 시작을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의 장점 찾는 활동으로 시작했다면, 가정에서는 가족의 장점을 서로 적어보고, 읽어주는 활동으로 확대하였고 이를 위해 장점을 적을 접이식 부채와 활동지를 함께 배부하였다. 그림 9는 1회기 활동지와 A 원장의 어린이집에서 활동한 결과인 장점 부채이다.



[그림 9] 1회기 가정활동지와 활동자료

지피지기 안(安) 육아 2회기는 ‘너는 어떤 아이이니?’ 라는 제목으로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영아의 기질 관련 내용으로 진행되었고 이에 따른 가정활동으로 자녀의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하게 사랑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3회기는 ‘너와 나는 어떤 사이?’ 라는 제목으로 영아의 안정적 정서를 지원하기 위해 부모와 영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돕는 애착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가정활동은 영아의 안정애착형성을 돕는 놀이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원장들은 4회기로 이어지는 지피지기 안(安)육아 부모교육의 전체 진행 흐름을 예상하면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였고 그에 따른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는 노력을 하였다.

지피지기 안(安)육아 프로그램은 각 회기마다 이론에 관한 강의, 실습활동, 발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장들은 프로그램 실행 전에 강의 시연을 하면서 강의식 부모교육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왔다.

D 원장: 여기는 컴퓨터랑 연결하는 게 뭐가 다르네요.

연구자: 그러네요. 원장님 노트북이 얇은 거라 HDMI 연결 포트가 없네요. 여기 사장님께 여쭙보죠.

H 원장: 아 그래서 이렇게 미리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네요.

연구자: 기기마다 가끔 연결선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젠더가 있어야 되요. 미리 확인을 하면 당황스럽지 않지요.

(13회기 참여관찰, 2023. 10. 19.)

원장들은 부모교육을 하기 위해 어린이집 근처에 위치한 스터디 룸, 세미나실, 공유사무실 등을 대여하였다. 강의 시연도 실제 부모교육에 사용할 장소에서 이루어졌는데 어린이집이 아닌 외부 장소에서 진행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원장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강의식 부모교육을 위해 필요한 준비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에 따른 기기 사용 등의 방법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실제 강의 준비에 적용하여

좀 더 세심하게 부모교육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A 원장은 부모교육을 하는 자신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참석한 부모의 동의를 얻어 부모교육 전 과정을 녹화했다고 하였다.

저는 혼자 하니까 부모님들 동의를 얻고 제가 하는 거를 영상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영상을 보니까 제가 지금 우리 시장하는 것처럼 그랬지요. 그랬지요. 그렇게 말을 안 하고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원장님들 앞에서 시연하는 게 가장 어색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보니까 다음에는 위치를 달리 해보자, 말을 이렇게 해보자. 이런 반성들을 하게 되면서 그 다음은 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A 원장, 15회기 참여관찰, 2023. 11. 2.)

A원장의 사례를 들으면서 원장들은 공감을 하였다.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강의 시연을 할 때와 부모들을 만나서 강의를 실제로 할 때의 분위기가 많이 다른데 실제 부모들을 만나 강의를 할 때가 더 자연스러워진다고 하였다. 하지만 강의 시연을 하지 않았다면 실제 강의에서 자연스러울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원장들은 강의 시연은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하였다.

원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시장할 때 보다 부모님을 만나서 강의 할 때 더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들의 반응에 따라 이야기도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끝나고 나면 뿌듯한 마음도 들었어요. 시장은 원장님들 앞이라 더 떨리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시장을 하지 않았으면 못 해냈을 것 같아요. 시장을 하면서 내용도 다시 알게 되고 이런 기기 사용하는 것도 알게 되고. 이렇게 함께 한 시간이 저는 너무 소중한데요.

(J 원장, 15회기 참여관찰, 2023. 11. 2.)

원장들은 이 외에도 4회기 동안 부모교육을 진행하면서 필요했던 준비로 간식, 필기도구, 교육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부모들의 개인 파일, 이름표, 수료증, 꽃다발, 현수막 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각 어린이집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였다. 이렇게 원장들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적합한 준비를 할

수 있는 능력 향상과 그에 따른 자신감이 향상되었다.

이처럼 원장들은 부모교육 실행을 위한 준비로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학습한 지식을 내면화함으로써 부모교육에 대한 자신감 향상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리고 공동체 모임에서 배우게 된 카드뉴스 제작, 강의안 제작, 녹음 영상 제작 방법 등을 활용하여 부모교육을 준비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또한 4회기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준비 방법을 찾아내는 능력도 향상 되었으며 이를 통해 부모교육 실행을 위한 자신감이 향상되었다.

### 3) 다양한 방식의 부모교육 실행

#### (1) 전문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된 부모상담

원장들은 전문적학습공동체 모임을 통해 부모교육을 위한 학습을 하고 다시 어린이집에 돌아가 학습한 내용을 적용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그동안 알고 있던 내용을 좀 더 체계화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원장들은 부모교육에 관한 자신감이 생겼고 전문성이 증진되었다고 느끼면서 부모교육 실행에 관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부모교육 실행의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부모 상담에서의 변화로 원장들은 부모와 상담할 때 공동체 모임 전과는 달리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하면서 부모의 양육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우리가 공동체 모임에서 학습하면서 알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알지만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 알지만 잘 전달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좀 더 확실하게 알고 잘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런 힘들을 저 뿐만 아니라 모두 다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부모교육을 하는 전문성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거 같아요.

(I 원장, 2차 집단면담, 2023. 11. 24)

부모님들이 어려움이 있거나 아이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그 때 마다 늘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하기는 했는데 사실 육아에 정답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 해주는 것이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공동체 모임을 하고 나서는 알고 있던 것들에 대해 좀 더 체계가 잡혔고 좀 더 자신감이 생기면서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릴 때 아이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런 부분인 때문인 것 같아요 이런 방법으로 도와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 줄 수 있게 되어서 공부한 보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에 저도 뿌듯합니다.

(J원장, 2차 집단면담, 2023. 11. 24)

원장들은 기본적으로 부모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실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부모들과 상담을 하거나 부모교육을 하고자 할 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장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모임을 통해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원장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모교육 관련 지식을 체계화하고 실제로 잘 전달할 수 있는 힘을 키우면서 부모교육 관련 지식에 전문성이 증진되었고 부모 상담에 잘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어떤 어머니랑 상담하면서 아이 기질에 대해서 이야기 했어요. 이 아이가 순한 기질이라서 조용히 잘 노는 편이다. 그런데 순해서 별다른 요구 없이 아이가 잘 놀아도 마냥 혼자 놀게 두는 것 보다는 적절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다른 경험도 하게 해줘야 전반적인 발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좀 더 신경 써서 놀이 할 때 이렇게 저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얼마 전에 센터에 가서 기질 검사를 했는데 원장님이 하신 말씀이랑 똑같다고 그러면서 본인도 가정에서 신경 쓰고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 여기서 공부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았고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니 까 더 자신감이 생기고 전문성이 높아졌다는 생각에 뿌듯한 거예요. 진짜 공동체하기를 너무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A 원장, 6회기 참여관찰, 2023. 8. 24.)

부모 상담을 할 때 공동체에서 배운 걸 좀 더 공부해서 사용해봤어요. 부모님께 영아 기질 검사랑 양육태도 검사를 체크해달고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부모님과 상담했는데 부모님이 속이 시원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셨어요.

(I 원장, 1차 개별면담, 2023. 8. 7.)

저희 어린이집에 온지 얼마 안 되는 영아가 있는데 이 아이는 활동이 바뀔 때마다 불안해하고 “엄마한테 갈 거야” 그러는 아이예요. 부모님은 아이가 예민하고 낯가림이 심해서 그렇다고 전에 다니던 어린이집에서는 5개월을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에게 자극민감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아이가 등원하면 5~10분 정도 친구들이 놀이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환경에 익숙해지면 놀이하도록 해준다고 말씀드렸더니 만족하시더라고요. 아이도 변하는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미리 알려주고 기다려줬더니 우는 행동이 90% 정도 감소했어요. 부모님들도 아이에 대해 이해하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이야기 해주시니까 좋더라고요.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게 되고 설명도 잘 할 수 있게 되니까 전문가가 된 느낌이 들어요.

(F 원장, 1차 개별면담, 2023. 8. 16.)

이처럼 원장들은 부모 상담을 하면서 학습한 내용을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상담을 마치고 난 후 부모가 전하는 긍정적인 반응을 경험하면서 원장으로서의 효능감도 경험하고 있었다.

가정어린이집은 아이들이 등·하원 할 때 마다 부모를 만나면서 수시로 개별상담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원장들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개별상담이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맞춤형 부모교육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윤미경, 배지희, 2021). 이처럼 매일 이루어지는 일대일 상담의 방법은 변화가 없지만 공동체 모임을 통한 학습은 일대일 상담의 내용에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 같은 부모교육 실행의 변화는 공동체 모임의 학습을 통해 원장들의 부모교육 전문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이해된다.

## (2) 새로운 방법으로 실행한 부모교육

원장들은 부모교육을 잘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학습하면서 부모교육 실행을 위해 준비를 하였고 그러한 방법을 응용하면서 부모교육을 실행하는 방식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림 10은 부모교육을 전달하기 위해 B 원장이 제작한 오디오 부모교육 QR 코드이다.

저는 저희들이 녹음 영상 만든 것을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원장님이 아버지 날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로 아이들이 만든 도자기 액자에 아이 영상이 담긴 QR 코드를 넣었다고 얘기해주셨잖아요. 갑자기 그 방법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녹음 영상을 QR 코드로 만들어서 아이 하원할 때 기다리는 시간에 부모님이 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 문에 게시를 했어요. 부모님들이 색다르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녹음해서 정기적으로 게시하려고 해요  
(B 원장, 개별면담, 2023. 11. 17.)



[그림 10] 어린이집 현관문에 게시된 오디오 부모교육 QR 코드

원장들은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고, 또 알고 있었더라도 부모교육에 시도해보지 않았던 카드뉴스 제작, 동영상 제작 등의 방법들을 공동체 모임을

통해 알게 되면서 직접 제작을 해보고자 서로 도우며 학습을 했었다. B원장은 이렇게 공동체 모임을 통해 부모교육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접하면서 디지털 세대에 사는 부모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부모교육이 무엇일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B 원장의 고민은 공동체에서 제작한 녹음영상을 QR 코드에 담아 오디오 부모교육으로 사용하는 방법의 진화를 보여줬다. 이렇게 만들어진 QR 코드는 카드뉴스 제작 방법을 응용하여 어린이집 현관에 게시할 수 있는 게시 자료로 만들어졌다. B 원장은 영아들이 하원을 준비할 때 부모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오디오 부모교육에 활용 한 것이다. 이처럼 원장들은 공동체 모임을 통해 배우게 된 방법들을 이용하여 가정통신문, 동영상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부모교육 실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3) 공동체에서 개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행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 원장들이 학습하면서 이루게 된 가장 큰 변화는 지피지기 안(安) 육아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접 4회기로 진행되는 부모교육을 실행하게 된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 10명 중 6명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모교육 실행하였고 4명은 실행을 유보하였다.

다른 원장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린이집에서 부모교육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물론 상담이나 오리엔테이션이나 그런 것들은 다 하는데 부모교육 주제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부모를 모셔놓고 하는 걸 안 해봐서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공동체 모임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신청했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해나가는 것에 저는 너무 만족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강의 시연하면서 부모들 신청을 받아 지피지기 안 육아를 시작 했잖아요. 그냥 해보자. 라고 용기내서 시작했는데 막상 하려니 막막한 마음이 들어 자꾸 준비

하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매주 하면서 제가 준비를 했던 것이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I 원장, 2023. 2차 집단면담, 11. 24.)

저는 공부만 하고 나태해져서 제가 실행을 못할까봐 엄마참여수업 끝내고 한마디 할 때 “저 이제 부모교육을 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매주 한번씩 4번 정도 모일 거예요.” 했더니 엄마들이 너무 기대하더라고요.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면 내가 못할 것 같아서 그때 그렇게 말하고 약속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용감하게 시작했고 저도 지난주에 4회기하고 수료식 했어요. 그런데 저는 하면서 내가 아직 모르는 것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를 계속하려고요.

(D 원장, 2차 집단면담, 2023. 11. 24.)

원장들 대부분은 부모교육 주제를 가지고 다수의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직접 진행해 본 경험이 없었다. 원장들은 공동체 모임에서 기질을 주제로 학습을 시작했고 그렇게 기질에 대해 좀 더 깊이 알게 되면서 학습한 내용을 부모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했었다. 그때 강의안을 만들어 보자는 의견을 B 원장이 제안하였고 그 의견은 양육태도, 애착을 학습하면서 3~4회기로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성장했으며 결과적으로 4회기의 지피지기 안(安) 육아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누적되면서 원장들은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증진되었다.

원장들은 업무를 마치고 저녁에 모여 예정했던 2시간의 모임 시간을 항상 넘기면서 만들어진 지피지기 안(安) 육아 프로그램에 자부심을 느꼈고 그 자부심을 바탕으로 함께 했던 노력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4회기로 진행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행에 용기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4회기로 진행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해낸 원장들이 구성원 모두와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A 원장은 꼭 필요한 분에게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라도 부모교육을 해주고 싶다는 의욕이 생겼다고 하였다.

이번 부모교육에 참여하고 싶은데 못 하신 엄마가 있어요. 그 엄마가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이제 눈에 들어왔나 봐요. 그런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못 한 거예요. 아이가 4살인데 아빠도 엄마도 할머니도 항상 억박지르듯이 아이를 대해요. 그리고 아이한테 반응을 잘 안하니깐 아이는 더 화를 내고. 이런 상황들이 눈에 보여서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부모교육을 마치면서 뭔가 체계가 더 잡히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 엄마만 모시고 4회기를 해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자신감이 생기고 부모교육 전문가 된 것 같아 이 공동체 모임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A 원장, 2차 집단면담, 2023. 11. 24.)

이처럼 A 원장은 재원하고 있는 영아의 부모님 상황과 부모님이 자녀를 대하는 방식에 안타까움을 표현하며 그 영아의 부모님에게 개별적으로라도 지피지기 안(安) 육아 부모교육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였다. 이는 A원장이 해당 영아의 건강한 성장을 진심으로 돕고 싶은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부모교육 공동체 모임에서의 학습을 통해 얻게 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결과로 이해된다.

한편 A 원장은 4회기 동안의 과정과 마음이 담긴 개인적인 기록과 4회기를 마치면서 보내온 부모님의 글도 공유해주었다. A 원장은 강의를 세심하게 생각하며 하나하나 준비했던 시간이 뿌듯했고 부모님들의 질문에 자연스럽게 답변할 수 있게 된 본인의 모습에 어느새 전문성이 높아졌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였다. A 원장은 전문성 증진으로 자신감을 얻었고 부모교육을 진행하면서 효능감이 높아지는 순간도 경험하였다고 했다.

4회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부모님들은 끝남을 아쉬워 하셨다. 4회기를 시작하고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부모님들이 던지는 질문에 나도 모르게 척척 대답을 하고 있음을 느꼈다. 내가 성장했음을 느낀 순간이다. 부모님과 함께 하면서 부모님들이 아이 키우며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훈육하고 마음을 읽어주며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서로 이야기 나누며 해결 방안을 함께 찾아나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A 원장, 개인기록, 2023. 11. 21.)

원장님 항상 육아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도 화가 나는 것을 누르고 \*\*이와 차근차근 이야기하니까 \*\*이가 마음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소리 지르지 않고 평화로운 육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작은 희망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화요일이었어요.

(A 원장, 부모소감, 2023. 11. 21.)

이렇게 지피지기 안(安) 육아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6명의 원장들은 2023년 부모교육에 참여한 부모들을 지피지기 안(安) 육아 1기로 명명하면서 2024년 지피지기 안(安) 육아 2기 진행을 기획하고 있었다. 한편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성원으로 함께 학습을 지속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피지기 안(安) 육아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했던 4명의 원장들은 아쉬움을 표현하며 프로그램을 꼭 진행해보고 싶다고 하였다.

저희는 부모님에게 이번이 1기라고 했어요. 지피지기 안(安) 육아 1기 저희가 드디어 해낸 거죠. 내년에는 지피지기 안(安) 육아 2기를 모집하려고요.

(J 원장, 2차 집단면담, 2023. 11. 24.)

C 원장: 4회기 부모교육을 하신 원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부러워요. 저는 사실 시간도 그렇고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아서 못 했는데 꼭 해보고 싶네요.

F 원장: 원장님들 강의 시연하는 거 보면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이렇게 원장님들이 진행했던 이야기 해주시니까 꼭 해야겠다. 는 생각이 더 들어요. 저도 내년에는 꼭 할 거예요. 그때 도와주세요.

(2차 집단면담, 2023. 11. 24.)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에 참여한 원장들은 부모교육 실행에 변화를 나타냈다. 16회기에 걸쳐 이루어진 공동체 모임에서는 부모교육의 주제로 기질, 양육태도, 애착, 감정코칭을 선택하여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학습하였고 학습한 내용을 부모교육으로 잘 전달하기 위해 카드뉴스 제작, 녹음 영상 제작, 강의안 제작 방법도 배웠다. 원장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모교육의 내용을 내면화 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자신감이 높아지면서 학

습한 내용들을 각자의 어린이집에서 실행하고 있었다. 원장들의 부모교육 실행의 변화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체계적인 상담, 부모교육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 실행 그리고 4회기로 진행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행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를 불러온 것은 보육전문가인 원장들이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부모교육을 실행하겠다는 목표를 이루고자 부모교육에 관한 가치와 비전, 자신의 전문지식과 실천을 공유하며 구성원 모두 함께 협력하고 노력한 집단지성의 힘이라고 볼 수 있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의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과정과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원장들이 부모교육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고민을 나누고, 실행하는 구체적인 사례와 변화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영유아교육기관 원장들의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과 관련된 이해를 돕고,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원장이 중심이 되어 부모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 1.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과정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운영 과정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개의 시기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적응기로 구성원들은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시작하면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혼란을 경험하였으나 모임에서 구성원들과 생각을 나누며 전문적학습공동체에 적응을 한 시기이다. 두 번째는 집중기로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적응한 원장들은 학습하기 시작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고 사례를 공유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학습에 더욱 집중을 한 시기이다. 세 번째는 발전기로 집중적으로 학습을 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다른 주제의 학습을 이어갔고 동시에 부모교육을 직접 실행하고 싶다는 의지로 부모교육에 사용할 강의안을 만들면서 부모교육자로서 전문성을 발전시켜나간 시기이다. 네 번째는 결실기로 발전기를 통해 개발된 4회기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강의시연을 하고 각

자의 어린이집에서 4회기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하는 결실을 맺은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종결 및 유지기에는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모임의 구성원으로서 그간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모임을 종결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고 구성원 모두의 의견으로 유지를 결정한 시기이다.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과정을 시기에 따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 1) 적응기

적응기는 구성원들이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시작하고 공동체 모임에 적응을 한 기간이다. 본 연구는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 사전모임을 통해 학습할 내용과 방법에 대해 협의하고 계획하며 시작한 모임이지만 구성원 중 일부는 1회기를 시작하고 구성원들이 각자 학습한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고 이러한 자신이 공동체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생겼다고 하였다. 안유리(2022)는 원외 유아교사 학습공동체에서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어렵다고 느낀 구성원이 공동체 참여에 대한 불안과 미안함을 드러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Dooner 등(2008)은 중학교 교사들이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시작하면서 일부 교사가 자신이 공동체에서 진행하는 학습 주제에 대해 잘 모르는 것처럼 보일까봐 두려웠다고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 참여한 원장들은 모임 시간이 예정했던 시간을 넘어 이어질 때는 먼저 나가야 하거나 또는 모임에 지각하고 결석을 해야 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도 속상하고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공동체에 참여하면서 교사교육자들이 개인차를 느끼게 되었고 현실적인 한계도 인지하게 되었음을 보고한 강희신, 박수경(2018)

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면서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모두 위와 같은 어려움을 유사하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원장들은 구성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 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며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를 통해 원장들은 학습의 개인차와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안하고 속상한 마음을 어렵지 않게 극복하면서 공동체 모임에 적응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구성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을 하면서 불안감이 해소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되었다는 선행연구(안유리, 2022)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 일부 교사교육자들이 모임의 다른 구성원들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졌으며(강희신, 박수경, 2018),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초기에 의욕이 넘치는 리더와 구성원이 충돌하면서 성장통을 경험했다는 보고(조윤정 등, 2016)와는 맥락을 달리한다. 이는 전문적학습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공동체의 리더는 공동체를 시작하는 전반기에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감 형성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가정어린이집 원장은 원장의 역할 외에도 교사 겸직, 조리사 겸직, 차량기사 겸직 등의 다면적 겸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지영, 김현주, 2016). 이처럼 원장들은 많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부모교육을 잘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공동체 모임은 원장들의 업무가 끝난 후 저녁 6시에 모여 간단히 식사를 하고 9시에 마치는 것으로 결정하고 진행되었다.

Leclerc 등(2012)은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발전하려면 교사의 학교 업무 시간 중에 공동체 모임 시간이 따로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원장들이 부모교육에 관한 학습을

위해 업무를 모두 마친 후 추가적으로 시간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다양한 업무로 원장 고유 업무에만 집중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어린이집 원장에게 최우선으로 제고되어야 할 정책은 보육교사 겸직 제도이다. 보육교사 겸직 제도는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업무 시간 내에 원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원장들이 업무 시간 안에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며 질 높은 보육에 전념하도록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직 제도는 제고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정서적 친밀감을 형성하면서 학습을 시작하였고 학습한 부분을 어린이집에서 경험한 사례에 접목하고 논의하면서 서로의 학습 이해를 도왔다. 또한 학습의 내용을 부모로서 경험했던 개인적인 사례와 접목하면서 자신의 양육태도를 반성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과정에서 원장들은 동질감과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공동체 모임에 참여한 교사들이 다른 교사들과 사례를 나누고 소통하며 서로에 대해 공감을 하게 되면서 정서적 지지와 위로를 얻었다는 김태영(202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그리고 원장들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부모 상담에 적용하고 부모를 코칭한 후 달라진 영아의 사례 등을 공유하면서 공동체가 나아갈 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부모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가치와 부모교육을 전문적으로 실행하겠다는 비전을 다시 한 번 공유하였다. 최남정과 임부연(2013)은 유아교사학습공동체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연구에서 공동체 운영이 시작된 시기를 내면화기로 명명하고 이 시기는 공동체 구성원이 친밀감을 형성하면서 공동체가 공동으로 지향하는 가치를 구체화 시켜 공동체를 유지하는 단계라고 하였다. 이는 적응기로 명명한 본 연구의 운영 과정과 유사한 맥락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유지되려면 구성원들의 정서적 친밀감 형성을 기반으로 구성원 각자가 가진 가치관에 대해 논의를 하면

서 공동체가 공동으로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을 확립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시사한다.

## 2) 집중기

집중기는 원장들이 공동체 모임에서 학습한 내용을 어린이집에 돌아가 적용하고, 적용했던 내용을 다시 공동체 모임에서 공유하면서 학습에 집중하게 된 시기이다. 원장들이 부모교육을 위해 처음 선정한 주제는 기질이다. 원장들은 기질에 대한 도서를 선정하고 읽으면서 기질에 대해 깊이 학습하게 되었고 특성이 강한 영아의 기질에 대입해보며 서로 사례를 공유하고 영아의 행동 특성과 영아를 지원했던 방법에 대해 함께 논의하면서 학습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처럼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적용하는 지속적인 작업은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 최우선에 두어야 하는 작업이다(Hord, 1997). 또한 공동체 모임에서 학습한 내용을 개인적으로 실천하고 그 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서로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과정의 특성이다(진다정, 이승연, 2021; 최남정, 임부연, 2013; Chuang & Ting, 2021).

원장들은 영아의 기질을 검사하고 분석해보면서 부모들도 자녀의 기질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부모교육 방법에 대해 고민하다가 부모가 기질에 관심을 가지도록 돕는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전자 알림장에 올리기로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원장 중에 카드뉴스를 제작하는데 익숙한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이 카드뉴스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제작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제작 방법을 빠르게 습득한 구성원들은 다른 구성원들이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종철(2019)은 학교에서의 전문적학습

공동체 변화과정과 변화 동인에 대한 연구에서 공동체의 리더가 공동체의 운영을 직접 주도하기보다 구성원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과 권한을 정해주고 뒤에서 지지해주는 분산적 리더십을 이루는 것이 학교 변화에 중요한 힘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성원의 효과적인 학습과 전문성 개발을 위해서는 자신의 리더십을 적절하게 분산키면서 주도성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영유아교육기관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운영되는 전문적학습공동체에 적절한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 영유아교육기관의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잘 이끌 수 있는 리더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원장들은 모임을 통해 새로운 학습과 카드뉴스 제작, 강의안 제작 등의 기술을 습득하면서 학습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다. 이처럼 원장들이 모임과 학습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운 힘은 공동체 모임에서 구성원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느끼게 된 동질감과 유대감 그리고 신뢰에서 비롯되었다. 원장들은 업무를 마치고 공동체 모임에 참석하여 저녁식사를 함께 한 후 학습을 시작하였다. 원장들의 저녁 식사 시간은 어린이집 이야기, 가족 이야기 등으로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 공감하는 시간이었고 업무로 인한 심신의 고단함을 해소하는 편안하고 안전한 시간이었다. 이는 Chuang 과 Ting(2021)의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 구성원들이 서로의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공동체 활동을 위한 워밍업 활동으로 동료 간의 신뢰를 쌓는 것이라고 한 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학습에 집중하게 된 원장들은 자신의 지식을 정리하고 체계화하면서 원장으로서의 자신감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집중기는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전체 운영 과정에서 전반기에 해당한다. 진다정과 이승연(2021)은 놀이중심 교육 실행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전반기를 침체 및 재정비기로 구분하면서 교사들이 공동체 모임 시간에도 바쁜 업무로 자리를 비우게 되는 상황들이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학습에 집중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적학습공동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고 싶다는 원장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각 어린이집의 모든 업무가 끝난 저녁과 밤 시간에 어린이집과 분리된 외부 세미나실에서 모임을 진행하였다. 만약 업무가 지속되는 일과 중에 어린이집에서 공동체 모임이 진행되었다면 본 연구 또한 학습에 집중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교사와 원장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학습 시간의 확보와 더불어 공동체 모임에 집중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 3) 발전기

발전기는 구성원들이 그동안 학습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주제로 학습을 이어가면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강의안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부모교육 전문성을 발전시킨 시기이다. 원장들은 부모가 자녀의 기질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상호작용을 하도록 돕기 위해 애착, 양육태도, 의사소통 등에 대한 주제로 학습을 이어갔다. 학습을 이어가면서 원장들은 기질에 관한 학습에서 어려웠던 내용이 새로운 주제의 학습과 연결되면서 좀 더 쉽게 이해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부모교육을 직접 실행하기 위한 강의안을 만들기로 협의하였다. 이러한 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Vescio 등(2008)이 공동체 모임에서 교사가 학습을 지속하는 것은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에 중요한 요소로 교사의 지속적인 학습은 학생을 가르치는 문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원장들은 학습을 하는 과정에 구성원의 책 낭독을 듣게 되면서 오디오북 처럼 책을 녹음하여 부모교육에 사용하자는 구성원들의 제안에 부모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을 선택하고 녹음을 하였다. 또한 원장들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원과 협력하면서 4회기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원장들은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10월에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그에 따른 강의안을 제작하기 위해 적절한 콘텐츠를 찾아 공유하였고 전달을 잘 하기 위해 부모교육의 내용을 보완하면서 지피지기 안(安)육아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 구성원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지지하면서 협력하는 문화 덕분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었고(Chuang & Ting, 2021), 공동체 모임을 통해 발전한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구성원과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배울 수 있게 된 경험이 공동체 모임의 큰 장점(Gee & Whaley)이라고 보고한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박소영과 정지현(2015)이 공동체 모임이 진행되면서 구성원들의 관계는 더욱 협력적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구성원들은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실천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고 보고한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한편 본 연구와 조금 다른 맥락으로 이미영(2021)은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과정의 중반기에는 구성원 간에 의견이 상충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집단전문성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전문적학습공동체 모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이 상충되는 과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구성원간의 상충된 의견을 절충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가정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협력문화가 공동체에 형성되어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전문적학습공동체의 리더는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는 전체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기반으로 협력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피지기 안(安) 육아 프로그램을 완성한 원장들은 부모교육에 참여한 부모가 교육을 받은 후 가정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가정활동 자료를 프로그램 회기 마다 추가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보완하며 강의 준비를 하였다. 강의안이 완성된 후 원장들은 부모교육 신청서를 만들고자 함께 논의한 후 2명의 원장이 지피지기 안(安) 육아 신청서를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공유하였다. 또한 공유된 신청서를 사용하면서 어려움을 표현하는 구성원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 도우면서 서로의 노력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유리(2022)는 유아교사의 학습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운영 과정의 중반기를 실행·발전단계로 구분하고 이 시기를 경력, 직급, 연령, 근무기관이 모두 다른 구성원들이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주며 지식과 정보를 나누면서 함께 성장한 시기라고 하였다. 또한 이원미(2021)는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과정의 중반기를 성장기로 구분하고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실행하기 위해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과 피드백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라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전문적학습공동체는 협력적 전문성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협력적 전문성 개발은 개인이 본인의 시행착오나 연수를 통해 지식을 획득하던 전통적인 전문성 개발 방식을 벗어나 전문적학습공동체에 참여하여 구성원들과 함께 서로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교육 자료와 실천 등을 공유하면서 개인의 지식 향상 뿐 아니라 공동체의 공동지식 발전에 기여하며 전문성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서경혜, 2009).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구성원들이 공동체 모임을 통해 서로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실천 등을 공유하면서 협력적 전문성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교육기관에서는

직무교육이나 연수 등의 전통적인 전문성 개발 방식을 지양하고, 영유아의 교육과 부모교육에 관한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구성원들이 모여 협력을 통해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영유아교육기관의 원장이 필요성을 체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확산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4) 결실기

결실기는 원장들이 공동체 모임을 통해 개발한 지피지기 안(安) 육아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하며 결실을 맺은 시기이다. 원장들은 강의 시연을 하면서 강의안 제작에 사용된 파워포인트 수정 방법을 익히고 강의 진행을 위한 기기를 구입하여 사용법도 공유하였다. 또한 강의 시연을 참관하는 구성원들이 부모 역할을 하며 피드백을 하는 과정에서 강의하는 방법을 익히고 강의 내용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사례도 보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 많은 시간을 학습에 할애하고 구성원들과 실천 사례를 공유하며 긍정적인 피드백과 전문적인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기술을 습득하게 되었고(Chuang & Ting, 2021), 구성원들과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경험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기가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구성원은 강의나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산지식을 얻으면서 자신의 실천을 개선하게 된다(서경혜, 2019)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강의시연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지피지기 안(安) 육아 프로그램 진행을 먼저 시작한 원장들은 자신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면서 다른 구성원의 부모

교육 준비와 실행을 도우며 응원하였다. 그리고 직접 부모교육을 진행하면서 부모교육에 참여했던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경험하게 된 원장들은 그동안의 노력을 보상받은 느낌에 자존감과 효능감이 높아졌다고 하였다. 이렇게 지피지기 안(安) 육아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고 마무리를 하게 된 원장들은 서로를 축하하고 격려하며 더욱 강해진 유대감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적학습공동체에 참여한 구성들에게 집단 효능감이 나타나고(Anderson & Oliver, 2022),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공동체 모임에서 학습한 내용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록 구성원들의 사기와 열의가 높아진다고(배정현, 박미희, 2020)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부모교육을 통해 영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비전과 그에 따른 부모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가치를 공유하면서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부모교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학습을 시작하면서 구성원들과 신뢰를 형성하고 서로 협력하였고 이를 통해 부모교육과 관련한 의미 있는 성취와 결실을 경험하면서 모임이 진행될수록 부모교육을 위한 공동체 모임에 열의가 높아지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는 이종철(2019)이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한 학교의 변화는 같은 비전을 기반으로 변화의 토대를 잘 만든 상태에서 전문성을 가진 모임을 통해 구성원들이 의미 있는 성취 경험을 지속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변화의 동인이 사람, 토대, 방식, 경험의 4가지 차원으로 존재하고 4가지 차원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변화가 지속된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들은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운영과정이 결실을 맺기까지는 구성원, 구성원을 지원하는 리더, 공유하는 가치와 비전, 학습을 이어가는 방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습 내용 등의 요소가 조화를 잘 이루면서 진행되어야 하는 복잡하고 조심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구성원들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리더는 전문

적학습공동체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요소의 역동성을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 5) 종결 및 유지기

종결 및 유지기는 모임의 구성원인 원장들이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했던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 공동체 모임을 종결할 것인지 유지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한 후 유지하기로 결정한 시기이다.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에 참여하면서 혼자 고민하던 것을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고, 위로를 주고받은 시간들이 무엇보다 좋았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안도감과 동질감을 경험한 원장들은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며 학습을 하였고, 학습을 지속하면서 부모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천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또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직접 실행하는 경험을 통해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증진되었으며 원장으로서 자존감과 효능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적학습공동체를 분석한 많은 연구(김태영, 2022; 김현정, 2023; 박선정, 2021; 박소영, 정지현, 2015; 이미영, 2021; 이원미, 2021; 조기희, 2015; Chuang & Ting, 2021; Gee & Whaley, 2015, Kelly & Cherkowski, 2015))에서도 고립된 교실이나 개인적인 학습 환경에서 벗어나 전문적학습공동체 모임에 참여하게 된 구성원들이 모임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고민을 공유하고 위로하며 동질감과 유대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적인 공감을 통해 신뢰를 형성한 구성원들은 서로 협력하면서 학습을 지속하고 그렇게 학습한 내용을 실천하면서 전문성이 증진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본 연구와 같은 결의 결과로 전문적학습공동체가 가진 특성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 원장들 모두는 구성원들과 형성한 유대감으로 공동체 모임을 편안하고 안전한 곳으로 생각하면서 좀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주제로 부모 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유지하고 싶다고 하였다. 본 연구와 같이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운영 과정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후반기에 나타나는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종결과 유지에 대한 결과를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보고하고 있다. 안유리(2022)는 원외 학습공동체를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한계점으로 인해 학습공동체를 계획하는 과정에서부터 6개월간 운영하기로 정했고 기한에 맞춰 학습공동체를 마무리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운영 과정의 후반기를 정착화·유지 단계라고 명명하고 공동체를 마무리하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는 구성원들을 통해 공동체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추후 기회가 된다면 공동체를 재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다. 진다정과 이승연(2021)은 공동체 운영 과정의 후반기를 유지발전기로 명명하고 공동체를 통한 긍정적인 경험과 한계 등을 논의하며 공동체 유지와 발전을 합의한 시기라고 하였다. 김현정(2023)의 연구에서는 공동체 운영 과정의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구성원들이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학습공동체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 리더를 선정하기로 의견을 수렴한 이 시기를 전이기라고 하였다.

한편 최남정과 임부연(2013)은 학습공동체의 후반기에 리더가 교체 되고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구성원의 소속 교육청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공동체 활동이 소멸의 위기로 가다가 새로운 리더가 등장하면서 소멸이 아닌 전이기로 변화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통해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후반기에서 다양한 사유로 공동체의 모임이 종결이 되기도 하고 유지가 되기도 하고, 전이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운영 과정은 특별한 문제나 위기가 없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공동체 운영 과정의 후반기가 다양한

사유로 다르게 나타난 것처럼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전체 운영 과정 또한 공동체가 추구하는 방향성이나 구성원의 개인적인 특성 그리고 공동체를 구성하게 된 배경이나 인적·물적 지원 등의 다양한 사유로 갈등과 침체와 위기를 경험하면서 다양하게 나타난다(김현정, 2023; 안유리, 2022; 이원미, 2021; 진다정, 2020; 최남정, 임부연, 2013). 이처럼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운영 과정은 역동적인 과정이므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없다면 운영 과정의 어느 시기에서도 공동체는 와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전문적학습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할 때는 공동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과정의 역동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 2.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한 부모교육 실행의 변화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과정을 통해 나타난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부모교육 실행의 변화는 성찰을 통한 부모교육에 대한 관점의 변화, 부모교육에 대한 자신감과 능력의 향상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부모교육을 실행한 것이다. 첫째, 성찰을 통한 부모교육에 대한 관점의 변화로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학습을 통해 자신의 육아를 성찰하게 된 원장들은 자신의 양육태도, 영아와 부모에 관한 관점, 어린이집 부모교육에 대한 관점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둘째, 부모교육에 대한 자신감과 능력의 향상으로 원장들은 학습한 내용을 내면화 하면서 부모교육에 관한 자신감이 향상되었고 카드뉴스 제작 등으로 부모교육을 전달하는 방법 그리고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준비 능력도 향상되었다. 셋째, 다양한 방식의 부모교육 실행으로 원장들은 부모와 상담을 하면서 전문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고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새로운 방법의 부모교육을 실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협력하여 개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하게 된 변화를 경험한 것이다.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한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부모교육 실행의 변화를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 1) 성찰을 통한 부모교육에 대한 관점의 변화

원장들은 공동체 모임에서 학습한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현재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부모로서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원장들은 공동체 모임을 통해 자녀 양육에 관한 신념이 변화하고 이에 따른 양육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면서 자녀와의 관계가 개선되어 가정이 편안해 졌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강사가 부모교육을 학습하면서 양육에 관한 신념이 변화된 경험과 실천을 통해 자녀를 긍정적으로 양육하게 된 경험이 부모교육 강사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보고와도 유사하다(최해옥, 김성길, 2021). 이러한 결과를 통해 원장들이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 학습을 하며 자신의 양육태도를 반성하고 긍정적인 양육을 실천하게 된 경험은 원장으로서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 실천을 지원하는데 더욱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교육을 실행하는 원장도 부모교육을 좀 더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성찰하며 자신의 양육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자신이 먼저 긍정적인 양육을 실천하는 실질적인 경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원장들은 공동체 모임을 통해 기질을 주제로 학습하면서 영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심하고 다각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장들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부모를 만나게 되는데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태도를 보이는 부모를 만나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런 부모를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모교육을 다양한 주제로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부모로서의 자신을 성찰하면서 부모의 모습을 이해해야 부모가 긍정적인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장이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영아를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한 내용이 부모에게 잘 전달될 때 부모는 자녀의 발달적 특성뿐 아니라 개인적인 특성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부모가 자녀의 특성을 잘 이해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부모가 자녀를 긍정적인 태도로 양육할 수 있게 돕는다(우진경, 2018). 또한 부모 상담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원장이 마음을 열고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를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하며(이유희, 배지희, 2022), 이러한 노력은 부모와 긍정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면서 상담 과정에서 원장이 전하는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신뢰하도록 돕는다(우진경, 2018). 이와 같은 결과는 재원하고 있는 영아에 대한 세심한 이해와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지식이 원장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원장이 부모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어린이집 원장의 일반직무 보수교육 운영체계를 조사한 정효정(2020) 연구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원장의 재교육을 위한 일반직무과정에서 영유아를 이해할 수 있는 과목으로 기본과정에 영유아 관찰과 평가 3시간, 심화과정에 아동발달진단도구의 이해와 활용 3시간이 배정되어 있다. 그리고 부모교육과 관련된 과목은 보수교육기관에서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과정에 부모자원 활용 계획과 운영 3시간, 심화과정에 부모 요구조사 및 활용 3시간이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 원장이 일반직무교육을 통해 영아와 부모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적인 지

식을 습득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현직교육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반직무교육에 원장의 부모교육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윤미경, 배지희, 2021). 따라서 원장의 재교육을 위한 일반직무교육과 현직교육이 원장의 직무역량과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다각적인 내용으로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 내용 안에는 원장의 부모교육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 참여한 한 원장은 부모교육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으로 어린이집에서 부모교육을 실행해야만 하는 상황에 부정적 인식을 가진 상태로 공동체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공동체 모임의 회기가 점차 진행되면서 학습한 내용을 자녀에게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내면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였고 그때부터 공동체 모임에 점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원장은 지피지기 안(安)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고 마치면서 원장으로서의 효능감이 올라갔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원장은 재원하고 있는 원아와 부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원장이 부모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면서 반성적 성찰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며 교육에 관한 마음을 다시 다지게 되었음을 보고한 이춘자(2020)의 연구, 자신이 당면한 상황에 학습한 내용을 실천하면서 개인의 의식이 변화하였음을 제시한 서은총(2022)의 연구, 그리고 공동체 모임이 거듭될수록 구성원들이 자신의 교육과정 실천의 실재를 돌아보면서 재발견을 통해 관점이 전환되었다는 보고(김태영, 2022)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Tam(2015)은 교사가 지닌 뿌리 깊은 사전 신념이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 동

료와 나누는 다차원적인 학습 과정을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 구성원들과 학습하고 실천하고 공유하는 경험이 사전 신념의 변화가 필요한 구성원에게는 자신이 가졌던 교육에 관한 신념들을 점검하고 재인식하며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교육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도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영유아교육기관의 원장 재교육에 좋은 방법이 될 것이므로 다양한 교육을 주제로 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원장의 재교육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 2) 부모교육에 대한 자신감과 능력 향상

원장들은 공동체 모임을 통해 구성원들과 함께 학습하고 부모교육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부모교육 실행에 선행되어야 하는 자신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장들은 영유아교육의 전문가로서 영유아교육에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원장들은 부모교육과 관련한 내용도 이미 알고 있지만 부모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용어와 구체적인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공동체 모임을 시작한 원장들은 모임에서 학습한 내용을 어린이 집에 돌아가 적용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지속하면서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 자연스럽게 내면화된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부모교육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교육 강사는 부모교육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고, 알고 있는 지식을 마음으로 새겨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하며(최해옥, 김성길, 2021), 상담에 임할 때 교사가 일상의 경험으로 얻은 지식을 일반화하여 전하면, 부모의 공감과 이해를 받을 수 없으므로 교사는

상담자로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이론을 기반으로 영유아에 대한 견해를 부모에게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우진경, 2018)는 보고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수학 수업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 교사들은 수학에 관한 지식이 강화되었고 교실에 돌아가 기존과 다른 다양한 교수방법으로 강화된 수학 지식을 학생과 실천하면서 학생들의 수학 이해도를 높이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도 높아졌다(Gee & Whaley, 2016; Little, 2020)는 보고는 공동체를 통해 전문지식을 강화하고 실천을 하면서 자신감이 향상되었다는 맥락에서 본 연구와 결을 같이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아교육 기관의 원장들이 어떤 연수나 교육보다 전문적학습공동체에 참여했던 경험을 통해 유아교육전문가로서 원장의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지옥정, 김경숙, 2021)는 보고와 함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이는 원장이 부모교육 실행을 위한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교육과 관련된 전문지식의 습득 뿐 아니라 습득한 지식을 내면화 하도록 돕는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그러한 과정을 돕기 위해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원장들은 부모교육을 전달하는 방법에 관한 능력이 향상되었다. 소규모로 운영되는 가정어린이집 특성 상 가정통신문을 활용한 부모교육 방법을 자주 이용하는 원장들에게는 공동체 모임을 통해 학습한 카드뉴스 제작 방법, 녹음 영상 제작 방법 등이 전자 알림장으로 부모와 소통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유용하게 부모교육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기와 앱(application)의 발달 그리고 비대면 만남을 권장해야 했던 코로나 19 상황에 부모교육도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동영상, 사진, 댓글을 사용한 상호작용, 화상회의 앱을 이용한 참여 수업 등으로 부모교육 실행을 위한 방법이 다양해졌다(신혜영, 김명순, 2021; 윤지영, 한미라, 2021; 이해선, 배지희, 2021). 이처럼 디지털 매체의 발달은 부모

교육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영유아를 자녀로 둔 지금의 부모 세대는 디지털 매체에 익숙하며,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부모교육 방법으로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교육을 실행을 위해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 영유아교육기관의 원장이 부모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매체 활용 방법에 관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부모들은 육아 현실이 담긴 전문 지식으로 부모교육이 진행되기를 기대하는데, 이러한 기대는 머리로 알고는 있지만 육아 현실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부모들의 마음을 반영한 것이다(정미라 등, 2018). 이러한 부모들은 부모교육 방법으로 부모 자신이 경험한 사례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상담과 코칭을 받는 방법, 자신을 돌아 볼 수 있는 역할극 방법, 가정 방문 코칭 방법 등(윤미경 등, 2019)을 희망하였으며 이러한 부모교육이 단회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멘토링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바라고 있다(배지희 등, 2011).

이처럼 부모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에는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대상의 기대를 파악하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 구성원들이 학습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지식을 내면화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부모들도 배움과 실천을 지속하면서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원장들은 4회기로 진행 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부모들이 가정으로 돌아가 부모교육에서 배운 것을 양육 현실에서 잘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하면서 부모교육을 준비했다. 또한 라포 형성 방법, 참석자 이름표, 간식, 수료증, 꽃다발, 편안한 공간 등을 세심하게 준비하는 방법으로 부모교육에 참여한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양육을 간접적으로 지지

하고자 노력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통해 부모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에 관한 자신감이 필요하고 자신감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장들의 부모교육 실행을 위한 재교육 현장에서는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지식뿐 아니라 부모교육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도 포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부모교육을 실행하는 당사자인 원장의 요구를 파악하고 고려할 필요가 있다.

### 3) 다양한 방식의 부모교육 실행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해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부모교육에 관한 지식을 체계화하면서 전문성이 증진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부모교육 실행에서 나타난 변화는 다음과 같다.

가정어린이집은 영아들이 등·하원 할 때마다 부모를 대면하는 특성이 있다. 그로 인해 수시로 개별상담이 이루어지는데 원장들은 이처럼 수시로 이루어지는 개별상담이나 정기적으로 하게 되는 개별 상담에서 전문적인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상담을 마치고 난 후 부모가 보여준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더욱 자신감이 생겼고 원장으로서 효능감도 경험하며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증진되었다고 느꼈다.

부모들은 영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와 상담을 할 때 교사가 자녀의 행동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지면 교사를 불신하게 되고 자녀의 행동을 잘 파악해서 먼저 알려주는 교사와의 상담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녀의 행동 지도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전문가로서 교사가 잘 알려주기를 기대한다는 연구(배지희 등, 2015), 그리고 부모와 상담할 때는 근거 있는

이론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보고(우진경, 2018)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부모들은 개별상담이나 집단상담이 다른 부모교육 방법보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는데(남지영, 정혜원, 2016),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교육 현장에서 진행되는 부모 상담이 효과적인 부모교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원장이 부모와 상담을 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양육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원장들은 부모교육의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동체 모임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리고 부모교육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영상, 그림책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찾아내고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도 알게 되면서 부모교육을 전달하는 방법에 전문성이 증진되었다. 이렇게 공동체 모임을 통해 학습한 방법을 이용하여 QR 코드와 카드뉴스를 활용한 오디오 부모교육 등의 방법으로 원장들은 부모교육을 다양하게 실행하는 변화를 나타냈다.

디지털 미디어 매체가 발달하고 가족의 유형과 상황도 다양해진 현대 사회에서는 그에 따른 부모교육의 방법과 내용에도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군인가정의 영유아발달을 지원하는 사이버교육 방식(구희정, 2016), 디지털 시대를 사는 부모들의 SNS 활용 능력과 양육효능감을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노인순, 김승희, 2021), 영유아 자녀의 성교육을 위해 그림책을 활용한 부모교육(김연옥, 홍경선, 2022),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영화를 활용한 블렌디드 부모교육(방효국 등, 2023) 등이 있다.

이처럼 현대사회의 부모교육은 대상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과 색다른 콘텐츠를 적용하며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을 부모교육을 해야 하는 원장들도 알아야 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부모교육에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학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장을 위한 교육도 시대의 흐름과 상황에 따라 발전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교육을 원장의 재교육을 위한 정책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에 참여하면서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이루게 된 가장 큰 부모교육 실행의 변화는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해 지피지기 안(安) 육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채용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직접 실행을 하게 된 것이다. 원장들은 지피지기 안(安) 육아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며 성취감, 자신감, 효능감을 느꼈고 구성원들과 그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뻐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영유아교육 기관을 운영하는 원장들이 부모교육 전문가의 힘을 따로 빌리지 않더라도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전문가로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원장의 전문적인 역량을 기르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된다는 것도 시사한다.

같은 맥락으로 영유아교육기관의 원장을 대상으로 실행된 전문적학습공동체 연구(권정아, 2021; 김미란, 2021; 서은총, 2022; 송진영, 2023; 지옥정, 김경숙, 2021)에서도 전문적학습공동체 모임을 통해 원장들은 사고의 전환과 확장을 경험하고 학습한 내용을 실천하면서 전문성 증진과 구성원과의 동반 성장을 경험하였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와 더불어 부모교육을 하기 위해 사설 기관에서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고 공부를 해도 직접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면서 다른 어떤 교육보다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의 학습이 좋다고 한 본 연구의 한 원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원장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교육뿐 아니라 영유아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설계되고 실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교육 분야별 전

문적학습공동체 리더 양성, 시간과 공간 확보, 인력 확보,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의 학습에 관한 기관의 긍정적인 문화 형성 등의 다각적인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3.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부모교육 실행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를 구성하고 운영해나가는 과정과 그에 따른 부모교육 실행의 변화를 분석하여 영유아교육기관 원장의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과 관련된 이해를 돕고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부모교육 내실화 방안을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을 제시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의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운영 과정은 적응기, 집중기, 발전기, 결실기, 종결 및 유지기로 이어졌다. 적응기에 원장들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혼란으로 고민이 있었지만 구성원들과 고민을 나누는 과정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며 서로 지지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학습을 하며 공유하게 된 개인 사례를 통해 동질감과 유대감을 느끼며 공동체에 어렵지 않게 적응을 하였다. 이렇게 공동체에 적응을 한 원장들은 학습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집중기는 학습한 내용을 어린이집에 돌아가 적용해보고 그에 관한 사례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에 흥미를 느끼며 더욱 집중하게 된 시기이며 학습한 내용을 부모교육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전달 방법도 학습하고 그간에 학습한 내용과 연결된 학습주제도 결정한 시기이다. 발전기는 집중기를 보내면서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다른 주제의 학습을 이어가면서 동시에 부모교육 강의안 제작을 시작하고 발전시켜 4회기로 진행되는 지피

지기 안(安) 육아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구성원의 아이디어로 학습하고 있는 교재의 내용을 담은 오디오북 형식의 음성영상도 제작하면서 전문성을 발전시킨 시기이다. 결실기에는 발전기에 만들어진 지피지기 안(安)육아 프로그램 강의안을 사용하여 강의 시연을 하면서 강의를 위한 기기 사용법도 익히고 구성원들과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효과적인 강의를 위해 내용을 숙지하고 보완하면서 각자의 어린이집에서 4회기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결실을 맺었다. 마지막으로 종결 및 유지기에는 지난 회기 동안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공동체의 종결과 유지에 대해 논의하고 구성원 전체의 의견으로 유지를 결정한 시기이다. 이처럼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는 구성원들과의 정서적 친밀감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며 학습하고, 실천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전문성이 증진되고 부모교육 실행에 변화를 가져온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면서 구성원의 전문성과 실천적 지식 증진을 돕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시사한다.

둘째, 원장들은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모임을 통해 학습을 시작하면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부모교육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였다. 학습하는 과정에서 원장들은 자신의 육아를 성찰하고 양육태도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리고 학습한 내용을 영아와 부모에게 대입해보며 영아를 세심하게 관찰하게 되었고 부모의 양육태도를 이해하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영아와 부모에 대한 관점의 변화도 경험하였다. 또한 일부 원장은 어린이집 부모교육 실행에 관한 관점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원장들은 부모교육에 대한 자신감과 능력이 향상되었다. 원장들은 공동체 모임을 통해 학습하고 실천한 내용을 내면화 하면서 부모교육 실행에 필요한 자신감이 높아졌다. 또한 부모교육 실행에 필요한 준비로 카드 뉴스, 강의안, 동영상 제작 등의 방법과 강의하기 위해 필요한 기기 사용법에 대한 능력도 향상되었다. 그리

고 4회기로 진행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적합한 준비도 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교육에 관한 자신감과 능력이 향상되었다. 원장들은 공동체 모임을 통해 부모교육에 관한 지식을 체계화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부모교육을 실행하였다. 원장들은 부모 상담에서 전문적인 대안과 구체적인 상호작용방법을 제시하는 내용의 변화가 있었고, 부모교육을 전달하는 방법의 능력이 향상된 원장들은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여 부모교육을 실행하는 변화도 있었다. 그리고 4회기로 진행되는 지피지기 안(安) 육아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원장들은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자신감이 증진되었다고 느꼈고 원장으로서 효능감과 자존감이 높아졌다고 하였다. 이는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원장의 부모교육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모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지금까지 원장들의 전문성을 증진하기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운영 과정을 살펴본 연구는 미미하였고 특히 부모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부모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전문적학습공동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어떻게 공동체에 적응하고 어떤 방법으로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실행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지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원장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에 관한 이해를 도울 것으로 기대 된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영유아교육기관의 원장들이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책임자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영유아교육기관의 원장이 부모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으며 부모교육을 직접 실행하기 까지 전문적

학습공동체에서 구성원들과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를 보여주면서 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부모교육 내실화 방안에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좋은 대안이 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부모교육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는 특별한 갈등 없이 이루어졌다. 운영 과정은 순탄했고 과정이 진행될수록 구성원들은 공동체 모임에 더욱 열정을 다하며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직접 실행하는 결실을 이루면서 모임을 유지하기로 결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문적학습공동체는 각기 다른 구성원이 모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공동체를 지속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공동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다룬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가정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영유아교육기관의 유형에 따라 전문적학습공동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후 연구에서는 특성이 다른 영유아교육기관 유형의 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통해 좀 더 폭넓게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운영 과정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부모교육을 위한 원장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교사교육이나 영아교육 등의 다른 주제의 교육을 중심으로 원장의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진행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원장들의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증진되었고 부모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영유아교육현장에서 원장이 부모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부모교육 실천을 개선해나가는 과정에 대한 실행연구가 이루어져서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원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 활성화를 돕는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의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운영 과정은 특별한 갈등 없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문적학습공동체는 각기 다른 구성원이 모이기 때문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돌발 상황으로 공동체 운영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운영과정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통해 성공적인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파악하여 제시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가신현, 윤영순 (2020). 어린이집 원장의 변혁적 리더십, 교사학습공동체 및 교사효능감 간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25(6), 253-274.
- 강경미, 이승연 (2016). 만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전업주부들의 경험과 생각에 대한 질적 탐색. *육아지원연구*, 11(4), 137-172.
- 강수경, 최혜정, 정미라 (2018). 부부관계 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단기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발달*, 31(1), 111-128.
- 강희신, 박수경 (2018). 보육교사양성기관 교사교육자들의 학습공동체 참여 경험과 의미. *유아교육학논집*, 22(3), 63-87.
- 경기도교육청 (2015). *혁신학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교육청 (2021). *혁신학교 2021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경기도교육청.
- 곽민옥, 이경님 (2017). 만 2세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 정서표현이 영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9(4), 171-190.
- 곽영순, 김종윤 (2016). 한국형 교사 학습공동체의 특성과 과제. *교육과정평가연구*, 19(1), 179-198.
- 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 권희정 (2016). 영유아기 자녀를 둔 군인가정 어머니를 위한 사이버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태도 및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열린부모교육연구*, 8(2), 21-36.
- 권경숙 (2008). 영아를 양육하는 초보 어머니들의 양육 특성과 어려움에 관한 질적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3(1), 229-255.
- 권경숙, 박지영 (2012).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의 어린이집 운영 과정 탐색. 미

- 래유아교육학회지, 19(3), 1-27.
- 권기남 (2012). 유아기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정 아버지의 자녀양육 역할능력 향상을 위한 e-Learning 기반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연구. 아동교육, 21(1), 5-20.
- 권낙원 (2007).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성 가능성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7(2), 1-27.
- 권미경 (2015). 부모참여가 확대된 열린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노력. 육아정책포럼, 45(-), 35-45.
- 권미경 (2017). 영유아 부모 양육역량 강화방안(이슈페이퍼 2017-18). 육아정책연구소.
- 권이정 (2018). 어린이집 원장의 기관유형에 따른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 한국융합학회논문지, 9(12), 321-330.
- 권정아 (2022). 어린이집 원장학습공동체 실행과정 및 변화: 보육과정 운영 지원을 중심으로. 동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혜진, 고영미 (2014). 영아기 첫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어머니가 경험하는 정서. 한국보육학회지, 14(3), 107-127.
- 김 호 (2020). 유아·놀이중심교육을 위한 유치원 학습공동체 참여 이야기에 나타난 경험 이해. 교육논총, 40(4), 189-213.
- 김가운, 최연철 (2020). 유치원 교사학습공동체 경험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0), 1231-1247.
- 김경애 (2023). 명상과 함께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효과. 유아교육학논집, 27(2), 99-128.
- 김경희 (2022). 유아교육기관의 창의적 역량과 유아교사의 학습공동체 및 핵심역량 간의 구조관계에서 원장 전문성의 조절효과.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교령, 안예슬, 이승연 (2021). 18~24개월 첫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탐색. 한국영육아보육학, 130(-), 103-135.
- 김길숙, 김지현, 이혜민 (2016).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분석 및 활용방안(연구보고서 2016-18). 육아정책연구소.
- 김나영, 황선영, 엄지원 (2019). 영아 양육지원 수요 분석 및 종합적 대응방안(연구보고서 2019-3). 육아정책연구소.
- 김득란 (2008). 영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육아지원연구, 3(1), 85-103.
- 김명하 (2013).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정서적 양육역량 증진 프로그램의 구성 및 적용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란 (2021).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학습공동체 참여 원장의 경험과 의미 탐색.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정, 방희정 (2017). 어머니의 반영기능과 영아의 애착.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0(3), 83-102.
- 김민정, 김종훈, 변혜원 (2018). 영아 아버지의 상호작용이 영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9(2), 171-189.
- 김민조 (2022).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어린이집 부모교육 참여현황 및 요구조사. 한국스포츠학회지, 20(2), 241-254.
- 김선영, 김희진 (2014). 영아의 기질, 어머니-자녀 간 애착,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간의 관계: 애착의 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34(5), 31-54.
- 김수정 (2006). 유아기 애착발달에 대한 이론적 탐색. 아동복지연구, 4(4), 175-187.
- 김수희, 최윤정 (2014). 부모교육. 공동체.
- 김연옥, 홍경선 (2022). 영유아자녀 성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그림책을 중심으로. 어린이문학교육연구, 23(2), 177-199.

- 김영실, 정영실 (2014). 영아의 가정문해환경 및 부모효능감이 영아의 어휘력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9(5), 243-264.
- 김영옥 (2017). 부모교육. 공동체.
- 김영주, 송연숙 (2007). 1세\_3세 영유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 지식과 양육스트레스.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475-793.
- 김영환, 이승민, 강두봉 (2017). 부모교육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교육문화연구*, 23(3), 75-94.
- 김옥경, 최인화 (2013). 가정어린이집집의 부모교육 실태와 보육교사와 어머니의 인식 연구. *생태유아교육연구*, 12(1), 1-25.
- 김은희, 정희정 (2019).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원가족 애착경험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9(4), 63-78.
- 김진아, 우민지, 임민정 (2021). 코로나19 전후 열린어린이집의 운영 변화: 원장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128(-), 55-76.
- 김태영 (2022).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천을 위한 유아교사의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경험.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6(2), 145-172.
- 김하정, 원효현 (2020). 교사학습공동체의 속성 및 참여요인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37(3), 109-134.
- 김현정 (2023).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한 유치원 교사의 놀이중심교육과정 실행역량 변화. *안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혜경 (2014).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개발 연구의 동향 분석. *아동과 권리*, 18(3), 331-366.
- 김혜금, 이미화 (2018). 가정어린이집 적정 영아 보육비용 산정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13(-), 69-95.
- 김희진 (2014). 부모교육과 지원. *파란마음*.
- 나복영 (2022). 현실치료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

- 레스, 내외적통제성 및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2), 73-87.
- 남지영, 정혜원 (2016). 가정어린이집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요구 및 활성화 방안. *열린유아교육연구*, 21(2), 29-53.
- 남효정, 장경은 (2015). 어머니 애착수준 및 언어통제유형과 영아의 언어발달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6(4), 143-161.
- 노은하, 송주은, 김문선 (2019). 부모됨 적응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맞벌이 부모의 초기양육경험의 내러티브 탐색. *교류분석상담연구*, 9(1), 23-44.
- 노인순, 김승희 (2021). SNS를 활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검증.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5(3), 407-442.
- 도현심 (2014).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문미숙 (2013). 가정어린이집의 부모교육.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영경 (2020). 영아기의 애착안정성과 유아기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 이후 시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온정적 양육행동의 통합모형 검증. *아동학회지*, 41(1), 29-45.
- 민현숙, 문영경 (2013).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과 영아의 발달 간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22(1), 43-56.
- 박미숙, 정희정 (2018).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정서표현성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8(3), 21-34.
- 박선미 (2014).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경험 및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 *학부모연구*, 1(1), 63-87.
- 박선정 (2021). 전문적학습공동체에 참여한 특수교사의 수업 성찰과 실천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성연, 서소정, Bornstein, M. (2005). 어머니-영아간의 상호작용방식이 영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6(5), 15-30.
- 박소영, 정지현 (2015). 어린이집 교사의 액션러닝 기반 소그룹 학습공동체 참여경험과 그 의미. 아동교육, 24(3), 151-176.
- 박소현 (2016). 가정어린이집 학부모의 영아기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조사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주, 박선희 (2020). 글 없는 그림책 읽기에 대한 교사의 온라인 학습공동체 경험과 영아의 반응 탐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21(2), 1-34.
- 박정순 (2016). 어린이집 부모교육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한일장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효국, 김낙홍, 김용익 (2023). 영화 활용 부모교육 개발을 위한 요구 분석: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대상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11), 667-688.
- 배정일 (2017). 가정어린이집 부모교육 및 부모참여에 대한 어머니들의 경험 탐구.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정현, 박미희 (2020). 교사학습공동체 효과 분석: 경기도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를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37(1), 309-338.
- 배지희 (2002). 유아교육과 부모참여의 의미와 실제에 대한 문화기술적 탐구. 유아교육연구, 22(4), 5-28.
- 배지희, 이유희, 임미선 (2015). 자녀의 문제행동 관련 부모면담에 참여한 부모들의 경험과 요구. 유아교육연구, 35(5), 475-497.
- 배지희, 조미영, 봉진영, 김은혜 (2011).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모교육 및 참여에 대한 부모들의 경험과 기대. 유아교육연구, 31(3), 279-304.
- 배지희, 황인애, 탁옥경 (2007). 영유아기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에 대한 전업주부의 요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1), 225-254.

- 백승선, 안연경, 광경화 (2017). 감성코칭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 정서표현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보육학회지*, 17(2), 1-24.
- 보건복지부 (2012).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3).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0).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2). *2022년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계획*.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2).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3).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4).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 사영숙 (2017). 수업전문성을 추구하는 영유아교사의 학습공동체 경험탐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경혜 (2009). 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한 대안적 접근으로서 교사학습공동체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교원교육연구*, 26(2), 243-276.
- 서경혜 (2019). *교사학습공동체*. 학지사.
- 서경혜 (2019). 학교단위 교사학습공동체 운동의 의의와 과제. *교육과학연구*, 50(2), 1-28.
- 서은총 (2022). 학습공동체 참여 경험을 통한 어린이집 원장의 변화와 성장. 건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주현, 유영만 (2021). Wenger의 실천공동체(CoP)에 비추어 본 온라인 부모교육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학습과정 사례 연구. *열린부모교육연구*, 13(1), 55-82.
- 선우현, 최광현, 고주은, 신원선, 박수연 (2023). PCIT에 참여하는 부모의 상호작용 기술 증진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자동 피드백 시스템 예비연구. *영유아아동정신건강연구*, 16(2), 69-88.
- 성구진, 김지은 (2022). 유치원 교사학습공동체 정책 실태 및 동향 분석:

-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교육논총*, 42(2), 201-220.
- 성미애, 송혜림 (2008). 사회투자론적 관점에서 본 새 정부의 가정정책. *가족자원경영과정*, 12(4), 1-13.
- 성영화, 이연우 (2016). 영아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어머니들의 부모역할적응 실태 및 어려움.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0(1), 357-380.
- 성정민, 송윤나, 박희숙 (2021). 원내 교사학습공동체 참여가 영유아 교사의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20(4), 129-151.
- 손은실, 오채선 (2022). 유치원 안과 밖 교사학습공동체에 나타난 교사 체험과 배움의 의미. *어린이교육비평*, 12(1), 55-101.
- 손주리 (2022). 원장의 변혁적 리더십과 공립유치원 교사의 직무만족도 및 교수몰입 관계에서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수준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정순 (2019).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체감하는 운영에 대한 어려움과 희망이야기.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진영 (2023). 어린이집 원장의 학습공동체 참여 경험과 의미 탐색.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애선, 김경후, 유지은 (2015). 영아의 기질과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 15(3), 173-191.
- 신혜영, 김명순 (2021). 만 1세 영아의 맞벌이 부모 동반참여 블렌디드러닝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아동학회지*, 42(2), 261-277.
- 안유리 (2022). ‘그려유’ 원외 유아교사 학습공동체 경험의 의미. *배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지혜, 안소영 (2021). 영유아 보육·교육 관련 기관에서의 학습공동체 연구동향 분석: 2010~2021년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아동중심실천*

- 연구, 16(2), 23-40.
- 엄민정, 김남희 (2022). 맞벌이 부모의 영아기 자녀 양육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생태유아교육연구*, 20(1), 31-58.
- 오세현, 남현우, 김태운 (2023). 비대면 부모자녀관계 게임놀이치료 프로그램 효과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41, 165-196.
- 우진경 (2018). 유아교사의 경험을 통해 본 효과적 학부모 상담을 위한 전제 조건과 상담전략. *유아교육학논집*, 22(2), 259-284.
- 원강희 (2019). 부모와 유아의 행복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해미 (2017). 가정어린이집 영아반 이용 실태 및 개선과제 (이슈페이퍼 2017-10). *육아정책연구소*.
- 유해미, 이규림, 이민경 (2016). 영아 대상 기관보육 내실화 방안 연구: 가정어린이집을 중심으로(연구보고서 2016-11). *육아정책연구소*.
- 윤미경, 민선혜, 김미숙, 배지희 (2019). 부모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어머니들의 경험과 사후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육아지원연구*, 14(3), 77-107.
- 윤미경, 배지희 (2021).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부모교육 운영을 위한 노력과 어려움 및 요구. *열린유아교육연구*, 26(4), 1-30.
- 윤은미 (2017). 어린이집 교사의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과 부모교육 운영 실태. *광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윤지영, 한미라 (2021). 앱 기반 가정연계 부모-영아프로그램이 부모와의 상호작용과 영아 발달 증진에 미치는 영향. *육아지원연구*, 16(2), 8-116.
- 이경호 (2011). 전문가학습공동체 구축을 위한 교장의 역할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29(3), 195-221.
- 이명순, 고여훈 (2016). 영아부모 양육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부모역할 및

- 요구 분석.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0(4), 435-456.
- 이미영 (2021).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한 유치원 교사의 집단전문성 형성과정 탐색.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미화 (2014). 0~2세 영아보육 이용실태 및 질 제고 방안. 육아정책포럼, 41(-), 6-19.
- 이미화, 김은설, 김길숙, 이진화, 윤지연 (2016). 영유아기 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한 전달체계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 10(3), 1-24.
- 이상희 (2020). 어린이집 부모교육 실태와 요구에 관한 보육교사의 인식: 영아반 부모교육 중심으로.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석순 (2006). 유아교육기관의 부모교육 유형 및 선호도.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0(3), 155-176.
- 이석열 (2015).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방안(이슈페이퍼 2015-01-1). 한국교육개발원.
- 이수민, 김경식 (2020). 교사의 전문적학습공동체 실천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교육사회학연구, 30(1), 143-177.
- 이승호, 이지혜, 허소운, 박세준, 한송이, 한은정 (2015). 교사학습공동체의 속성에 관한 질적 메타 분석. 교육학연구, 53(4), 77-101.
- 이연우, 성영화 (2017).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부모역할적응 프로그램에 관한 인식. 유아교육연구, 37(4), 695-714.
- 이원미 (2021).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무지개어린이집의 교사학습공동체 이야기. 부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원미, 권연희 (2022). 유아교사의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 참여의 의미 탐색. 한국보육지원학회, 18(2), 1-18.
- 이유희, 배지희 (2022). 초임 유아교사의 부모면담 역량 향상을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유아교육연구, 42(6), 329-355.

- 이윤정 (2022). 유아 놀이 중심 과학적 경험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 실행과  
 성과 놀이지원 변화.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윤진 (2018). 영유아기 부모교육 실태 및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정책제  
 언(이슈페이퍼 2018-15). 육아정책연구소.
- 이윤진, 이정림, 임준범 (2017). 영유아기 부모교육 참여 실태 및 내실화 방  
 안 연구(연구보고 2017-9). 육아정책연구소.
- 이은정 (2020). 유아교육기관 교사학습공동체 연구동향 분석. *교육연구논총*,  
 41(3), 83-106.
- 이정원, 유해미, 조혜주, 김윤환, 신윤정, 한인애 (2023). 영아기 양육지원 정  
 책 체계화 방안 연구(연구보고 2023-17).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은 (2016). 감성코칭 중심 양육지원 프로그램이 영아기 자녀 어머니의  
 애착관계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사례연구. 충신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 이정화, 안영혜 (2023a).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핵심역량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13), 781-195.
- 이정화, 안영혜 (2023b).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핵심역량 중요도-보유도 분석.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7(7), 1125-1139.
- 이종철 (2019). 전문적학습공동체의 변화 과정과 변화 동인에 대한 사례 연  
 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준희, 이경호 (2015). 전문가학습공동체 구현양상에 관한 질적 연구: 혁신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28(2), 231-259.
- 이지영, 김현주 (2016).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경험하는 다면적 검직 업무수  
 행의 의미. *한국교육문제연구*, 34(1), 45-67.
- 이진실 (2020). 보육실습 지도를 위한 배움공동체에 참여한 실습지도교사들  
 의 실천적 지식.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춘자 (2020). C 유치원 교사들의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경험 분석. *교육과학연구*, 51(3), 83-104.
- 이혜선, 배지희 (2021). 사랑어린이집의 비대면 부모참여 및 가정연계 실시 간 온라인 수업에 대한 실행연구. *육아지원연구*, 16(2), 5-35.
- 이혜자 (2016). 가정어린이집 교사의 부모참여 활동에 대한 인식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성단 (2016). 자기이해 중심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장혜진, 이정림, 윤은주, 김해인 (2013).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제고 방안 연구(연구보고 2013-20). 육아정책연구소.
- 전홍주, 조수경, 김미정, 최항준 (2014). 아버지의 자녀가치, 양육신념, 양육 참여가 영아발달특성 변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5), 2678-2688.
- 정미라, 강수경, 김민정, 최혜정 (2014). 12개월 영아의 기질,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양육스트레스와 영아발달 간의 구조적 관계. *유아교육연구*, 34(3), 333-354.
- 정미라, 강수경, 이순행 (2018). 참여적 유아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행을 통한 연구자와 참여자의 교량 만들기.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2), 773-804.
- 정미라, 권정윤, 박수경 (2011). 12개월 영아의 발달과 가정환경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31(5), 371-389.
- 정미라, 김경숙, 이방실 (2013).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지원에 대한 질적연구. *유아교육연구*, 33(2), 163-189.
- 정보미, 김낙홍 (2016). 영아기 첫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부모교육 경험 및 요구. *아동교육*, 25(3), 377-393.

- 정숙향, 정희정 (2020). SNS 기반 영아기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조사. 한국보육학회지, 20(2), 65-85.
- 정은미 (2018). 부모애착이 자녀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모교육 연구, 15(1), 55-67.
- 정진화 (2014). 교사주도 학교개혁 운동의 등장. 교육사회학연구, 24(2), 243-276.
- 정진희, 이대균 (2022). 영아교사들의 온라인 학습공동체 실행과정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27(2), 1-36.
- 정채옥 (2017). 특별기고: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부모교육의 방향. 열린부모교육연구, 1(1), 9-26.
- 정혜옥, 이윤주 (2021). 공립유치원 교사의 원내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수준이 교수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연구, 23(2), 1-25.
- 정효정 (2020). 어린이집 원장의 일반직무 보수교육 운영체계의 논점과 제언, 한국영아보육학, 124(-), 169-202.
- 조기희 (2015).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의 실천 과정과 효과 탐색.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윤정, 주주자, 임현화, 박시영, 홍석희 (2016). 전문적학습공동체 사례 연구를 통한 성공요인 분석(수시연구 2016-08). 경기도교육연구원.
- 조인영, 이연우 (2021).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한 어린이집 교사들의 장애유아 놀이지원에 대한 실천적 변화 탐색.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8(3), 1-27.
- 주재연 (2022). 어린이집 교사가 인식한 원장리더십과 교사헌신의 관계: 교사의 학습공동체 인식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옥정, 김경숙 (2021). 유아교육기관장의 학습공동체 참여 경험의 의미. 한국유아교육연구, 23(3), 116-141.

- 진다정 (2020). 원내 교사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한 놀이중심 교육의 이해와 실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진다정, 이승연 (2021). 놀이중심 교육 실행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의 운영 과정과 의미. 한국유아교육연구, 23(2), 26-57.
- 최고은, 김지현, 정혜영 (2021). 유아교육현장의 교사배움공동체 이해: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3), 511-532.
- 최남정, 임부연 (2013). 유아교사학습공동체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33(5), 401-429.
- 최선녀 (2015).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영아기질, 양육행동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8), 5160-5171.
- 최해옥, 김성길 (2021). 부모교육 강사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역할 경험, 배움 경험에 관한 탐구. 미래교육연구, 11(1), 19-47.
- 최현정, 김상림 (2018).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가 영아의 기본 생활습관 및 놀이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7(2), 79-90.
- 최희정 (2009). 가정보육시설의 부모교육 실태 및 요구조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교육개발원 (2005). 학교 운영·교육행정체제 혁신 방안 2차 공청회: 학교 지원 중심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행정체제 혁신 방안. (연구보고서 2005-02).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보육진흥원 (2022). 2022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한국보육진흥원.
- 한명숙 (2020).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방식 및 양육스트레스가 기본생활습관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5), 398-409.
- 한지혜, 정희정 (2019).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훈육방식이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18(3), 1-25.
- 홍나래, 방희정 (2018). 양육 민감성과 안정 애착 증진을 위한 애착 기반 부

- 모교육 프로그램 적용 효과. *인지발달장애학회지*, 9(2), 91-108.
- Amin, N. A., Tam, W. S., & Shorey, S. (2018). Enhancing first-time parents' self-efficacy: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universal parent education interventions' efficac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82(-), 149-162.
- Anderson, S. G., & Olivier, D. F. (2022). A quantitative study of school as learning organizations: An examination of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teacher self-efficacy, and collective efficacy. *Research Issues in Contemporary Education*, 7(1), 26-51.
- Annenberg institute for School Reform. (2003).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Professional development strategies that improve instruction. RI: Author. Annerberg Institute for School Reform.
- Beecher, C. C., & Van Pay, C. K (2020). Investig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a community-based parent education program to engage families in increasing language interaction with their childr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53(4), 453-463.
- Birmingham, R. S., Bub, K. L., & Vaughn, B. E. (2017). Parenting in infancy and self-regulation in preschool: An investigation of the role of attachment history.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18(2), 107-129.
- Bogdan, R., & Biklen, S. K. (2015). 질적 연구 방법론의 기초[*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조정수 역). 경문사. (원전 2007 출판)
- Bolam, R., McMahon, A., Stoll, L., Thomas, S., & Wallace, M. Greenwood, A., ... & Smith, M. (2005). *Creating and sustaining effective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Research Report No. 637). Nottingham, UK: University of Bristol.

- Brown, G. L., Mangelsdorf, S. C., & Neff, C. (2012). Father involvement, paternal sensitivity, and father-child attachment security in the first three year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6*(3), 421-430.
- Chuang, N. C., & Ting, Y. K. (2021) School-based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as a means for curriculum development: a case study from Taiwan.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and Science, 7*(4), 1184-1210.
- Dietz, L. J., Jennings, K. D., Abrew A. J. (2005). Social skill in self-assertive strategies of toddlers with depressed and nondepressed mother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6*(1), 94-116.
- Dinkmeyer, D. & McKay, G. D. (2006). 당신도 유능한 부모가 될 수 있다 [*Systematic training for Effective parenting*]. (이경우 역). 창지사. (원전 1982 출판)
- Donner, A. M., Mandzuk, D. & Clifton, R. A. (2008). Stage of collaboration and the realities of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4*(-), 564-574.
- DuFour, R. (2004). Schools as learning communities. *Educational Leadership, 61*(8), 6-11.
- DuFour, R., & Eaker, R. (1998).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at work: Best practices for enhancing student achievement*, Bloomington, IN: National Educational Service.
- Gee, D. & Whaley, J. (2016). Learning together: Practice-centred professional development to enhance mathematics instruction. *Mathematics Teacher Education and Development, 18*(1), 87-99.
- Glesne, C. (2017). 질적 연구자 되기 [*Becoming qualitative researchers*]. (안혜

- 준 역). 아카데미프레스. (원전 2016 출판)
- Hargreaves, A, & Fullan, M. (2014). 교직과 교사의 전문적 자본 학교를 바꾸는 힘[*Professional capital: Transforming teaching in every school*](진동섭 역). 교육과학사. (원전 2012 출판)
- Hatch, J. A, (2016). 교육상황에서 질적연구 수행하기[*Doing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settings*]. (진영은 역). 학지사. (원전 2002 출판)
- Hord, S. M. (1997).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Communities of continuous inquiry and improvement*. Southwest Educational Development Laboratory.
- Hord, S. M. (2004). *Learning together, leading together*. Southwest Educational Development Laboratory, Teachers College Press.
- Kelly, J., & Cherkowski, S. (2015). Collaboration, collegiality, and collective reflection: A case study of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teachers. *Canadian Journal of Education Administration and Policy*, 169(-), 1-27.
- Leclerc, M., Moreau, A. C., Dumouchel, C. & Sallafranque-St-Louis, F. (2012). Factors that promote progression in schools functioning as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Policy & Leadership*, 7(7), 1-14.
- Little, M. E. (2020). Collaboration and connections among middle school teachers of mathematics: Enhancing efficacy through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SRATE Journal*, 29(1), 1-8.
- Louis, K. S., Marks, H. M., & Kruse, S. D. (1996). Teachers' professional community in restructuring school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3(4), 757-798.
- McDonald, P. J., Mohr, N., Dichter, A., & McDonald, E. C. (2018). 교사학습공동

- 체 운영을 위한 프로토콜[*The power of protocols: An educator's guide to better practice*](심영택, 김남균, 김남수, 김민조, 김종원, 이현명 역). 도서출판 하우. (원전 2013 출판)
- Olsavsky, A. L., Berrigan, M. N., Schoppe-Sullivan, S. J., Brown, G. L., & Kamp Dush, C. M. (2020). Paternal stimulation and father-infant attachment.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22*(1), 15-26.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6*(3), 421-430.
- Patton, M. Q. (2017). 질적연구 및 평가방법론[*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s*]. (김진호, 나장함, 차동춘, 조대훈, 조윤경, 임정완, 임부연, 최윤정, 이연선, 최진혁, 박주영 공역). 교육과학사. (원전 2015 출판)
- Sergiovanni, T. J. (2004). 학교 공동체 만들기: 배움과 돌봄을 위한 도전 [*Building community in schools*]. (주철안 역). 에듀케어. (원전 1994 출판)
- Sethna, V., Perry, E., Domoney, J., Iles, J., Psychogiou, L., Rowbotham, N. E. L., Stein, A., Murray, L., & Ramchandani, P. G. (2017). Father-child interactions at 3 months and 24 months: Contributions to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at 24 month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38*(3), 378-390.
- Tam, A. C. F. (2015). The role of a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in teacher change: A perspective from beliefs and practices. *Teachers and Teaching, 21*(1), 22-43.
- Vescio, V., Ross, D., & Adams, A. (2008). A review of research on the impact of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on teaching practice and student learning.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4*(1), 80-91.
- Wagers, K. B., & Kiel, E. J. (2019). The Influence of parenting and

Temperament on empathy development in toddler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3(4), 391-400.

Wittmer, D. S., & Petersen, S. H. (2012). 영아 발달과 반응적 교육[*Infant and toddler development and responsive program planning: A relationship-based approach*]. (이승연, 김은영, 강재희, 문혜련, 이성희 공역). 학지사. (원본발간일 2006년)

## ABSTRACT

### Implementation of a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on parent education for home-based child care center directors and their changes

Yun, Mikyung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understanding of the operation of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and present implications for efficient parent education by analyzing the process of operating a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for parent education and changes in the implementation of parent education by home-based child care center directors. The research questions set for this purpose are as follows.

1. What is the process of operating a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for parent education by home-based care center directors?
2. What are the changes in the implementation of parent education through the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of home-based care center directors?

The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for parent education implementation by home-based child care center directors was held for 16 sessions,

starting with a preliminary meeting on June 8, 2023, until November 24, 2023. There were 10 research participants who voluntarily expressed their intention to participate after seeing an announcement posted about the purpose of this study and content related to the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on an SNS used by home-based child care center directors in the region of Gyeonggi-do. The researcher participated as a leader in a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for parent education. The data collected through the researcher's participant observation consisted of field notes, research notes, transcripts of individual and group interviews, research participants' reflection journals, and learning products. Through the process of classifying and categorizing the collected data, the researcher analyzed the operation process of the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for parent education implementation by home-based child care center directors and changes in parent education implementation.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in which the home-based child care center participated was operated through the following periods: adaptation period, concentration period, development period, fruition period, termination and maintenance period. First of all, during the adaptation period, the directors had concerns about their roles as members, but through meetings, they experienced a sense of identity and bond with members and adapted by supporting and cooperating with each other. In the concentration period, the directors focused more on learning in the process of applying what they learned, sharing cases, and analyzing them.

Also, they discussed how to use what they learned for parent education. In the development period, the directors learned what they learned during the concentration period by connecting it to learning other topics, and at the same time, they developed a parent education program through the process of creating lesson plans to be used for parent education, thereby developing their expertise. Through discussion, the name of the program was decided as Jipijigi An(安) parenting program, which means knowing parent education and guiding comfortable parenting. The program consisted of four sessions for parents with infants, focusing on themes such as understanding their own as a parent, temperament of my kid, attachment of my kid, and emotional coaching for interacting with my kid. In the fruitful period, the directors gave lecture demonstrations to implement parent education using the program, familiarized themselves with the content, and directly implemented the Jipijigi An (安) parenting program for parents at their own centers. Lastly, in the termination and maintenance period, the directors decided to maintain community meetings with the hope of continuing learning for parent education through the process of sharing experiences in the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for parent education.

Second, the change in the directors of home-based child care centers was shown by changes in their perspectives on parent education through reflection, increased confidence, and implementation of various methods of parent education. To be specific, the directors showed changes in their parenting attitudes by looking back on and reflecting on their own parenting while learning about parent education through community

meetings. In addition, there was a change in their perspectives on infants and parents through the learning process, and some directors showed changes in their perspectives on parent education implemented in child care centers. Also, there was an increase in their confidence and ability in parent education. The director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internalized their knowledge about parent education, which improved their confidence in parent education, and their ability to create card news and lecture notes necessary for parent education improved. In addition, their ability to make appropriate preparations for conducting parent education programs improved. Finally, the directors implemented parent education in various ways. As their expertise in parent education increased, the directors experienced a change in parent counseling toward providing specific parenting methods using professional terminology when counseling parents, and they implemented parent education in new ways using methods learned through community meetings. In addition, they experienced self-efficacy as directors as they directly implemented the Jipijigi An(安) parenting program developed through community meetings.

Through this study, the directors of home-based child care centers participated in a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for parent education, shared professional knowledge, and cooperated based on the trust formed with members, and his expertise in parent education increased. In addition, directors showed changes in effectively implementing parent education appropriate for home-based child care centers based on their expertise in parent education. These results show that a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can be an effective way to enhance the expertise of director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and strengthen their capacity to practice expertise in educational settings. This suggests the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is effective as a retraining method for director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to support their professional development. Thus, there is a need to seek practical support methods such as cultivating leaders to provide support in operating a successful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to cultivate the expertise of director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